



2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2호

(루게 448)



◆◆◆◆◆◆◆◆ 차 례 ◆◆◆◆◆◆◆◆

| | |
|-------------------------------------|----|
| 2 월의 아침에 | 4 |
| 향도성을 높이 받드는 심장의 노래 | 5 |
| 청봉의 별빛아래 | 11 |
| 오가산의 마음 | 12 |
| 만대에 길이 빛나라 향도의 별이여 | 13 |
| 세계를 밝히는 위대한 향도성 | 13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 14 |
| 대 지 | 15 |
| 영 생 | 24 |
| 백두산 어머니산아 | 31 |
| 지름길에서 | 32 |
| 그이는 나의 삶의 별 | 34 |
| 빛의 시작점 | 36 |
| 회령사적비앞에서 | 41 |
| 장편소설 《높새바람》 (상)의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하여 | 42 |
| 단 풍 | 48 |
| 철산봉 外 1 편 + | 49 |
| 내 마음엔 언제나 붉은 노을이 | 49 |
| 흙 한삽 ! *외 1 편 外 | 50 |
| 떠받들려 사노라 | 50 |
| 눈길 30 리 | 51 |

| | |
|----------------------|----|
| 발표되지 못한 실화원고..... | 58 |
| 행복..... | 61 |
| 탄 생 *의 2 편Ä..... | 64 |
| 해지는 바다가에서 | 64 |
| 《바다속의 체육대회》 | 65 |
| 간석지의 물소리 | 66 |
| 막장에 울리는 진군의 노래 | 66 |
| 거 울..... | 67 |
| 운보령감 | 68 |
| 가장 즐거운 이야기는... .. | 75 |

2월의 아침에

리금녀

향기 그윽한 꽃바람
불어오는듯
어디선가 맑은 시내물소리
들려오는듯
누리에 봄정기 넘치는
2월

이 아침 우리의 마음
백두의 천지를 안고 설레이고
우리의 눈길
향도의 별을 우리러
승업해지나니

아, 해빛 찬란하던
만경대의 4월에 이어
영광 빛나는 2월이 있어
세계에 긍지높은 조선

이 땅에 칼바람 몰아치던 날에도
밀영의 사향가소리 들으며
광복의 새날을 안았던 인민이여
2월의 숨결로 래동하던 강산이여

오늘은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안고
가없는 하늘이 불타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이 감격에
락원의 거리를 비껴담아
대동강의 흐름 노래로 흘러라
그이 모신 이 기쁨에

아, 걷는 길 어디나
들리는곳 언제나
전설같은 이야기
별빛으로 깔려있는
내 나라

이삭 설레이는 벌어 가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주신 사랑
알알이 맺혀있고
막장에 가면 광석마다
그이의 해빛받아 눈부신 이 땅

속도전 돌격대의 우등불가에도
그이의 자애로운 미소 어려있고
동해 외진 섬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자하신 목소리 울려와

심장이 고동치는 순간순간을
그이 주신 신념으로 숨쉬고
걷는 걸음걸음
향도의 빛발 가리키는
그 길만을 우리 가나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는 한마음
천만이 불려도 한목소리
천만송이 피어도 한모습
만수무강 축원의 꽃으로
충성의 꽃으로 만말하여라

향도성을 높이 받드는 심장의 노래

리 수 립

위대한 향도성을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의 혁명위업이 가장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자랑찬 시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미래가 힘있게 개척되고있는 희망에 넘친 시대가 펼쳐졌다.

시대의 창공높이 향도성을 받드는 심장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위하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받들어 충성다하는것은 오늘의 우리 생활을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숭고한 지향이며 시대의 정신이다.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우리의 시문학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향도성으로 받들어 모시고나가는 인민들의 높은 자각과 충성의 열정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혁명의 태양은 충성으로 받들어 노래하는것은 주체적시문학의 제일생명이며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 시인들은 혁명위업의 대가 빛나게 이어지는 오늘의 위대한 력사적전환기에 향도성을 높이 받들어 충성다해 노래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시문학의 생명인 공산주의적당성의 기치를 더욱 견결히 고수하는 길임을 심장깊이 자각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이 개시된 때로부터 시작된 충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참다운 길임을 가슴마다에 새기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시문학은 혁명적서정의 핵을 이루는 충성의 서정을 높은 시적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심화하고있으며 향도성을 높이 받드는 새형의 인간-서정적주인공들을 빛나게 창조해나가고있다.

1

향도성을 높이 받드는 우리의 시문학은 오늘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성의 열정을 혁명적신념의 세

계에서 더욱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혁명적신념의 세계를 천명하는데 힘을 넣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정을 웅심깊이 노래하는것은 향도성을 높이 받드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시적으로 일반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적신념, 그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며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지켜지는 생활의 일관한 신조이다.

혁명적신념을 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향도성을 높이 받드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의 진실성과 순결성을 옹바로 노래할수 있고 그것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동요와 변함을 모르는 영원한 감정임을 뚜렷이 밝힐수 있다.

우리의 시문학은 오늘 향도성을 높이 받드는 우리 인민의 주도적감정을 혁명적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심오하고 품위있게 노래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시문학으로써의 풍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산에 들에 피여 만발하는
봄꽃에 앞서
눈속에 피여웃는
2월의 꽃으로 피고싶어라

락원의 이 강산에
행복의 꽃을 피워 가꾸는
우리 당중앙의 창가에
그윽한 꽃향기 더하여주며...

우리의 나날에
노래는 많고많아도
세상 가장 아름다운
2월의 노래되어 울리고싶어라

우리의 가슴마다에
기쁨의 노래 안겨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인민의 축원 하나로 담아 전하며...

오, 대를 이어 영원히
끝없을 우리의 충성에

무궁한 앞날을 이어준
2월이어!

심장은 있어 무엇하랴
나의 운명
그품에 맡기고 사는 어 가슴
충성으로 불타지 않는다면...

아, 해발 찬란한
빛밝은 우리의 세상에
밝음을 더하여주는
2월의 빛발로 되고싶어라

순간을 살아도 오직 한가닥
당의 빛발로 빛나고싶어라
한몸을 바쳐 빛을 뿌리고
인듯 사라지는 혜성파도 같이...

시인 조성관의 시 《2월의 념원》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하여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혁명적신념에 기초하여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탄생의 날이 있어 뜻깊은 2월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이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2월의 꽃으로 피어나며 그이께 힘을 드릴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2월의 노래로 되어 울리는것이 오직 하나 시인의 뜨거운 념원이다. 시인의 더없이 불타는 소원은 또한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당의 빛발로 빛을 뿜는 2월의 빛발로 되는것이다.

이러한 상징의 바탕에는 한생을 오로지 향도성을 충성다해 받들어 친위대, 돌격대로 살아가려는 전사의 심정이 뜨겁게 굽어치고있다.

시의 이러한 열정은 상징적수법의 독특하고 세련된 구사를 통하여 더욱 인상깊이 돋구어졌다.

쌍을 지어 흘러가는 1~2련과 3~4련 그리고 7~8련에서 시인은 흠모와 충성의 상징으로 꽃과 노래와 빛발을 제시하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가꾸어진 우리 인민의 빛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인민의 충성심에 의하여 당중앙에 기쁨과 만족를 드리게 되는 그 모든것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봄꽃에 앞서 눈속에 피어웃는 2월의 꽃으로 피여 당중앙의 창가에 향기를 더할 간절한 생각을 펼치면서 그 꽃을 당중앙에서 피워주는 행복의 꽃과 련

결시킨 수법을 보라.

참으로 시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사랑과 충성으로 맺어진 령도자와 전사의 호상관계가 뜨겁게 깔려있다. 내용상 하나로 묶여진 두 련에서 하나의 상징이 거듭 새로운 상을 낳으며 련결되고 이전되며 대응하는 과정에 그 생활적의미가 더욱 넓어지고 념원의 감정이 감칠맛 있게 돋구어진다.

물론 이 시가 주목을 끄는 점은 념원의 정서를 상징의 수법으로 재치있게 부각한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시에서 주목되는것은 혁명적신념의 세계를 깊이있게 천명함으로써 념원의 감정을 더욱 심화하고 주도적감정의 철학성과 품위를 더욱 강화하고있는 데 있다.

시는 5~6련에 이르러 신념의 세계를 활짝 개방함으로써 시의 정서에 불타는 생명과 억센 활력을 주고있다.

시인은 영광의 2월이 대를 이어 끝없는 우리 인민의 충성에 무궁한 앞날을 이어주었다고 격조높이 토로한다.

힘있게 울리는 이 시구절은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과 머나먼 미래를 두고 주체위업의 개척과 그 완성의 로정을 두고 줄기차게 펼친 철학적사색의 열매이다.

시인의 사색속으로는 모진 시련과 혈전 속에 걸 어온 우리 혁명의 지난날이 안겨왔으며 장군님을 따라 그 천만리길을 헤쳐오면서 력사에 아로새긴 혁명의 진리가 엄숙히 울려왔을것이다.

시인은 진정 력사의 나날에 대한 심오한 사색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한몸에 안고 그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자유도 행복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였으며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혁명의 장래운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후계자에 의해서만 빛나게 담보된다는것을 신념으로 파악하였다.

대를 이어 계속될 우리 혁명의 미래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가장 빛나게 해결된것이다.

시인은 조선의 영광, 민족의 이 자랑을 확신에 넘친 말, 고르고 고른 함축된 시어로 힘있게 개방하고있다. 철학적인 무게를 가지고있으며 독창적으로 탐구된 이 구절에는 또한 우리 혁명, 우리 인민의 생명을 무궁한 앞날에로 이어준 2월에 끝없는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시인의 진정이 뜨겁고도 절절하게 넘쳐나고있다.

시인의 심장은 영원한 충성의 불길로 타오른다.

이 불타는 심장의 도가니속에서 혁명과 생활의

진리가 하나로 융합되어 주체의 인생관으로 터져나 오고있다.

시인은 부르짖는다.

대를 이어 영원한 충성으로 심장이 불타지 않을 때 그 심장은 인간에게 한푼의 가치도 없는것이라고.

그렇다!

문제는 인간의 심장이 무엇으로 고동치는가에 있다. 심장이 향도성을 높이 받드는 충성의 불길로써 열화같이 타오르고 힘있게 맥박칠 때 우리시대 인간들은 참다운 삶의 경지에 오를수 있다.

시인은 이처럼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성심을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근본으로 열렬히 주장하였으며 그것을 심장과 충성심의 호상관계에 관한 철학적인 표현과 특색있고 간결한 수사학적질문, 전도법의 구사로써 감명깊이 토로하고있다.

간결하면서도 감칠맛 있게 시를 다룰줄아는 이 시인의 창작적개성은 함축적이면서 품위있는 시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더욱 빛나고있다.

시는 신념의 세계를 무게있게 천명함으로써 첫부분에서 노래하여 온 념원의 정서를 더욱 절절한것으로 되새길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그 념원을 또한 의지의 정서로 둔구어 시의 마지막을 여운있게 마무리수 있게 하였다.

2월의 빛발이 되어 혜성처럼 한몸 바쳐 빛을 뿌릴 념원과 의지를 펼친 시의 7~8련은 그것을 잘보여준다.

영광의 2월에 부치는 전사의 념원을 신념의 세계로부터 밝혀 더욱 절절하게 노래하였으며 그것을 또한 의지의 감정으로 줄기차게 밀고나간 바로 여기에 이 시의 감정조직의 특성이 있으며 감정의 진실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주도적감정을 조화롭게, 웅심깊게 노래한 이 시의 창조적성파가있다.

혁명적신념을 주도적감정의 바탕에서 깊이 천명하고있는것은 비단 이 시 한편에서만 보게 되는 특성이 아니다.

물론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따라 모든 시가 이 시와 똑같은 감정조직방식을 취할수는 없다. 그러나 주도적감정을 심도있게 품위있게 천명하기 위하여 시의 정서를 신념의 세계에로 파고드는것은 하나의 합법칙성이다. 우리 시문학은 오늘 창작실천을 통하여 이 합법칙성을 확고히 파악하고있다.

명가사로 창작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념은 하나》와 같은 작품들은 말할것도 없고 철학적인 품위를 가진 적지 않은 서정시편들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향도성을 충성으로 노래하는 우리 시문학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특징은 혁명적신념의 세계를 폭넓은 사색과 강렬한 체험의 통일속에서 뚜렷이 부각해내고있는것이다.

폭넓은 사색과 강렬한 체험의 통일, 이것은 혁명적신념을 시적으로 부각하는데서 우리 시문학이 틀어쥔 창조의 무기이다.

신념의 노래는 무엇보다도 시인의 폭넓고 깊이있는 철학적사색을 요구한다.

시인들은 혁명적수령관의 높이에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고들며 혁명의 진리, 생활의 진리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사색하여야 한다.

우리의 서정적주인공들은 오늘의 우리 생활을 혁명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가장 책임적인 시작으로, 혁명위업의 대가 빛나게 이어지는 위대한 전환의 시기로 받아안고 우리 혁명의 지난날과 먼 앞날을 전면적으로 부감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있다.

이것은 시인들로 하여금 시대생활의 전형적인 정황에 튼튼히 발붙이게 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전로정을 통찰할수 있는 넓은 진폭으로 사색을 펼쳐 혁명과 생활의 진리를 파악할수 있게 하였다.

신념의 노래는 또한 시인에게 비상히 강렬한 체험을 요구한다.

신념의 노래란 인생관의 토로이며 삶의 근본 관점과 립장에 대한 불타는 심장의 호소이다.

우리의 서정적주인공들은 향도성을 우러르는 사상감정을 자기의 운명선에서 깊이 탐구하고 체험한다.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시는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절감하며 그것을 또한 자신의 운명을 놓고 온몸으로 통감할 때 생활의 참된 진리가 파악될수 있고 신념의 노래가 터져나올수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혁명의 앞날에 대한 깊은사색은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리라는 영원한 충성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낳을것이다.

폭넓은 사색과 강렬한 체험의 통일, 여기에 신념의 노래의 원천이 있다.

2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지닌 그 모든 존엄, 모든 영예, 또 누리려는 그 모든 행복과 모든 보람이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마운 은덕의 결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있다.

우리 인민의 향토성을 우리러따르며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그이의 고마운 은덕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그 은덕에 보답하려는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의 충성심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보살피주는 은인과 그 은덕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보답하려는인민대중사이의 숭고한 사랑에 기초하여 지켜지는 높은 도덕적의무감이며 그애 어긋나게 행동하는것을 시대의 수치와 죄악으로 여기는 도덕적량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간직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시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혁명적의리의 세계에서 뜨겁게 노래하며 혁명적 신념과 의리의 감정을 하나로 융합시켜 천명하는것이다

오직 혁명적신념과 더불어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뜨겁게 밝힐 때라야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순결한 혁명적량심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진실하게 표현할수 있으며 우리 시대의 서정적주인공을 높은 경지에서 형상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지닌 혁명적의리감, 그것은 산 현실로 뜨겁게 체험되고있으며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감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문학은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마운 은덕을 가슴뜨겁게 받아안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감정적으로 열렬히,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하는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있다.

날에날마다 베풀어지는 은덕의 크기에 대한 절절한 감정적체험, 바로 여기에 혁명적의리의 노래를 창조하는 우리 시문학의 풍요한 경지가 있다.

...

아! 내 걷는 잔디 푸른 유보도엔
깊은 눈우에 첫걸음 옮기신
그이의 자욱이 굽이쳐갔어라
내 밟고 오르는 무리등 휘황한 층계엔
그이 어깨우에 젖던 가을의 비들이
방울방울 보석처럼 무리져있어라

그이 지새이시는 밤은
내 머리우에 환희로운 아침으로 열리고
그이 걸으신 길은
내 앞길에 행복의 백화로 설레여라

그처럼 쉬임없으신 낮과 밤을
단 몇초라도 덜어드릴수 없을가
이 하나의 생각
온몸 불이 되어 줄달음치는데

생각보다 더 멀리 앞서
내 꿈에도 느낄수 없었던
그처럼 황홀한 행복들이
그이 품에서 나래쳐솟아
나를 향해 팔 벌리고 또 마주오나니

아아,
생각으로도 따를수 없는
그처럼 크나큰 품에
내가 안겼구나
내 아이들이 안겨 크는구나
...
사랑은 다함이 없고
마음은 다할길 없어
자나깨나 하나의 생각이노라 ,

오! 그때문에
내 삶은 약동하고
내 땀방울은 번뜩이고
내 심장은 불타노라
...

시인 김정곤의 시 《내 하나의 생각》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베푸시는 은정의 한량없는 크기를 높은 시적형상을 통하여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생활에 대한 감각의 섬세성, 강렬성에서 남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이 시인은 크나큰 은덕을 노래하는데도 결코 받아안은 가지가지의 은정을 단순히 라렬하거나 수식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철두철미 시의 본도에 맞게 감성적인 느낌을 둔구어 표현하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이 시가 좋은 점도, 뜨겁게 안겨지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로부터 우리 사랑이 아무리 지극해도 결코 내리 사랑의 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참뜻을 가슴뜨겁게 깨우쳐주는것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베푸시는 크나큰 사랑이며 은정이다.

시인은 생활의 이 진실을 사랑과 보답의 두 감정전을 교차적으로 추구하면서 정서적으로 강조하였

으며 사랑의 크기를 가슴이 겨웁도록 받아안으며
목메이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감명깊게 부
각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서 꽃피나는 우리 인
민의 행복과 그것을 받아안은 서정적주인공의 간절
한 지향, 그 은정에 보답하려고 줄달음치며 사는 우
리 인민에게 그 은정의 천만분의 일도 보답 못하여
안타까운 우리 생활의 곁을마다에 다시 또다시 안
겨지는 꿈에도 그럴수 없었던 크나큰 행복!

마주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가슴에 겨웁도록 밀
려오고 또 밀려오고 파도처럼 행복우에 덧쌓여지는
행복을 받아안으며 우리모두 느끼는 그 벅찬 체험!

여기에는 생활의 나날에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이
그 얼마나 진실하게, 그 얼마나 가슴뜨겁게 노래되
여있는것인가.

하기에 언제면 그 은정에 보답할것인가 하는 하
나의 생각속에 삶이 약동하고 땀방울이 번뜩이고
심장이 불탄다고 노래할 때 독자들은 서정적주인공
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공감하게 되는것이다.

의리의 감정, 그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의 세계이
며 량심의 세계이다. 하기에 그것자체가 그 어떤 개
념화된 론리나 수식된 말로 설명되기에 앞서 깨끗
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노래될것을 요구한
다.

이것은 혁명적의리의 감정을 시화하는데서 성과
의 비결이 무엇보다도 받아안은 은정의 크기를 뜨
거운 느낌속에 어떻게 주정화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향도성을 우러러 전사의 의리를 노래하는 우리의
시문학의 특징적인 면모는 또한 뜨거운 은정에 충
성으로 보답해가는 삶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천명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혁명적의리의 세계는 량심으로 간직되어야 할뿐
아니라 생활실천으로써 보답하여야 할 그러한 세계
이다.

하기에 충성심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는 우리 시
대의 서정적주인공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
큰 은정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속
에서 노래되어야 한다.

내 정다운 길을
무심히 걸다가도
문득 그 생각
내 나이 지금 몇인가
...

해빛 밝은 창가에서
명상에 잠겨 글을 쓰다가도
문득 붓을 멈추고
생각하는것
내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있는가

덧없이 흘러간 세월앞에
존엄있는 당의 위엄앞에
내 나이를 선뜻 말하기가
왜 이다지도 어려운것인가
왜 이렇게도 대답이 무거운것인가

지난날 받아온 사랑의 길보다
바쳐야 한 보답의 길이 짧아
스스로 놀라는 이 마음
자책의 높은 맥박이어
...
순간의 쉽도 없이
혁명의 머나먼 길을 걸어오신 수령님
오늘은 이루지 못한 통일때문에
머리에 흰서리 내리는
아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뵈올 때마다

정녕 나라의 분렬때문에
동트는 새벽에도 잠 못드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로고를 생각할 때마다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
못다 한 일을 두고
더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불타는 이 마음이어

그때문에 정녕 그때문에
벽에 붙은 달력은 쉽게 번저도
인생의 월력, 내 나이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구나
...

(오선학 작 《당의 위엄앞에》 중에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 갈수록 더 자주 자신
의 여생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인간감정이다

정다운 길을 무심히 걸다가도, 아늑한 잠자리
에서 단꿈을 꾸다가도, 해빛이 흘러드는 창가에 앉아
글을 쓰다가도 문득 제 나이를 생각하며 앞으로 넘
은 여생이 짧은데 대하여 새삼스레 놀리는것은 그
얼마나 자연스러운 인간감정의 발로인가.

이 시의 서정은 이처럼 인간감정의 자연스러운 바탕위에 전개된것으로 하여 생활적으로 매우 진실하게 안겨오고있다.

물론 이 시의 서정의 생활적진실성은 인간감정의 자연스러운 계기를 잡아쥔데서만 오는것은 아니다.

이 시에서 감정의 진실성은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해가는 생활속에서 매 순간을 다그쳐가는 우리 시내 인간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을 생동하게 펼쳐나간데서 이루어졌다.

시는 자신의 인생행로를 돌아보고 내다보면서 애오라지 영광스러운 당의 은덕에 보답해가는 인간의 감정세계를 생활적으로 아름답게 펼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지난날 받아온 사랑의 길보다 바쳐야 할 보답의 길이 짧은것을 두고 스스로 놀라는 인간, 지난날을 헛되이 살아온 자책속에 언제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인간이다. 이 서정적주인공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쳐오신 은정을 생각하면서 그때문에, 정녕 그때문에 벽에 붙은 달력은 쉽게 번져도 인생의 월력, 자신의 나이는 쉽게 넘길수 없노라고 진정을 토로한다.

인생의 남은 순간순간을 안타까움과 모지름속에 다그쳐가는 내면세계의 진실한 천명, 여기에는 진정 당의 전사된 도리를 다해가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참다운 정신세계의 개성적인 면모가 있다. 이것으로 하여 시는 향도성을 우러러받드는 인간의 참다운 자세를 감명깊이 깨우쳐준다.

시 《당의 위업앞에》가 좋은 점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정을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생활감정으로 노래한데 있다.

생활감정의 표현이 없이 시의 진실성과 감화력을 생각할수 없다.

향도성을 우러르는 충성의 감정은 그것이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하나같이 깃들어있는 보편적 감정인 동시에 그들모두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쳐 오르는 개성적인 감정이다.

그것이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하여 개념적인 말로 추상화하거나 생경한 논리으로써 설명해버릴 때 정서는 거세되고만다.

그것이 일반성을 가진 공민적열정이라고 하여 요란한 수식과 과장된 형용어만으로 표현한다면 강점은 허공에 뜨고 시로써의 감화력은 사라지고만다. 직선적이거나 형식주의적인 경향은 여기서 금물이 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는데서 기본은 첫째도 둘째도 감정의 생활적구체성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는것

이다.

그러나 감정의 구체성과 기록주의적경향을 엄격히 구별해야 하며 시의 감정을 개인생활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넣는 경향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물론 감정의 구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속에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시의 화폭에 점철하는 방식을 취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생활사실을 라렬하는것으로써는 서정의 문학에서 형상의 생활적구체성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시형상의 구체성이란 구체적인 생활의 바탕위에서 환기된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의 구체성을 의미한다.

감정의 구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인자신의 개인생활과 관련된 체험을 인입할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의 생활적구체성은 시인의 내면생활의 특수성을 의미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시인은 자기개인의 생활감정으로부터 출발하면서 그것을 당해 시대인간들의 본질적인 감정과 융합시킴으로써만 생활감정의 참다운 구체성, 체험의 진정한 개성화에 도달할수 있다.

구체성이 곧 시대성, 심오성을 동반하지 않는다. 시인의 감정체험은 생활적으로 구체화되는 일반시대적높이에서 심화되여나가야 한다. 감정을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심오히 천명하는 여기에 충성의 열정은 진실하게 서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강점의 생활성과 구체성, 보편성과 시대성을 튼튼히 결합하여 진실한 생활감정을 얻어내는 방법과 기교는 다양하다.

여기서 시 《당의 위업앞에》는 특징적인 생활세부를 선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련의 경험을 보여준다. 이 시는 충성의 삶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극적인 생활세부를 골라잡고 그 하나의 세부를 혁명적의리의 감정을 승화시키는 선에서 분석적으로 전개하고있다.

흘러간 나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도달한 지점을 생각하는 하나의 인상적인 세부가 보답의 길이 짧아 스스로 놀라며 자책하는 세부로 발전하며 그것이 또한 인생의 월력을 쉽사리 넘기지못하는 세부로 이전되고 한순간에 한생을 담아살것을 다짐하는 내면세계와 련결된다.

또한 그것이 통일의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남녘땅에 모실 때 백발이 성성한 주인공이 먹은 나이를 두고도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감동적인 생활세부로 전개되여있다.

이처럼 여생을 두고 안타까와하는 특징적인 생활 세부가 감정선을 따라 여러모로 분석되면서 서정적 주인공의 생활감정을 시대의 높이로 승화시키는 디딤돌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시는 하나를 가지고 백을 느끼게 하는 지적일반화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특징적인 세부를 골라잡고 그것을 여러모로 천명하는것이 시적감정의 구체성, 진실성을 보장하고 정서적일반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시문학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성의 열정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써 밝히며 진실한 생활감정으로 노래할 때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의 정수를 더욱 뚜렷이 담게 될것이다.

X

향도성을 우러르는 심장의 노래는 대를 이어 가며 창작되어야 할 우리 시문학의 영원한 주제이다.

향도성을 우러러 충성의 서정을 탐구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적시문학의 영원한 생명도 있다.

우리 시인들은 조선혁명의 려명이 동트던 아침 한별을 우러러 충성의 노래를 지어 주체적시문학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개척한 항일혁명선열들을 본받아 모두가 80년대의 김혁이 되어 향도성을 높이 우러르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한편한편의 시작품을 당의 위업을 옹호하는 위력한 무기로 더욱 빛나게 창작해야 할것이다.

청봉의 별빛아래

서봉제

부름듯이 소곤대는
저 별빛에 담고갔으리
품을듯이 곁어보는
저 하늘에 없고갔으리

그리움에 불러보고
꿈결에 안아보며
그리도 먼먼 고난의 길을 헤쳐
투사들 다달은 청봉

조국땅을 통채로 품에 안고
다시는 떠나고싶지 않던
가슴속의 가득한 정
은하의 저 하늘에
단 한밤으로 피워놓았건만

무수한 저 별빛에 새긴
투사들의 간절한 꿈과 념원
내 머리우에 내린
그 모진 비바람을 다 안고갔기에
나는 태어나자 웃으며 어머니품에 안겼구나

덤불길이란
밝아도 못보고

눈보라길이란 헤쳐도 못본채
락원의 언덕길만을 걸어온
새세대 나의 삶

지나간 그 세월이 쏟아부은
눈비의 차거움을 잊고
사는것이 은덕속에만 묻힌다면
투사들의 마음 거울로 비쳐주는 저 별빛속에
나의 청춘 어이
단 한번이라도 떳떳이 실어볼것이나

답사배낭 베고
내 풀숲에 누워도
마음의 눈은 정녕 감을수 없어
생각의 바닥을 झा어보니
가슴에 내리는 찬란한 별무리 별무리...

아,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길이 살아갈
꽃피는 이 락원 눈부신 미래를 안고
투사들 잠못이룬 청봉이여
향도성 빛나는 영광의 앞길에
오늘은 온 밤 별과 함께
나를 불러 지새이누나!

오가산의 마음

리광선

오가산령에 눈이 내리니
어버이수령님 생각
더욱 간절해져라

얼어붙은 팔도구를 넘어
어리신 그 시절 우리 수령님
눈덮이는 오가산령을
오늘도 넘어오시는듯
그들의 일들이 눈앞에 삼삼해
오가산의 이 밤 잠들수 없구나

기차도 한번 못타시고
그것도 눈덮인 험한 천리길을
걸어서 오시다니
반생을 바쳐도
한생을 바쳐도
다 갈수 없는
배움의 먼 천리길을
우리 수령님 혼자서 오시다니

전설같은 그 이야기
온 밤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수 없어
여기서 한밤 생각하기엔
이 한 밤이 너무도 짧아

생각도 끝에
마음속 가정 깊은곳에
이 세상 모든것의 절정우에 있는 이 길
상상에 상상을 넘어서
생각키 어려운 천리길
그 길에 쉬여가신
눈덮인 오가산의 령길이어

그래서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오가산의 마음
오늘도 직고개를 바라보며
이제라도 문득
넘어오실것만 같아
우리 마음 달려가는 오가산의 령길

산새 우짖고
개울물소리 정다와
뜨락툑소리...
오곡의 설레임소리 넘치고
새라새로운 조국의 소식
마음 한복판에 광광 울리나
산촌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날을 따라 높아만가니

주인을 찾는듯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리는 오가산의 마음
뜨거운 마음 더더욱 간절해져라

못먹고
못사는
오가산의 사람들을 보시며
수령님 것처럼 가슴아파하실제
잠못들던 오가산

그날에 가신 오솔길론
대통로 뻗고
락엽에 묻히웠던 산촌엔
마을이 서고 학교가 일어서
웃음소리 글소리 랑랑한데
꽃속에 향기속에
이제나 오시려나
그제나 오시려나
기다리면 오시는것만같아
꼭 오실것만같아

령너머 멀리서
승용차 경적소리만 울리여와도
금시 오시는듯
달려나오던 오가산마을
한밤에도 달려나와 설레던 림산마을

그 마음 오늘은
길가에 온갖 꽃 피워놓고
기다리네 간절히
낮이나 밤이나 그 마음 뜨거운
꽃피는 림산 오가산의 마음이어
아, 간절한 조선의 마음이어

만대에 길이 빛나라 향도의 별이여

아흐마드 알리 알 아흐파쉬

인민들이 흠모하며 우러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
당신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
시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조선혁명을 이끌어가
시네

당신의 비범한 령도로
주체의 조국은 기적과 변혁으로 세계에 알려
지고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였나니
당신의 그 업적 그 위훈
대를 이어 영광으로 길이 빛나리

자주시대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은 위대한 향도의 별
인류의 태양

압제밑에 시달리면 수억만 인민들
당신께 모든 운명 맡기고있거늘
당신의 위대성은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력사에 금문자로 빛나고있네

인민의 지도자 자애로운 어버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사람들은 그 이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신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행복한 래일을 바라
보고있나니
2월의 명절을 맞는 이 아침 인민들은
경건한 마음과 마음을 담아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한다네

(필자 북부예멘사람)

세계를 밝히는 위대한 향도성

뜨라오레 지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께서는
현명한 예지와 정열
강철의 의지로
김일성주의기치를 휘날리시며
온 누리를 품어주십니다

빛나는 향도성이신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주체의 길
진보와 승리의 길 밝히시며
휘황한 빛발을
지구와 방방곡곡에 뿌려주십니다

오,우리 시대의 위대한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조선인민은

당신을 위대한 지도자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추대하고
인류는 당신을
주체위업의 해불로
그 승리의 향도성으로 우러릅니다

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세계의 위대한 향도성이신
당신의 예지로 하여 조선은 빛나거니
당신께서는 정녕
주체조국과 진보적인류의 기쁨이며 자랑이십
니다

인류는 당신을 모시며
오늘의 행복을 안고 양양한 미래를 내다보고있

으며
조선인민과 인류는
당신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며 흠모하나니
정녕 당신의 존함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영광입니다

경의를 드리웁니다
김정일 동지이시여
주체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신
당신의 탄생일을 맞는

온 세계는
주체위업의 미래를 위하여
당신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여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옵니다

친애하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

(필자 부르끼나파쏘 와가두구시
중앙검찰서 일군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바스쿠 마테이라 마칸자

조선에 솟은 조종의 산
백두산의 기상을 안고
력사에 2월을 수놓으며
시대를 밝히는 향도의 별 솟아올랐어라

찬란한 그 빛발
투쟁과 승리의 신심 안겨주고
인류와 시대가 갈망하는
공산주의미래를 밝혀주네.

어제날에 인민들은
바람에 흩어진 모래알과 같았고
압제에 운명을 내맡겼던 그들
자연의 횡포앞에서도 무력했어라

하건만 오늘의 인민은
자주적인 존재로
존엄있는 주인으로
창조적인 인간으로
사회를 변혁하는 투사로 되고
자연을 정복하는 개척자로 되었어라

향도의 별빛아래 주체예술은 전성기를 맞고
인류의 리상은 꽃피나거니
혁명도 건설도
승리만을 알게 되었어라

세계가 우러르는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세계인민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분
그이의 탄생일은
세계의 명절이여라

그이는
김일성 주의기치 높이 드시고
시대의 앞길 밝혀주시는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의 봄을 마련해주시는분

김정일 동지
투쟁의 기수이신 그이를
시대를 인도하는 별이신 그이를
세계는 우러르네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함께
탁월한 **김정일** 동지를 모신것은
조선의 영광 세계의 행복이거늘
세계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내 환희에 넘친 2월의 이 아침
인민들과 시대의 념원을 담아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내 그이를 하늘땅 끝까지 따르리라
그이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셔가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

(필자 모잠비꼬 사람)

대 지

현승걸

1

커다란 키에 등이 굽은 백발의 강인섭은 이렇게 갑자기 아들과 리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이것은 분명 아들과의 마지막 리별로 될 것이었다. 칠십고령에 계다가 몸이 편치않은 강인섭은 자기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아들과의 리별보다도 몇급절 괴로운것은 향토색이 몸에 배지 못한 손자애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었다.

역전으로 향한, 띠처럼 가느다란 들길은 이른 새벽의 귀한 손님을 기다리기도 하듯 들국화가 다목다목 얼굴을 내민 풀숲가운데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길로 강인섭은 아들과 함께 손자애를 앞세우고 걸고있었다.

지난밤에 가벼운 첫서리가 내려 상쾌하고 투명한 진 대기속에서 들판 저쪽 야산너머에 펼쳐진 과수원과 그뒤 푸른 하늘밑으로 굽이치며 흘러간 진한 잣나무숲이며 좁은 골짜기에 모여앉은 아담한 문화주택의 토색의 기와지붕도 그리고 벌써 누렇게 변해가는 강내가 다락밭이며 지어 길을 넓히느라고 남포질을 한 험상스러운 산기슭도 그 모든것이 아름다웠다.

《애, 수림아, 넘어질라.》 강인섭은 걱정보다는 애정에 겨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돌부리를 조심해라.》 가을 새벽의 고요하고 맑은 대기속에서 강인섭의 음성은 한층 명료하게 울리었다.

등에는 배가 불룩한 등산배낭을 지고 한손에는 버들가지를 든 손자애 수림은 길옆에서 모이를 쫓고있는 장평을 덮치려고 힘껏 내닫고있었다. 윤기 흐르는 아름다운 꼬리를 들썩거리는 장평을 잡는것보다는 할아버지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것이 한층 즐거운 모양 흘금 뒤를 돌아다보는 수림의 얼굴에 온통 웃음이 피어있었다. 장평이 꺼 경兢兢- 구성지게 울면서 한껏 살찐 무거운 몸뚱이를 기우뚱거리며 벌판변두리너머로 사라졌다. 그러자 수림은 잡았던 평을 놓아주기라도 한듯 흡족하고 행복스러운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강의하고 사려깊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듯한 강인섭의 눈에 한가닥 부드러운 미소가 흘렀다.

《수림을 잘 키우거라.》

하고 강인섭은 옆에서 묵묵히 걷고있는 아들 강세욱에게 말하였다. 아들 강세욱은 외교부문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외국의 우리 나라 대사관 성원으로 임명을 받고 조국을 떠나게 되었다. 조국을 떠남에 앞서 그는 바쁜 시간을 내어 잠간 고향에 들린것

이었다. 늙은 부모들과 작별하기 위해서였다.

《에...》

아들애의 장래가 아니라 줄곧 고향에 두고가는 늙은 부모들때문에 생각이 깊던 강세욱은 아버지의 서글피 울리는 목소리에 끌리어 자신도 알수 없는 막연한 대답을 하였다. 로인을 닮아서 역시 키가 크고 눈빛이 담담한,그 나이 치고는 지나치달만큼 진중하고 또 결단성이 있는 강세욱은 오늘아침 좀처럼 자신을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사업에 몰리어 이삼년만에 겨우 한번이나 들리게 되는 고향, 한적한 벽촌에서 외로이 여생을 보내고있는 아버지에게 어찌다가 차례지는 한가닥 기쁜인 아들의 방문...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완고한 고집에 놀리워 평양으로 모셔다가 함께 지내지 못한것이 못내 후회되었다. 강세욱이도 이렇게 갑자기 외국에 가게 될줄은 몰랐다. 삼년전에 있는 아버지의 진갑때 그는 아버지를 평양에 모시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권고하였다. 그때 강인섭은 온화하고 진중한 표정으로 《나는 고향에 뼈를 묻히겠다.》 하고 조용히, 그러나 고집스럽게 아들의 청을 막았다. 강인섭의 강직한 성품과 그의 남다른 경력,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잘 알고있는 강세욱은 하는수없이 단념하였던것이다.

작금년간에 아버지는 펍 로쇠하였다. 어깨가 한층 좁아지고 가슴은 안으로 우그러들었으며 앞이마의 주름살을 가리우고있던 백발의 머리조차 버성거져서 해빛에 탄 주름고랑이 한결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보다도 강세욱의 가슴을 아프게 한것은 사람의 인정을 그리워하는,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싶어하는 로인의 외로운 눈빛이었다.

《내 걱정은 말고 수림이를 잘 키우거라. 저놈이 제 고향을 잊지 않게 잘 보살펴라... 이국의 풍토에 익숙되자면 꽤 힘들게다. 계다가 거기는 무더운 아프리카니말이다...》

강인섭은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우정 딱딱한 어조로 말하였다.

강세욱은 대답이 없었다. 그것은 강세욱에게 자신이 없는 힘겨운 부탁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강인섭은 전쟁이 한창이던 30여년전에 어린 아들 강세욱을 데리고 대사관성원으로 외국으로 떠난 일이 회상되었다. 강인섭은 그때 일이 기억나는가고 물었다.

《생각납니다. 그때 이 들길에 눈이 하얗게 내리

고... 길이 미끄러워 자꾸 넘어지던 일이 기억됩니다.》

강인섭은 감회가 깊은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겨울이었지...》

강세옥은 아버지의 얼굴에 서글픈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았다. 이국의 하늘밑에서 전쟁을 겪고있는 조국인민들을 생각하며 늘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버지의 여전히 앞에서 달음박질하는 수림의 등뒤에서 무겁게 흔들거리는 배낭을 그들 부자는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 배낭에는 잘 여문 강냉이며 당콩, 고구마... 평양에서는 귀한것들이, 강인섭내외 간의 정성스러운 손끝에서 익은 열매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그들 일행이 샘터근방에서 우편통신원아바이를 만난것은 얼마후의 일이었다. 우편물이 든 커다란 가죽가방을 처실은 자전거는 길과녁의 느티나무에 비스듬히 기대있었다. 방금 세수를 한뒤라 그는 검게 탄 튼튼한 목언저리를 수건으로 훑치다가 《히, 이게 수림이 아니냐!》하고 구슬같은 물방울이 맺힌 두툼한 입술을 들고 반가와하였다. 엉거주춤하고 그의 거동을 유심히 바라보던 수림은 전혀 낯을 모를 아바이였지만 정겹게 불러주는 이름에 끌리어 꾸벅 인사를 하였다. 우편통신원은 수림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세월은 애들이 자라는걸 보고 안다더니 참, 몰라보게 컸구나, 그레 외국엘 간다면서? 할아버지가 섭섭하시겠다.》

우편통신원은 생각나는듯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내며 수림의 눈앞에 펼쳐보이였다. 거기에는 진한 토색의 반들반들 윤기흐르는 밤알 네개가 들어있었다.

《저 고개밑에서 얻었다. 올밤이다. 나한텐 이것밖에 없구나!》

《수림아 인사를 드려야지.》

강세옥은 아들에게 말하였다.

찌렁찌렁 울리는 그 우편통신원의 자전거소리가 점점 멀어져가다가 가느다란 오솔길과 함께 풀숲에 잦아버렸다. 그다음에는 가을아침의 벽촌의 특유한 고요. 무르익은 자연조차 녹아버린듯한 깊은 고요가 들판에 깃들었다.

강인섭은 그 둔덕진 샘터에서 쉬기로 하였다. 수림의 등에서 그 배가 불룩한 등산배낭을 벗겨놓고 그 애 바지가랭이에 붙은 풀씨들과 마른 풀잎을 아주 깨끗이 털어버리였다. 그다음에는 수림의 손을 이끌고 샘터에 갔다. 커다란 바위쪼에서 구슬같은 모래를 가볍게 뿜어올리며 맑은 샘물이 솟고있었다. 삼복더위에도 손끝이 시린 샘물, 물맛이 좋은 이 샘물은 강인섭이 어릴적부터 사랑하였는데 거기에는 가지가지 추억이 많았다. 강인섭은 자기의 일생에서 대부분 외지에 나가있었기때문에 이 고향땅의 물맛을 많이 보지 못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

는 샘물이였다.

《수림아, 물병을 가져오너라.》

강인섭은 정갈한 샘물에 손을 씻었다. 수림은 빨간색 비닐물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강인섭앞에 내밀었는데 그의 총명한 눈은 샘물이 아니다 저쪽 주변의 들꽃에 팔려있었다.

《물병을 들고있거라.》 강인섭은 가독나무잎으로 물을 뜰 고깔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저건 무슨 꽃이나?》

《그게 들국화란 꽃이다. 들에 피는 국화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들국화는 내가 꺾어줄테니 어서 물병을 들고있거라.》 그랬으나 들국화에 유혹된 수림의 눈길은 줄곧 거기에만 쏠리고있었다. 《여기 샘물터를 보아두거라. 네 증조할아버지때부터 쓰던 샘물이다. 네 아버지도 어릴적에 이 샘물을 마셨구... 한번 마셔보아라.》 강인섭은 가독나무잎 고깔에 뜬 샘물을 수림의 입술에 갖다대었다. 《고향물맛을 잊지 말거라.》 따뜻하나 떨리는 손으로 강인섭은 수림의 등을 쓸어만지였다.

산간역은 언제나와 같이 조용하였다. 더구나 이른아침이어서 더욱 손님이 적었다. 세멘트포장을 깨끗하게 한 역구내에서 열차를 기다릴 때만 하여도 강인섭은 여전히 조용하고 침착하였다. 그러나 저쪽 산협에서 기적이 울리고 열차가 들어오자 문득 외로왔고 동시에 서글퍼졌다. 게다가 열차가 일분동안 정차하고 인차 떠나서 아들과 **손자애한테** 마지막 인사도 변변히 할수가 없었다.

《아버님, 몸성히 계십시오.》

강세옥의 음성은 떨리었고 눈빛은 흐려있었다.

강인섭은 그저 머리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을뿐 이였다.

《할아버지- 안녕-》

수림은 그 어린 마음에도 떠나는것이 아쉬운듯 좀처럼 할아버지 손을 놓지 못하였다.

《수림아, 잊지 말거라 여기를...》

강인섭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였다.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열차가 달려가자 수림의 얼굴이 안개속에서처럼 뿌옇게 흐려보이였다. 그러나 강인섭은 수림이가 혼드는 들국화뭉치만을 놓치지 않고있었다. 그것을 붙잡기라도 하듯 강인섭은 급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런데 그 들국화가 문득 가지가지 흩어지면서 허공에 떠올랐다. 수림이가 흔들다가 그만 놓쳐버린것이였다. 《아. 저런...》 강인섭은 꽃가지를 붙잡기라도 하듯 팔을 벌리다가 그만 발목을 굽디고 몸을 비칠거리였다. 가슴 허전함이 일순간 강인섭을 휩싸버리였다. 아들과 손자애의 숨결인양 저편에서 흘러오던 열차의 진동도 점점 낮아지더니 드디어 모든것이 조용해지고 산간역의 아침고요가 한층 더 깊이 드리웠다.

뒤따라 역에 들어서고있는 특별렬차의 차창가에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앉아계시었다. 벽촌의 산간역을 지나칠 때마다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렬차는 급격히 속력을 늦추고 역을 스쳐지나고있었다. 한번 내려보시고싶지만 사정때문에 그냥 스치는 역들, 그 역들의 지명도, 산천도, 역사의 모습도 익히고싶으신 그이께서는 창밖을 유심히 살피시었다 포장을 한 역구내는 이른아침의 이슬에 젖은채로 있고 초가을의 선명하고 따뜻한 아침노을 드리워있어 한번 밝아보고싶도록 아늑하고 정갈하였다. 나 이 지숙한 역장과 얼굴이 넓은 애젊은 안내원처녀가 엄격한 자세로 특별렬차를 우러르며 거수경례를 하자 그이께서는 가볍게 눈인사를 하시었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역구내가 끝나가는 마지막 전주대미에 있는 웬 로인의 모습을 보신것은 그후의 일이었다. 그 백발의 로인은 땅에 홀어진 파란 들국화송이를 거두고있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한송이한송이 상할세라 정히 꽃을 주고있는 큰키에 둥이 약간 굵은 로인의 머리는 푸른 하늘과 아침 노을밑에서 유난히도 하얗다.

특별렬차를 알아본 그 로인은 경건히 허리를 펴고 이쪽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는데 생생한 들국화를 가슴에 안은 유별스러운 모습을 눈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었다. 로인의 눈에 눈물이, 쓸쓸하고 피로움이 스민 눈물이 어린것이다. 로인은 이런 창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할 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신이 렬차에 앉으신것을 잊고 그 로인을 부축하시려고 언뜻 자리를 일으키며 한손을 내드시었다.

부축과 도움이 필요한, 외롭게 느껴지는 로인이었다. 게다가 로인은 그 서글픈 표정도 눈물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웬 로인일가, 무슨 일로 역에 나왔는가, 잠시 이런 생각에 잠기셨을 때 렬차는 벌써 역구내를 벗어나고 이어 로인의 모습도 사라지였다.

렬차는 심산계곡을 살같이 달리더니 이어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벌판을 가로질러가고있었다. 련련히 늘어선 산밭들이 먼 하늘밑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앞에는 그 로인의 하얀 머리며 외로운 얼굴표정에 서글픔이 어렸던 눈물, 그리고 가슴에 안고있던 들국화가 어른거리였다. 그 이튿날도 그다음날에도 이상하게 그 로인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었다. 바다가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해풍에 밤공기는 한결 신선하고 상쾌하여 밤이면 그토록 성가시게 굴던 하루살이며 부나비들도 뜸해져서 속소의 정원은 산책하기에 좋았다. 그래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외딴길을 거니시며 하루종일 분망히 보내

신 현지지도의 피로를 풀고계시었다.

그이의 옆에는 저녁차로 평양에서 방금 도착한 외교부장장, 이번에 외국에 대사로 임명을 받은 리재수가 서있었다. 출발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오늘 래일 떠나려고 할 때 그이께서 급히 부르시었다. 무슨 일로 부르실가, 이런 생각에 골몰하면서 그이께 보고드릴 자료들을 총총히 더듬으며 여기에 당도한 리재수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표정이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감회에 잠기시여 말씀하시었다.

《떠나기전에 한번 만나보고싶어 불렀소. 이제 조국을 떠나면 서로 만나기가 힘들거요. ... 농촌의 가을경치도 감상하면서 하루이틀 나하고 있습니다아 프리카의 그 나라에는 가을이 없지않소?》

《예, 내내 무더운 여름입니다.》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을거요. 무더운 여름... 지금같이 조국에서 맞이하는 신선하고 맑고 깨끗한 가을밤이 그리울거요.》

리재수는 놀랐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그 나라는 가을이 없지. 그러니 오늘밤같은 신선한 바람도 없을것이다. ... 리재수에게는 **김정일** 동지를 모신 이 가을밤이, 이 순간이 무척도 소중하였다.

《외국에 가면 그리운게 조국이지...》

하고 그이께서는 한껏 여문 별들이 빛을 뿌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시었다.

시큼한 두엄냄새가 저편 골짜기에서 바람결에 흘러오고 장난에 취한듯한 강아지의 늘어빠진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들을 리재수는 난생처음 감상하는 심정이였다. 리재수는 떠날 준비에 급급하면서 또 생각은 그 낯선 외국에서 해야 할 가지가지 사업에 골몰하고있던 자신을 오늘에야 발견하였다. 정말 그는 조국의 자연을 음미하고 감상할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대외사업에 몰것은 그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소한 움직임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나 조국의 자연과 계절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관심하였다.

오늘밤 리재수는 그것을 문득 느끼였고 그리하여 새로운 눈으로 밤하늘의 별들과 희미한 달빛아래 묵묵히 누워있는 들판과 달그림자속에 막힌 산밭들을 미안스러운 눈으로 깊은 자책속에서 바라보았다. ,

이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의지깊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속마음을 감출줄 모르는 리재수가 번잡하고 무거운 직무에 충직하느라고 언제 한번 마음놓고 쉬지 못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고계시었다.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야 하오. 그래 아이들은 몇이오? 늙은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던데?》

《예, 원산쪽에 장인이 계십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도 그 역전에서 보셨던 백발의 로인, 가슴에 들국화를 안고있던 사

람의 도움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던 그 로인을 회상하고계시었다. 그 장인한테 찾아가 인사를 했는가고 그이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시었다. 리재수가 좀 애매한 대답을 하시자 그이께서는 안가보았으면 꼭 들려가라고 거듭 당부하시었다.

《아프리카는 조국에서 이역만리 떨어져있고 또 주변나라가 복잡한것만큼 믿을것은 혁명동지들밖에 없습니다. 동무는 대사이기때문에 아래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생사를 같이해야 합니다. 모두가 사상의지적으로 단합하여 수령님을 옹호보위해야 합니다. 그래 이번에 선발된 대사관성원들이 마음에 듭니까?》

리재수는 잠시 망설이게 되었다. 그들과 운명을 같이하는데서 리재수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이 가려고하지 않는 동무도 있는것이다.

《에...》

하고 리재수는 번거로운 생각을 수습하려고 애썼다. 리재수의 음성은 가을날 보슬비처럼 부서져서 정원의 풀숲에 잦아들어버렸다.

자신없이 공허하게 울리는 리재수의 말과 특히는 신심이 없는 그의 눈길을 감촉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으시었다.

《확신이 없는 대답이군. 적후로 떠나가는 지휘관이 대원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리재수는 이런 장소에서 즐겁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쩐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속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자신을 체지할수가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람을 리해하며 진실한 동지를 구한다는것이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저는 이번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것이 사람을 잘못 보았을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침울하던 그의 어조는 이내 랭담하게, 그리고 쌀쌀하게 울리는데 그이께서는 저오기 놀라시었다. 리재수가 사람의 문제를 두고 이렇듯 흥분하고있는것을 처음 보시었다. 게다가 리재수는 이제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일꾼인데서 그의 말을 심중히 듣게 되시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잠시동안 생기에 잠기신듯 사연을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서계시었다.

이윽하여 리재수는 자신처럼 믿고있던 이번에 떠나게 된 대사관성원중에서 누구보다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있던 강세욱과 결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었다.

그날 리재수는 고향을 다녀온 강세욱을 만났다. 고향에서 보낸 시간이 매우 짧았던때문인지 아니면 늙은 부모를 두고 떠나는 심정때문인지 강세욱은 수심에 잠겨있는듯 모습이 썩 피로하고 생기가 없

어보이였다.

리재수는 불현듯 동정심과 함께 그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온몸을 휩싸는것을 느끼였으며 동시에 자기가 나이도 사회경험도 많은, 외국에서 그를 돌아봐야 할 책임일군이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세욱동무, 개인적인 감정은 우리 이겨냅시다... 어서 떠날 차비를 하오.》

《대사동지, 저를 조국에 남도록 해주십시오.》

문득 강세욱이 하는 말이였다.

리재수는 처음에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실로 뜻밖의 소리였다. 그는 그 말을 확인하려는듯 강세욱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말보다도 태연한 강세욱의 얼굴빛이, 더는 설복할수 없다는듯한 그의 침착하고 조용한 눈길에 리재수는 아연해졌다.

《동무가 그런 사람이였소? ... 좋소!》

리재수는 극도로 격분하였으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나직하였다. 애초부터 리재수는 강세욱을 교양하고 설복하여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 생각이 없었다. 설사 강세욱이 마음을 고쳐먹고 떠나려고 해도 그것을 접수할수가 없었다.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강세욱을 외국에, 그것도 복잡한 지역으로 데리고가고싶지 않았다.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일조에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후회하지 마오. 동무는 자기를 자기 발로 짓밟았으니 누굴 원망할것은 없소... 하긴 떠나기전에 이렇게 갈라지길 잘했지!》

리재수는 강세욱과 결별하였지만 서글프고 피로왔다.

표석을 밟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볍게 흔들었다. 어둠이 스민 저편 골짜기에서 프락프르의 동음과 함께 개짖는 소리가 유난히 푹푹하게 들려왔다. 이때 리재수는 문득 여기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휴식하시는 정원이고 지금은 밤이며 자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다는것을 알았으나 인제는 어찌는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문제. 그것도 사람의 결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리하듯이 이번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심중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시었다. 강세욱... 그이께서는 혼자속으로 조용히 뇌이시며 그를 그려보시었다. 로어, 불어, 영어에 능하고 머리도 명석하며 평소에 소박하고 진실한, 사업에 충실한 동무였다는 리재수의 말이 아직도 귀전에서 쟁쟁히 울리고있었다.

외교부 지도원으로 사업하다가 한급 높은 서기관으로 임명을 받고 생활조건도 좋은 그곳 대사관에 파견되는 그 동무가 무엇때문에 모든것을 마다하고 조국을 떠나기를 단념하였는가.

《그래 무슨 리유로 조국을 못떠나겠다고 합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물으시었다.

《안해가 심장이 나빠서 비행기를 탈수 없고 또

고향에는 늙은 부모들도 있고 하여 떠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며칠전까지도 아무일 없던 동무가 갑자기 돌변하여 결심을 달리하게 된데는 심중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리재수는 격분을 가까스로 누르면서 침착히 대답하였다. 》

《강세옥… 그 동무가 고향을 다녀온 다음에 마음이 변했단말입니까? 그렇게 말할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소?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향에는 진갑이 녀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진갑이 녀은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 해방후와 전쟁시기에 외교부문에서 다년간 일했고 외국어에도 능한 로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없는것이였다.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정, 사사로운 감정이 그의 결심을 변경시켰는가. 왜 강세옥은 조국을 떠나지 못하게 된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무작정 침묵을 지킬가… 여기에는 그 어떤 심중한 문제가 있다. 리재수가 강세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단정해버리는데서 그이께서는 가슴아픔을 느끼시였다.

《리재수동무, 그 동무 고향이 어디요?》

리재수는 강세옥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칠십리구만. 멀지도 않는데 한번 그 동무의 고향을 찾아봅시다.》

강세옥의 고향쪽 밤하늘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서늘한 빛을 뿌리며 반짝이고있었다.

3

바위가 널리고 기복이 심한 산길, 오히려 그래서 인상이 깊은 산길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급히 걸으시였다. 승용차가 다닐수 있는곳에서부터 퍼그나 먼길을 걸으시였으나 그이께서는 평양에서는 좀처럼 맛보실수 없는 그윽한 가을정서 때문인지 전혀 피로함을 모르시였다. 더구나 산골 막바지의 알뜰한 농촌집에서 머리 흰 로인이 발목을 절룩거리며 달려나와 일행을 뜨겁게 맞이하자 그이께서는 무척 기뻐하시였다.

《지나가던 평양손님들입니다.》

로인들의 신상에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해롭다는 것을 알고계시는 그이께서는 음성을 낮추시고 잠시 동안 로인의 안색을 살피시며 깨끗하고 정갈한 마당가며 떡호박이 익어가는 담장이며 토방우에 놓인 화분들을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런 외진 산골에…》

강인섭은 꿈속에서 울리는듯한 다감하고 인정깊으신 어조를 마음속으로 외워보며 온몸과 마음을 의지하듯 그이의 손을 잡고 백발을 숙이였다. 실로 뜻밖이였고 과분한 행복이여서 강인섭은 동행한 일군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있었다.

《이 동무가 이번에 아드님과 같이 외국에 가게 된 대사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로인님이 여기에 제신다기에 인사도 할겸 들려보자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시는 그이의 모습과 먼지오른 구두, 그리고 바지아래기슭에 묻은 풀씨와 검불들을 살펴보며 강인섭은 그이의 로고를 깊이깊이 헤아리였다. 아들과 명랑한 손자애가 떠난 이후 더더욱 호젓하던 집, 리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벽촌 인제는 가까운 친척들속에서조차 망각된 이름없는 늙은이를 찾아주신 그이앞에서 강인섭은 인생의 기쁨을 지금에야 맛보는 감정이였다.

리재수는 랑철해보이는 눈길을 들어 로인에게서 인사를 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토록 험한 벽촌에까지 걸음을 하시게 한 강세옥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은근하게 나타내였다.

그이께서는 발목을 절룩거리리는 강인섭을 부축하시고 토방우에 앉으시였다. 커다란 키에 굵은 등이며 하얀 머리며 로인의 모습을 다시한번 살피시던 그이께서는 어디선가 보았는데, 하고 기억을 더듬으시였다. 활짝 열여놓은 옷방 책상우에 놓인 들국화꽃병에 시선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들국화를 가슴에 안은채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열차에 인사를 하던 그 로인을 알아보시였다. 이른아침 역구내에서있던 그 로인이 분명하였다.

《로인님, 일전에 나는 여기 산간역에서 로인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로인님은 들국화를 안고 역구내에 서계시지 않았습니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음성은 반가움에 가득차있었다.

그제서야 강인섭은 그때 특별열차가 지나갔으며 자기는 산란하고 쓸쓸했던 마음을 미처 가다듬지 못한채 열결에 그쪽으로 잠깐 허리를 굽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에… 제가 그때…》

강인섭은 서글프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로인님을 잊게 되지 않는것은 그날아침 그 들국화가 아주 인상이 깊었고 거기에는 꼭 사연이 있다고 믿게 된데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은 어떻게 상했습니까?》

강인섭의 쇠잔한 얼굴에 한가닥 생기가 스치였다. 인정깊은 말쑥에 끌리어 강인섭은 늙은 안해한테도 하지 않은 사연을 스스로없이 말하였다.

그는 아들과 손자가 외국에 떠나기에 앞서 고향에 들렀던것과 그들을 배려우려 이른새벽 산길을

견던 일을 감회깊이 이야기하였다.

《우리 손자녀석이 들국화를 마음있어하길래 꺾어서 안겨주었는데… 렬차가 떠나자 그놈이 꽃무음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흘렁 떨어뜨렸지요. 외국으로 떠나는 그놈이 고향의 그 들국화를 떨어뜨리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그만…》

은근하고 싱싱한 따뜻한 햇빛보다도 서늘한 들바람과 청신한 공기, 푸른 하늘을 더 즐기는듯한 들국화, 수림이가 들었던 그 꽃이 지금 로인의 책상앞에 있다. 거기에는 로인의 깨끗한 랑심과 냇이 그리고 소박한 녀원이 깃든듯싶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소중히 바라보시었다.

조국의 꽃이 귀중함을 알기에는 그 수림의 나이가 너무 어린것이다. 분명 우연하게 떨어뜨렸을것이었다. 그랬으나 로인은 그것을 두고 못내 괴로웠고 두루 섭섭한 생각으로 눈물을 보였을것이다.

깊은 동정과 따뜻한 존경으로 그이께서는 강인섭을 바라보시었다. 엇그제가 아니라 이미 먼 지난날에 알고계신듯 일순간에 무척 가까와지신 로인이 쓰고있는 옷방서재며 오랜 벽시계며 물날은 농립모를 하나하나 살펴보시었다. 그러시며 지금도 그날 이른아침 역구내에서 그 로인을 부축해주고싶으셨던 일을 두고 생각을 거듭하시었다. 그가 외롭게 보이시었다.

《로인님, 이 외진 벽촌에 외롭게 있지 말고 아들집에서 여생을 보낼걸 그랬습시다. 그 년세에는 옆에 시중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씀하시었다.

강인섭은 친근하고 선량한 눈길을 들어 일전에 아들이 와서 패놓은 장작더미와 저쪽 무너진 돌각담이며 로인의 쇠진한 힘으로는 어쩔수 없고 젊은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한것들을 두루 살피며 말하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아들집에 가고픈 생각도 있고 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때때로 고적을 느낍니다. 허지만 고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여기에 눌러앉아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이 늙은것이 있으니 아들손자 며느리도 찾아오고 또 친척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고향땅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그저 지나치게 되지 우정은 들리게 되지 않습지요… 애들이 이따금 들리면 고향산천도 돌아보게 하고 옛날 어렵게 살던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애들한테는 그게 필요합니다.…》

강인섭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무척 절절하게 울리었다. 자식들과 함께 있고싶어하는 이제는 자질하기도 힘들어하는 늙은 안해를 달래고 문득문득 머리를 드는 평양에 있고싶은 자기의 심정도 애써 누르는것이 그에게 있어서 혈치 않는 일이라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믿으시었다.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이께서는 감동어린 어조로 계속하시며 심중한 표정을 한채 듣고있는 리재수를 바라보시었다.

《고향땅을 비워두면 안되지요. 옳습시다. 고향에는 고향의 과거와 오늘을 잘 아는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로인님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수고를 하십니다.》

강인섭은 송구한듯 마루아래에 선채 두손을 마주잡고 잠시 머리를 숙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저 늙은 사람의 도리를 다할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수고가 따로 있겠습니까. 당에는 아무 보탬도주지 못하면서 과분 하게도 그 많은 년로보조금을 꼭꼭 받습시다.》

《아닙니다. 로인님이 하는 그 사업을…》

그이께서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계속하시었다.

《그 사업을 아무 사람이나 대신 못합니다. 새세대들에게 향토를 알게 하는 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강인섭은 황송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가슴을 울리는 그이의 말씀에 새삼스레 자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조국애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있는 본능도 아닙니다. 조국애, 그것은 고향에 대한 사랑, 부모들에 대한 사랑… 이런 구체적인데서부터 시작하여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는 감정입니다. 고향을 모르는 사람이 조국을 사랑할수 없고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나라에 충성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로인님이 하는 일이 어찌 하잘것 없는 것이겠습니까!》

강인섭은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자기의 지난날에 대하여 물으시었을 때 강인섭의 뿌연 눈동자에 한가닥 생기가 넘쳤다. 사람이란 말년이면 자기의 과거를 진정으로 알고싶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맙게 여기는 법이다. 그리고 과거를 말해주는데서 일종의 독특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강인섭도 이 순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나온 인생을 물으시자 벅찬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다. 문득 오늘 이 시각을 위하여 긴 일생을 살아온것만 같았다. 조국의 력사와 함께 흘러온 인생의 긴 력사. 심지어 아들한테도 품을 들여 말해준적이 없는, 그렇다고 자랑할것도 별로 없는 일생을 깊은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빨간 겹가위에 연분홍색 속지로 된 우리 나라의 첫 렬권을 가지고 대외사업을 하던 해방후의 나라들과 1952년 여름 전쟁이 한창이던 때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 성원들의 통역으로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통역을 해드리던 일, 그때 장군님께서 우리

통역원동무가 변변한 옷 한벌 없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겨울옷을 입고다니는데 우리가 아무리 곤난한 전쟁시기라 해도 통역원동무한테 옷 한벌이야 못해주겠소 하시면서 여름옷 한벌을 배려해주신 사실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다.

깊은 감회에 잠겨 이야기하였지만 정작 끝을 맺고보니 어덴지 인생을 다시 살고싶은, 그랬으면 후회없이 좀더 보람있게 살수 있을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로인님의 일생은 자랑하고싶은 일생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역원이란 돈을 받고 말을 파는 고용자이고 주인을 섬기는 머슴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 없는 존재입니다.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국가연회에 참석하시면 자신께서 드셔야 할 식찬을 통역원에게 손수 옮겨놓아주시고 국가수반들과 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통역원을 넣어주시곤하십니다. 이런 일은 오직 수령님의 품속에만 있는 일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말씀이시였다. 언제나 그이께서는 로인들을 락엽진 마가울의 나무처럼 대하는 젊은 일군들의 경솔한 행위를 절대 용허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행위가 얼마나 죄악적인가를 오늘 더욱 깊이 절감하시였다.

원근의 높은 산밭이며 파수원이며 기복이 심한 들판이 심산계곡의 때이른 황혼에 붉게 물들어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풀잎이 발목을 휘감는 오솔길에서 벗어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인섭을 부축히시며 걸으시였다.

심산벽지를 모처럼 찾아오신 그이를 배웅해 드리기로 결심한 강인섭은 열사람들의 만류는 물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듭되는 사양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 떠났다.

그이를 어떻게 한손으로 배웅해드리다니, 도리에 어긋나고 죄되는 일을 하고있는 자신이 피로와 강인섭은 겨우 걸음을 옮기였다. 발목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때문에 강인섭은 그이의 부축을 받고있는것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전에 강인섭이 손자애와 함께 잠시 휴식을 하던 샘터에 이르시였다.

맑은 샘물에 손을 잠그시였다가 이마의 땀을 훔치신 그이께서는 신선한 물기와 함께 서늘한 바람을 즐겁게 감촉하시며 리채수더러 샘물이 좋다고 한번 세수를 해보라고 권하시였다. 그러시고 샘터 주변에 핀 들국화를 바라보시며 손자애 수림이가 여기서 샘물을 마시고 여기서 할아버지가 꺾어주는 들국화를 받아안았을것이라고 짐작하시였다.

부드러운 황혼에 묻힌 맑은편 산기슭에는 자그마한 사과밭이, 정성껏 가꾼 사과밭이있었다.

빨간 사과들이 서로 비비대며 주렁주렁 달린 가지들은 힘에 겨워 받침대에 의지하고 늘어졌는데

황혼이 어린 사과나무밑에서는 살찐 햇송아지들이 명랑하게 뛰놀고있었다. 무엇에 놀란듯 다리를 쟁충 들었다놓기도 하고 낮선 손님들을 향하여 귀를 종긋 세우며 아직 머물지 못한 꼬리를 휘젓는 송아지들은 한결같이 귀여웠다. 더구나 새끼를 찾는 암소의 걱정스러운 울음소리가 파수원의 정서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사과밭이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알뜰합니다. 사과도 그렇고 저 송아지가 욕심이 납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강인섭은 미소를 지었다.

《그 사과밭을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전후복구건설때 꾸려놓았습니다. 전쟁때 미국놈들이 여기에 소이탄을 마구 떨어서 산들이 불타버린걸 파수원으로 개간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족한 표정이시였다.

《로동의 결과란 언제나 정직하고 공평합니다. 열매뒤에는 그보다 몇곱절 더 귀중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로인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인섭은 서둘러 허리를 펴고 머리를 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 소견에는 고향이란 감상하기 위한 산천이 아니고 땀흘려 가꿔야 할 땅 아닌가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럴진대 저는 고향앞에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인섭은 나직이 한숨을 지었다. 목소리는 떨리었고 그와 함께 어깨가 한층 아래로 처지였다.

《해방후 민주건설때도, 전쟁시기에도 저는 외국에 . 대사관일군으로 조국을 떠나있었습니다. 전후복구건설때도 외국에 가있었습니다. ... 젊었을 그때에는 잘 물랐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보니 그것이 후회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고향사람들, 우리 인민들과 생사를 같이 못하고 고향에 나무 한대 가꿔놓은것이 없으니 조국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해놓으려고 하루에도 몇번씩 결심을 하지만 이제는 늙고 병약해서 그저 마음뿐입니다.》

강인섭의 목소리는 서글피 울리었고 비감에 젖어있었다. 그것은 가슴에 품고있으면서 누구에겐가 꼭 한번 하고싶었던 말이였다.

이윽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나직하면서도 확신에 찬 음성이 울리였다.

《사람이란 언제나 자기 민족, 자기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떳떳하며 긍지도 있고 자존심도 있게됩니다. 그 누가 자기 인민을 떠나서 행복하였다면 그것은 오직 동물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혼자서가 아니라 조국인민들과 함께 나눌수 있는 행복이라야 진짜행복입니다.》

그러시고 강인섭의 쇠잔하고 꺾어진 손을 잡으시였다.

《일생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고 조국땅의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고 더구나 조국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지 못한것때문에 피로와하는 로인님의 그 마음을 나는 귀중히 생각하고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나 로인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외사업도 잘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였고 오늘의 조국을 건설한게 아닙니까!... 로인님이 이 벽촌에서 여생을 보내는 심정을 나는 잘 알았습니다...》

강인섭과 작별을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평양에 올라가면 강세옥동무도 만나고 손자애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인섭은 불현듯 그이를 따라 평양으로 가고싶은, 그이의 곁에서 여생의 마지막을 보내고싶은, 그리고 그이께 남은 여생을 의탁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와 함께 강인섭은 그이께서 여기를 떠나시면 이 벽촌이 더욱 적막해지고 자신도 더욱 외로움에 잠길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이 성실하고 꾸밈이 없는 로인과의 작별이 펍 어려워우리라는것을 예감하시며 그이께서는 강인섭의 두손을 잡고 놓지 못하시였다.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 동지들과의 작별, 그런 시각이 오면 언제나 그이께서는 마음이 산만해지시였다.

4

접을 먹은듯한 커다란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고집스레 오무리고있는 강수림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수림아, 할아버지한테 가서 무얼 보았지?》

수림은 옆에 서있는 아버지 강세옥의 얼굴을 흘끔 결눈질해보았다. 강세옥의 긴장했던 얼굴에 웃음이 들자 수림이는 용기를 냈다.

《평을 보았습니다.》

《평을 보았다... 그다음에는?》

《샘물도 보았습니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음, 샘물...》

《들국화도 보았습니다.》

《그래 들국화도 보았지. 모두 빠짐없이 기억해두었구나. 웅타.》

수림은 두볼에 보조개를 지으면서 귀엽게 웃어보이였다. 그러나 강세옥은 매우 긴장한 마음으로 최근에 자기가 저지른 행위. 용서 받을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하고있었다. 상급에서 외국

파견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였으나 강세옥은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진짜리유를 누구도 리해하지 못할것이고 또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한것이였다. 그래서 강세옥은 침묵을 지켰으며 해당하는 조치를 조용히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문제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번져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강세옥의 심정을 잘 리해하고 계시였다. 전혀 생소한 환경이고 갑작스러운 부름이라 강세옥이 매우 당황해한다는것을 느끼신 그이께서는 잠시동안 수림이와 이야기를 하시며 강세옥이 마음을 가라앉힐 여유를 주시였다.

《그래 수림아, 몇살이야?》

《일곱살입니다.》

《일곱살이면 고향땅도 기억하고 할아버지도 기억하겠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혼자소리처럼 생각에 잠겨 말씀하시였다. 《너희 고향은 참 아름다운고장이더구나. 아주 좋은곳이야. 그보다 할아버지가 훌륭한분입니다. 의리가 깊고 애국심이 강한분이지더구나.》 하고 그이께서는 강세옥을 바라보시였다. 《강세옥동무, 아버지를 따라 외국에 가서 몇년을 살았소?》

처음에 강세옥은 그이의 물으심을 귀담아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다만 고향에 그이께서 들리셨다는것을 알았고 갑작스러운 흥분속에서 자신을 온통 잊고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강세옥은 한결음 앞으로 나서며 감사의 말을 올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됐소. 됐소.》 하시고 손을 저으시였다.

《됐소, 그만하오. 세옥동무는 몇살때 조국을 떠났댔소?》

강세옥은 이때에도 고향을 다녀오신 그이의 로고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을 늙은 아버지와 그이를 모셨던 고향의 산천이며 오솔길이며 단풍이 물든 가을들판을 그려보고있었다.

《저는 1951년도에... 일곱살때 조국을 떠나선 1958년도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기억나오?》

《생각나지 않습니다. 추운 밤에 화물자동차를 타고가는데 적기가 떠서 조명탄을 떨어던 일이 기억됩니다....》

강세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앞에도, 그리고 이때 방안에 들어선 전애없이 따뜻한 표정을 하고 있는 리재수 대사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였다.

《참말 그때 우리 인민은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소. 그러자니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고 피도 많이 흘렸소. 전후복구건설도 전쟁보다 못지않은 고난의 나날이었소. 그때 외국에 나가있는 재외대표부 일군들도 고생을 하였소. 식량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해서 조국인민들에게 보낸걸 내 알고있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외국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문에 늘 피로와하고…》

《한피줄을 타고난 같은 민족이니까 피로와한거요.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귀중한거요…》

강세옥은 이때 지금 자기의 변민과 피로운 심정을 그이께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오직 그이께서만이 자기를 이해해주시고 자기의 절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리라고 굳게 믿었다. 강세옥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동정어린 눈길을 감추하며 결심한듯 얼굴을 들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는듯 강세옥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시었다. 그다음에는 사전에 아버지의 엄격한 훈시를 받은 듯 어른처럼 입을 무겁게 다물고있는 수림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품에 안으시었다.

잠시 도간을 두시었다가 그이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강세옥동무, 여기 옆에 대사동무도 있지만 동무가 외국과전을 고려해달라고 제기한걸 알고있었소. 그 말을 듣고 생각되는바가 있어서 현지에 나갔던 차에 동무의 고향에도 들리고 아버지도 만났소…》 강세옥은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거기에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얼굴을 드요…

사람에게 진실로 필요한것은 재부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고 또한 명예도 아니요. 정말로 필요한것은 조국이지… 그것을 깨닫기란 쉬운일이 아닌거요. 어떤 사람들은 한생을 다 살고 눈을 감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있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세옥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다정히 앞으로 끄당기시었다.

《동무는 젊은 나이에 벌써 그 진리를 체득하였소. 많은 생을 외국에서 보낸 아버지의 영향과 또 동무 자신이 유년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면서 조국의 그리움을 체험했기때문에, 그리고 동무도 아버지처럼 앞으로 조국인민과 고난을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이 후회될것 같아서 그런 제기를 했을거요. 그리고 일곱살짜리 어린 수림이를 데리고

가는것도… 다 마음에 걸렸을거요. 그래서 그런 제기를 했겠지… 강세옥동무, 나는 동무의 그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오. 감사하오.》

백발의 강인섭로인이 발목을 절룩거리며 들국화를 거두던 역구내와 눈물이 피었던 얼굴모습이 이 순간 그이의 안광에 문득 떠올라 찢릿한 회상을 불러일으켰다. 아들은 강인섭로인의 그 일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사실을 아들과 손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다가 그만두시었다. 그걸 몰라도 강세옥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있을것이였다.

《우리 당은 바로 강세옥동무와 같은 당원을 선발하여 외국에 파견할것을 바라고있소. 동무는 조국을 그리워하는만큼 조국을 위해 성실하게 복무하리라 하고 나는 믿소.》 하고 그이께서는 다시한번 강세옥의 어깨를 쓸어주시었다.

자신보다도 자기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마음속으로부터 심심히 감사를 드리며 강세옥은 거룩하고 인자하신 그이를 우러렸다. 강세옥은 그이의 말씀을 듣고 방금전의 자기보다도 한층 장성한 자신을 발견하였다.

《어머니결을 떠날 때 사람들은 섭섭해하지. 나는 조국을 떠날 때 기뻐하는 사람보다 피로와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오.》

강세옥에게 아니라 주위세계에 말씀하시는듯 창문쪽으로 향하신 그이의 안광에 정숙하고 무엇인가 바라시는듯한 각별히 절절한 념원의 빛이 어리시었다.

이튿날아침 강세옥은 아들 수림을 안고 방금 기수를 쳐들며 서슴없이, 갑작스레 리룩한 비행기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알뜰하게 다듬고 가꾼 바둑무늬의 논배미들과 아침해빛에 류달리 푸른 광채를 내고있는 가느다란 강줄기며 방금 미역을 감은듯 산뜻하고 정갈한 숲과 그우로 유유히 감도는 평화로운 새무리들이며 하늘중천에 걸린 흰구름송이들… 대지의 그 모든것이 강세옥에게는 류다른 사랑과 애착을 불러일으켰다. 강세옥은 그 대지로부터 분명 더 멀어지고있었으나 여전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곁에 있는것 같았다. 그러고 점점 더 조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이의 거룩한 영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안겨왔다. 그제야 비로소 강세옥은 자기가 이 조국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영 생

김 영 근

X X 예술단수석지휘자 박경호는 음악무용종합공연종목의 악보들을 다시 익혀나가고있었다. 그 곡들을 박경호자신이 지휘한 공연회수만 해도 수백회가 넘지만 예술이란 하루라도 연습을 중단하면 상당한 수준을 보장할수 없고 더욱 세련시켜나갈수 없는것이어서 짬만 있으면 연습을 거듭하고 악보를 무르익혀나가는것이였다.

더구나 요 몇달동안 가그공연을 지휘해오다가 며칠후부터 다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하게 되는 사정으로써 경호는 마치 새 작품의 지휘를 담당한 때처럼 긴장되고 흥분되어 악보의 갈피갈피를 넘겨가며 악상을 무르익히고 각종 악기편성의 화음들을 음미해나가고있었다.

8월의 폭양이 대지를 내려쬐이고 화염같이 더운 바람이 방안에까지 미쳐오지만 창작세계에 심취된 모든 예술가가 그러하듯이 박경호도 오직 자기가 펼쳐나가는 예술세계에만 심취되어있었다.

그때 따르릉... 따르릉 전화종이 울려왔다.

경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귀에 익은 교환수처녀의 산골물소리와도 같이 맑은 음성이 들려왔다.

《지휘자 박경호동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 받아주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으십니다.》

《네!》

경호는 옷깃을 여미고 바른자세를 가지며 수화기를 두손으로 받들어잡았다.

《경호동무니까?》

이윽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다정하고도 정찬 음성이 울려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지휘자 박경호 전화받습니다.》

《지금 무얼하고있습니까?》

《음악무용종합공연의 곡들을 다시 익히고있습시다!》

《그렇지...몇달동안 놓았다가 다시 공연하게 되니까...》

혼자말씀처럼 이어나가기던 그이의 음성은 서서히 가라앉았는데 왜서인지 그 음색에는 서글픈 애조가 비껴있는것 같았다.

(무슨 일일까?)

경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신 의도와 음성에 비껴있는 애조의 원인을 가늠해보려고 생각을 더듬는데 다시 그이의 음성이 울려왔다.

《경호동무, 내가 전화를 건것은 서재영동무의 가

족들이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알고싶어서입니다.》

《네? 서재영동무의 가족말입니까?》

경호는 그이의 음성에 비껴있는 애조의 원인이 그제야 픽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져서 엄겹결에 되물음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서재영동무는 경호동무와 제일 가까웠던 사이였으니 그의 가족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있는지도 경호동무가 잘 알고있을것 같아서말입니다.》

이미 4년전에 세상을 떠난 지휘자 서재영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 또다시 물으시는 그이의 거듭되는 관심에 경호는 눈시울이 확 달아올라서 깊이 생각할새도 없이 서둘러 대답올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가족들에 대해선 마음놓으십시오. 서재영동무의 부인 강미순동무는 건강한 몸으로 가무단에서 바이올린연주활동을 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서상철은 음악무용대학 지휘과에서 공부하여 머지 않아 졸업하게...》

《그건 다 알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보다 새로운 내용을 듣고싶으신듯 경호의 다음말을 기다리시였다.

그때야 경호는 자기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알고계시는 내용보다 더 새로운것은 아무것도 말씀드릴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실로 서재영이 사망한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시로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물으시고 돌봐주신 분은 오직 그이시였다.

그러니 그이께서 경호에게 전화를 거시여 서재영의 가족들에 대해서 알고싶어하시시는것은 지금 경호가 대답올린 그런 정도의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내용일것이였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경호는 그만 당황해지고 말았다. 자신이 서재영의 안해와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새것을 말씀드릴것이 없기때문이였다.

그는 서재영이 세상을 떠난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너무도 빨리 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것만 같은 모진 자책으로 하여 손바닥에 솟아오르는 땀발울 느끼며 수화기를 꼭 쥐고 서있기만하였다.

《경호동무, 왜 말이 없습니까?》

전류만 흐르던 수화기에서 그이의 음성이 다시 울려나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그 집에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호는 찾아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올리고는 뺨을 어이는듯이 아파나는 뉘우침으로 하여 입술을 감쌀며 눈을 꼭 감았다.

《어제나 오늘사이 그의 집에 가보지 않았습니

까?)

그이께서는 의혹과 놀라움이 깃든 음성으로 다시 물으시었다.

《못갔었습니다.》

경호는 간신히 대답올렸다.

《저참 안됐습니다. 오늘저녁에라도 경호동무가 가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서재영동무가 사망한 날이 이닙니까.》

(아 !)

경호는 그만 눈곱이 확 달아오르며 목멘 소리만 저절로 흘러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그날조차 잊고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꼭 찾아가봐야겠습니다. 미순동무와 상철이가 슬픔에 잠겨있지나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리고 예술창조사업으로써 서재영동무가 하던 일을 해나가도록 힘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늘중으로 꼭 가겠습니다.》

《꼭 가보시오. 그리고 래일아침 나에게 와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

경호는 한동안이나 서있다가 수화기를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앉았으나 이미 떠나간지 4년이 넘는 한 지휘자의 사망일을 잊지 않고 슬픔에 잠겨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이 그이께서 서재영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력사와 결부되어 뚜렷한 화폭으로 떠오르면서 도무지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동부지구 한 예술단의 지휘자였던 서재영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배려로 수도의 X X 예술단에 올라온것은 10여년전이었다.

그때 서재영과 박경호는 상봉의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막 부둥켜안았었다. 이미 대학시절에 두 학년 차이로 같은 지휘과에서 공부한 사이였고 얼마전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 예술단을 특색있는 예술단체로 발전시키자면 재능있는 지휘자를 몇사람 더 키워야겠다고 구상하실 때 경호가 복안을 제기한 명단에 서재영도 포함시켰던만큼 두사람의 상봉은 희망과 소원이 다같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 배우고 배워주며 예술창조사업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였다. 특히 서재영의 탐구와 노력은 경호로서도 놀랄만한것이였다.

얼마후 서재영은 첫공연을 지휘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앙예술단에서 처음으로 지휘를 하게 되는 서재영에게 기념으로 출연복일식을 선물로 보내주시었다.

서재영은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지휘자의 첫 인사를 올리고 숙구쳐오르는 감격과 흥분을 지휘봉에 담아 공연을 이끌어나갔다.

공연을 다 보신 그이께서는 서재영과 박경호를 소휴계실로 부르시었다.

그이께서는 깊숙이 절을 올리는 서재영의 손을 잡아 옆자리에 앉혀주시며

《수고했습니다. 지방예술단체에서 들끓는 현실 속에 들어가 생활체험과 예술창조사업을 결부시켜온 재영동무의 지휘에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기백이 넘쳐납니다. 그 기백, 그 체험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지휘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겠습니다.》 하고 격려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꼭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재영은 격동의 눈물을 금치 못하며 말쑹올리었다.

재영은 그날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탐구와 노력의 밤낮을 이어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거듭 예술단사업에 관심을 돌려주시었고 서재영을 합창, 중창, 무용곡, 기악곡, 모든 음악형식의 다종다양한 지휘에 세워주시였으며 장점을 조장시켜주시고 부족점을 일깨워주시었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몇해사이에 서재영의 지휘능력과 기교는 놀랄만큼 뛰어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예술단의 외국방문을 앞둔 어느날 음악무용종합공연의 총연습을 지도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1부와 2부로 나뉘여서 공연하게 될 종목을 처음부터 마감까지 서재영이 한번 지휘하게 하고 그다음엔 박경호가 또한번 지휘하게, 세번째엔 1부를 서재영이 2부를 박경호가 지휘하게 하시었다.

그이의 지도하에 연습회수가 거듭됨에 따라 모든 종목의 예술적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져갔는데 특히 세번째 연습에서는 지휘자들로서도 놀랄 정도로 전반적인 안삼불에서 최상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연습이 끝난후 그이께서는 서재영과 박경호만 좀더 만나자고 하시며 소휴계실로 따로 불러주시었다.

이미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한두번이 아닌 그들이였지만 매번 예술창조사업에서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할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안겨주시었던것을 체험해온 그들은 이 순간에도 격동과 흥분을 안고 소휴계실로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서재영과 박경호를 원탁 맞은켠에 앉으라 하시더니

《어떻습니까? 오늘의 연습을 하고나서 지휘자 동무들이 느끼는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서재영에게 시선을 보내시었다.

《오늘의 연습을 통하여 모든 종목의 형상수준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전반적인 안삼불에서 대조, 굴곡, 립체감이 최상의 수준에 올랐습니다.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지휘한 마감연습때 더욱 그것을 느꼈습니다.》

서재영이 경호의 심정과 똑같은 대답을 올리었다.

《그렇습니까? 경호동무의 느낌은 어떠했습니

까?》

《저도 그것을 뚜렷이 느꼈습니다.》

《두 지휘자들까지 다 그렇게 느꼈다면 좋습니 다. 나보 바로 그것을 말하자는것입니다. 동무들은 오늘 지휘를 참 잘했습니다. 더구나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지휘한 세번째 연습에서는 동무들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개성으로 해서 공연의 1부와 2부의 대조를 주면서 잘 조화시켰습니다. 혼자서 모두를 지휘할 때는 전반과 후반의 대조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평평성을 느꼈는데 훌륭한 재능과 독창적인 개성을 가진 두 동무가 나누어 지휘하니까 대조가 이루어지고 굴곡이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재능있는 예술가들일수록 높은 수준의 다른 예술가와 대조될 때 모두가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서로 재능을 더 발휘시켜주고 개성적인 색깔을 보태주는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였구나!)

경호와 재영은 그이의 명철한 말씀을 사무친 감동으로 받아들이며 자기들 두사람의 존재가 차지하는 친밀감과 사명감을 절절히 느끼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경호동무와 재영동무는 마치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면서도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귀중히 여기면서 열렬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하게 실아가는 부부वाद도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훌륭한 재능과 뚜렷한 개성으로 하여 서로 보탬을 주고 대조를 주면서 이 예술단의 잠재력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만족해하시며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었다.

누구나 그이와 마주앉아 그 웃음을 대하기만하면 한꺼번에 심취되어버리는 그 부드러운 웃음을 접하는 순간 경호와 서재영은 눈곱이 확 달아오르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다시 앉도록 손짓하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연습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한 힘든 지휘였는데도 잘했습니다. 다른 예술인들은 자기 순위에만 나오지만 동무들은 합창, 중창, 무용곡 모두를 처음부터 마감까지 지휘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이의 거듭되는 치하와 격려에 더는 앉아있을수 없어서 서재영이 일어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힘들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올리었다.

《아닙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휘란 정신과 육체의 최고강도를 요하는 일인데 오늘은 무려 여섯시간이나 계속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휘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 로동의 강도에 대하여 너무도 깊이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밑썹앞에 목이 확 뜨거워오른 서재영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는 전혀 힘든줄 모르

고있습니다.》 하고 젖어드는 음성으로 다시 말씀 올리었다.

《물론 본인들이 그 힘든 강도를 다 느낀다면야 무슨 예술가이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로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힘든것으로 느끼지 않는 거기에 진짜예술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에게서만이 예술가의 심혼이다 쏟아부어진 참된 예술이 나오는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서재영에게 앉으라고 다시 손짓하시고는 두 지휘자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정찬 시선으로 한동안이나 마주보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진정한 예술가란 언제나 자기의 정신적 및 육체적 힘의 소비를 가늠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예술창조사업에만 열중하기때문에 왕왕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몸 약한 동무들이 지휘를 하는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특히 서재영동무가 더한데 좋은 보약을 써서 몸도 보기 좋을만큼 내고 건강해져야했습니다.

그래야 동무의 지휘를 보는 나의 마음도 좋을게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시었다.

그 다음날 정말로 그이께서는 서재영에게 50년 묵은 산삼과 록용 한통을 보내주시었다.

그러나 서재영은 그 사랑의 보약을 쓸수 없었다. 몸에 이렇다할 병이 있는것도 아닌 이상 어찌 그 사랑의 보약을 먹어없앨수 있으랴!

서재영은 가보로 대를 두고 길이길이 전하고싶어서 그 보약들을 귀중히 보관해두었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서재영의 강마른 몸을 안타까이 여기신 그이께서는 먼처번에 보내준 보약이 몸에 맞지 않으면 다른 보약을 써보라고 하시었다. 그때 서재영은 너무 당황하여 보약을 쓰지 않고있다고 사실대로 말씀올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못내 서운해하시며 나무라시었다.

《재영동무, 언제나 강마른 몸으로 지휘대에 서있는 동무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보내준 보약인데 약은 보관해두고 몸은 언제나 그 모양으로 내앞에 서있는것이 나를 생각하는것입니까?》

서재영은 그이께서 그처럼 노하시는데를 처음 보았다. 그만큼 그 크나큰 사랑에 목이 메여 당장 보약을 쓰겠다고 대답올렸다.

그리하여 보약을 썼다. 사랑의 보약은 갓난 어린애에게 주입된 어머니의 품만한 젖줄기와도 같이 효력이 컸다.

서재영은 몇달이 지나지 않아 몸도 보기 좋게 나고 혈색이 불긔해져서 더욱 왕성해진 열정과 기백으로 예술창조사업을 해나갔다.

그 모습을 보신 그이께서는

《이제야 내가 마음놓고 재영동무의 지휘를 보겠습니다. 몸도 보기 좋게 나고 지휘에서도 더 열정과 힘이 느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그 부드러운 웃음을 만면에 지으시었다.

그렇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속에서 예술적재능도 꽃피고 육체적건강도 받아안았던 서재영은 무더운 8월의 중복무렵 지방순회 공연에 나갔다가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은 예술단의 큰 손실이었다.

그의 지휘를 받던 모든 예술인들이 울었고 경호는 짝을 잃은 원앙새와 같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었다. 서재영이 없음으로 하여 경호의 재능이나 개성도 무색해지는것만 같고 그만큼 가슴이 더 아팠다.

서재영의 안해 강미순과 아들 서상철의 슬픔은 말할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제일 슬퍼하시고 안타까와 하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우리 당의 품에서 자라나 한창 일해볼만한 때 떠나갔단말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집무실창가에 오래도록 서시여 슬픔을 이기려고 애쓰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금이라도 슬픔을 덜어보려고 서재영의 부고를 신문에 내주도록 해주고 제상도 크게 차려 내려보내주시였다.

재영의 아들 서상철을 아버지가 서있던 자리를 메꾸도록 키우라고 하며 음악무용대학 지휘과에 입학시켜주시였다.

그러시기도 예술단에 몸소 나오시여 슬픔에 지지 말고 더 힘을 내여 예술창조사업을 해나감으로써 서재영의 자리도 메꾸고 우리 예술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예술인들을 고무하시였다.

세월은 흘렀다. 그와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서재영의 모습도 희미해져갔다.

서재영이 없음으로 하여 자신의 재능도 개성도 빛을 잃은듯 외롭고 슬펐던 경호의 가슴에서도 서재영의 존재는 서서히 멀어져갔다. 자주 그러한 추억으로 회상되기는 했지만 떠오르는 회상과 모습은 점점 멀지고 희미해져갔다.

그가 사망한지 1년이 되는날에는 경호가 먼저 꽃다발을 마련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묘지에 다녀왔고 두번째 되는 해에는 당조직의 신호를 받고서야 다녀왔으며 세번째해에는 가족들이 먼저 알려와서야 가정방문을 하였다.

네번째 되는 오늘은 가족들도 직장이나 친구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알려오지 않았으므로 경호조차 서재영의 사망일을 잊고있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까지도 그이께서만 잊지 않으시고 이렇듯 문의해오시지 않았는가.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예술인들속에서 한 지휘자의 존재가 무엇이길래 세상떠난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처럼 가슴아파하시며 애조 비낀 음

성으로 물어오시는것인가!...

X

경호는 가슴에 찢어드는 걱정을 금치 못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미 퇴근시간이 되였다.

그는 서둘러 방을 정돈해놓고 서재영의 가족들이 살고있는 집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였다.

대동강가의 고층아파트 7층 3호의 문앞에 이른 경호는 잠시 서서 머뭇거리며 집안동정에 귀를 기울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넘려하시던바처럼 강미순이나 서상철이 슬픔에 잠겨있지나 않는가해서였다.

시원한 강바람을 불려들이려고 만나마 열어놓은 출입문안에서는 방금 저녁상을 물린듯한 강미순과 서상철의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래 인차 졸업공연을 한다던 ?》

아들에게 묻는 미순의 목소리였다.

《하루이틀안으로 졸업공연을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밤에도 개별연습을 계속해야겠어요.》

어머니에게 하는 상철이의 대답이다.

《그렇게 해라. 연습을 많이 하고 기량을 높여서 졸업공연지휘를 잘해야 한다.》

하고 강미순이 힘주어 말한다.

아! 이들은 슬픔에 잠겨있는것이 아니다.

경호는 안도의 숨을 후- 내쉬고 문기척소리를 내며 집안으로 들어섰다.

《아이 경호동지가...》

40대의 중년부인 미순이와 20대의 청년 상철이가 경호를 반겨맞아들인다.

《저, 사실은 어제 왔어야 하는건데 이 엉터리친구가 그만 재영동무의 사망일조차 잊고있다가 이렇게 늦게야 왔습니다.》

경호는 스스로 자책에 잠겨 힘없이 말을 꺼냈다.

《원 별말씀을... 작년에 벌써 3년상이 지났는데 매번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두 알리지 않았구 어제저녁에 상철이가 꽃다발을 준비해다가 아버지사진앞에 놓고 묵도를 하는것으로써 오늘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살결이 희고 등그스름한 얼굴에 언제나 유순한 성품이 그대로 내비친 강미순은 경호를 대하게 됨으로 해서 슬퍼지려는 마음을 애써 감추는듯싶었다. 그래서 경호는 서둘러 이야기를 다른데로 돌리었다.

《혹시 생활에서 애로되는점은 없습니까?》

《원 별말씀을... 아무 애로도 없습니다. 그저 걱정되는것은 내나 상철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신대로 돌아가신이의 몫을 감당해내지 못하고있는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부터두 이번 졸업공연에서 주로 아버지가 지휘하던 노래들을 지휘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수준에는 어방도 없습니다.》

상철이 역시 자책에 잠겨 대답한다.

그렇다! 이들은 이미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

을 세월의 흐름속에 많이 물어보내고 지금은 앞날에 대한 포부와 리상에 대한 생각으로 살고있지않는가!

경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음놓으실 소식을 그이께 보고드릴수 있게 된것이 여간 다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그 누구도 이미 4년이 지난 이날을 슬픔의 날로 기억하고있지 않는데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슬픔에 잠겨 서재영을 회상하신다고 생각하니 다시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저, 상철이 어머니.》

이윽고 경호는 다시 자책에 젖은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

미순이와 상철이가 경호를 의아히 쳐다보았다.

《저, 사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재영동무의 유가족들이 오늘 슬픔에 잠겨있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저보고 가보라고 하시였습니다.》

《네?》

순간 강미순과 서상철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가족들에 대하여 념려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에 목이 꼭 메여올라 그만 눈물을 떨구고야 말았다.

《그런데 슬픔이 아니라 희망과 포부를 안고 충성의 일념으로 살고있다는 보고를 올릴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래일아침 빨리 알씀올리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음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해주시시오. 우리는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고 살아갈 걱정도 없습니다. 상철이 아버지와 우리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것처럼 크나큰 사랑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상철이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만 생각하고있습니다.》

미순이 사랑의 은정에 목이 메여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 이튿날아침.

서재영의 가족을 방문하였던 박경호의 보고를 상세히 들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집무실창가에 다가서시였다.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여 창밖을 오래동안 굽어보다가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으시더니

《강미순동무와 상철이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억세계 생활해나간다니 그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좁습니다. 그러나 서재영동무가 서있던 지휘대는 여전히 비여있는것 같고 방금 어데선가 재영동무가 나타날것만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 어제와 오늘은 손에 일이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하며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이의 흐려진 안색을 바라보는 경호의 가슴에서는 또다시 격동의 파도가 일어나며 목이 메여 올랐다.

수천수만의 예술인들속에서 한 지휘자를 잃은 상

실감이 얼마나 크고 가슴아프시였으면 이미 여러해가 지나 그의 안해와 아들조차 슬픔의 고개를 넘어 레사로온 날로 지내보내는 그날에 그이께서만은 슬픔에 잠겨 그리워하며 안타까와하며 일손마저 잡혀지지 않아 심뇌하시는데것인가!

경호는 이 순간 그이께 위로가 될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더듬어보았다.

그때 40대의 중년서기가 방에 들어섰다.

서기는 그이의 흐려진 안색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올리는것이였다.

《록화방영준비가 다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갑시다. 겸호동무도 같이 갑시다. 서재영동무의 모습이 보구싶어서 그가 생시에 지휘하던 모습이라도 록화화면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

경호는 심장이 격동되다못해 순간적으로 눈물이 불쑥 솟아올라서 어떻게 록화방영실까지 이르렀는지 알수 없었다.

그이께서 손잡아이끌어주시는대로 경호가 자리에 앉자마자 벌써 록화방영이 시작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총연습을 지도해주신 후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귀환공연을 한 바로 그 음악무용종합공연장에서 서재영이 지휘한 전반 부문이였다.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부터 시작되여 혼성중창 **《산으로 바다로 가자》**에 이르기까지의 지휘과정이 화면에 방영되고있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 서재영이 사망되기 2년전의 그의 지휘모습이였다.

후리후리한 키, 그이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보약을 쓴후 보기 좋게 건강해진 힘있고 혈기넘치는 모습, 온몸의 모든 움직임으로부터 표정, 눈빛, 수천수만오리의 머리카락에서까지 음악의 빛발이 뿜어져나오는것만 같은 서재영의 지휘모습에 심취되여 들어가노라면 아닌게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난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것처럼 힘있게 지휘를 하고 있는것만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 감정을 다문 일마라도 체험하려고 이런 시간을 따로 내신것이였다.

경호는 뛰어난 재능과 불타는 열정으로 음악형상을 하나의 완결된 세계에로 이끌어나가는 서재영의 지휘모습을 화면에서나마 다시 보게 되는데서 오는 감격과 슬픔을 어쩔수 없었지만 재영의 모습을 보고싶으시여 이런 조직까지 하신 그이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서재영이 지휘하는 모습은 한시간동안 방영되고 끝났다.

록화방영실은 물뿌린듯 조용했다.

그이께서는 한참동안이나 그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앉아계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시여 집무실로 향하시였다.

경호도 따라섰다.

그이께서는 집무책상에 팔굽을 짚고 앉으시며 경호에게 물으시었다.

《서재영동무의 모습을 록화화면으로나마 보고나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잃었던 전우를 다시 만날 때처럼 기뻐합니다. 그런데 록화방영이 다 끝나고 보니 어쩐지 더 그리워집니다.》

경호는 느낌 그대로 말씀올리었다.

《동무도 그렇습니까? 나 역시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 보고싶고 그리울 때면 이렇게 또 보고합니다. 오늘도 보고나니 더 가슴아프고 그리워집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아픈 가슴을 가라앉히시려고 입술에 힘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너무 심뇌하지 마십시오. 이젠 세월두 흘렀구 서재영동무의 아들도 머지 않아 전문예술단체의 지휘자로 나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호는 한껏 생각한 위로의 말을 이렇게 올리었다.

《나도 서재영동무의 아들이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아픈 가슴이 좀 풀릴가해서 이런 졸업공연지휘에 그를 꼭 내세우라고 하였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며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더니 편걸시켜야 할 전화번호를 말씀하시었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서상철의 졸업공연지휘를 보시기로 예정하고계시었구나!) 경호는 연이어 파도쳐오르는 걱정예 거둬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그이께서는 수화기를 드시고 상대방에게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그러니까 졸업공연을 래일 할수 있단말입니까?》

《네.》

문화예술부나 음악무용대학의 어느 책임일꾼이라고 짐작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공연에서 상철이도 지휘를 합니까?》

《네.》

《그가 지휘하는 곡중에 서재영동무가 지휘하던 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무용곡 〈노들강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수화기를 놓으시고 박경호를 마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경호동무, 래일저녁 나와 같이 음악무용대학 학생들의 졸업공연을 나가봅시다. 상철이가 아버지가 지휘하던 여러곡을 지휘한다니 꼭 나가서 봅시다. 재영동무의 안해 강미순동무도 함께 보도록 말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경호는 목이 꼭 메여 더 잇지 못하고밀었다.

X

뜻밖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공연하게 된 음악무용대학 졸업공연장소는 환희에 넘쳐있었다.

그이를 환호하는 관중들의 만세소리가 오래도록 계속되다가 서서히 잦아들고 그이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장내는 일순간에 기침소리 하나없이 조용해지는데 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앉으신 바로 뒤줄에 강미순과 함께 나란히 앉은 경호의 신경은 오늘 저녁 공연에서 서상철의 지휘를 그이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는데 쏠려여있었다. 그것은 미순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그들 두사람은 서상철이 지휘하게 될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예상하는데 사색이 집중되어있었다.

이윽고 면막에 비친 한줄기 조명을 따라 소개자가 등장하여 영광스러운 이날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처음으로 합창,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지휘에 서상철.》 하고 정중히 인사한 다음 면막뒤로 사라졌을 때 그이께서는 자세를 고쳐앉으시는 것이었다.

박경호와 강미순은 숨을 죽이고 그이의 시선이 향해진 지휘대만 지켜보았다.

드디어 지휘대에 서상철이 올라섰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흰칠한 키, 까만 모직양복에 눈같이 흰 와이샤츠를 받쳐입고 진곤색바탕에 빨간무늬가 박힌 넥타이를 맨 그가 기쁜 얼굴에 빛나는 눈길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보며 눈물이 피잉 고여오더니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드리었다.

그의 인사에서는 자기를 몸소 대학지휘대에 넣어 키워주고 바로 자기의 졸업공연지휘를 보아주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불려서 함께 이 공연장소에 나와주신 그이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정이 력력히 넘치고있었다.

인사를 끝마친 상점은 눈물고인 눈으로 한참이나 그이를 우러러보다가 합창단성원들과 기악연주가들쪽으로 조용히 돌아서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가 지휘봉을 획 그어올렸다.

그 순간의 동작이 어찌도 서재영의 첫동작과 흡사한지 경호는 저절로 탄성이 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바로 그점을 포착하신듯 강미순쪽으로 시선을 돌리시고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보이시었다. 그이의 그 모습은 틀림없이 서상철의 그 동작이 신통히 서재영과 비슷하다는 무언의 말씀이시었다.

그이의 그 시선 그 미소에 접하자 강미순은 더는 눈물을 참을수 없어서 흑-하고 흐느낌이 나가고말았다.

그러자 그이께서 강미순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시

며

《지금은 공연의 정숙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고 조용히 일깨워주시었다.

그이의 그 말씀속에는 그이자기에서도 이 시각에 하고싶으신 말씀이 많지만 공연의 정숙을 위해서 참는다는 뜻이 력력히 스며있었다.

미순이도 경호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어내며 그이의 뒤모습과 지휘자 서상철의 모습을 번갈아 주시해나갔다. 상철은 합창의 뒤를 이어 남성중창 《빨찌산의 노래》, 《결전의 길로》, 무용곡 《노들강변》 등 서재영이 자주 지휘하던 곡들을 지휘했는데 모든 곡들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방불케하는 특기동작들이 한두군데씩 나타났다. 그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경호와 미순을 돌아보며 자못 만족한 미소를 보내는것으로써 신통하다는 뜻을 표시하곤하시었다.

1부가 끝나고 중간휴식시간이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화예술부문책임일군들과 박경호, 강미순을 손짓으로 부르시며 휴계실로 나가시었다.

《미순동무, 여기에 와 앉으시오.》

그이께서는 맨 마감으로 휴계실에 들어선 미순을 기다리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까이 부르시었다.

경호가 미순을 앞세우고 그이앞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이께서는 눈물에 붉어진 미순의 얼굴을 한동안 지켜보시다가 말씀을 시작하시었다.

《미순동무, 상철이가 이젠 키도 몸도 재영동무의 청년시절만 하지 않습니까?》

《네.》

미순이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올리었다.

《상철이가 오늘저녁에 입고나온 검은색 모직옷과 넥타이는 재영동무가 평양에 올라와서 첫공연을 지휘할 때 입었던것이 아닙니까?》

《네! ... 그렇습니다!》

미순은 이 사실을 그대로 대답하였으나 그이께서 그 옷과 넥타이까지 어떻게 아실수 있었는지 너무도 놀라와서 멍그레진 눈으로 그이를 바라보다가 마저 말씀올리었다.

《상철이 아버지가 평양에 올라와서 첫 공연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 옷을 입고 지휘한후 대를 두고 길이 전하자고 보관해두었었는데 오늘 상철에게 입혀서 졸업공연지휘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내 짐작이 맞았습니다. 옷과 넥타이까지 아버지의것을 매고 아버지가 지휘하던 노래들을 지휘하니 서재영동무와 신통히 같은데가 많습니다. 키도, 몸도, 지휘동작도... 미순동무가 상철이를 키우느라고 수고 많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미순은 소리내어 울고말았다.

《미순동무, 울지 마시오. 이젠 상철이가 그렇게 자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고있는데 울어서야 되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슬퍼서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나서 미순은 더욱 흐느껴울었다.

《미순동무, 나는 오늘저녁 상철의 지휘모습을 보니 재영동무를 그대로 본것 같아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상철이를 아버지 못지않은 지휘자로 키웁시다. 상철의 지휘가 아직은 여러면에서 재영동무만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잘 이 끌어주면 얼마든지 아버지수준을 넘어설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면에서 재영동무와 비슷한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는 경호에게 시선을 보내며 물으시었다.

《그렇습니다. 몸가짐, 동작,기백까지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경호가 뜨거운 공감을 가지고 대답올리었다.

《재영동무의 재능과 기교는 누구보다도 경호동무가 잘 알고있으니 앞으로 상철이를 개별담당한다는 립장에서 방조해주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태까지 제가 웅당히 해야 할 일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힘이 당하는것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철이를 잘 키웁시다. 상철이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지휘자로 키워주면 그것이 재영동무에 대한 우리의 도리로도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경호동무, 내가 서재영동무의 지휘모습을 촬영한 록화필름을 내보내주겠으니 그것도 상철이한테 자주 보이면서 아버지의 특기를 상철이가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리용하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필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주 보시는건데 내보내시면 안됩니다.》

경호가 말씀올리었다.

《일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영동무의 지휘모습을 보고싶을 때 상철의 지휘모습을 나와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강미순은 더 흐느껴울고 경호도 눈덕을 넘어흐르는 눈물을 막을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시 미순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씀하시었다.

《미순동무, 울지 마시오. 서재영동무는 아주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재능, 그의 녀, 당에 대한 그의 충실성은 상철이를 통하여 계속 꽃피납니다. 상철이는 꼭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지휘자로 될것입니다. 재영동무의 재능과 충실성이 대를 이어 꽃피듯이 우리의 주체예술도 더욱 발전되어나갈것입니다.》

미순동무, 이젠 눈물을 거두고 대학졸업생들의 공연을 마저 봅시다. 공연을 다 보고나서 상철이랑 졸업생들이랑 함께 앉아서 더 이야기합시다.》

하고 그이께서는 미순의 어깨를 밀어 앞세우시며 휴게실에서 나가시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나가는 경호의 눈앞은 그저 뿌듯하게 흐려오기만하였다.

(재영동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재영동무와 우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한걸음 두걸음 이끄시여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해주시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오늘은 또 상철이들을 키워주고 계시오. 재영동무! 동무는 죽지도 않았고 우리 대오에서 떠나지도 않았소. 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를 이어 안겨주시는 영생의 삶을 안고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우리 주체예술의 대오에 서있소. 우리의 모든 예술인들, 아니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이께서 안겨주신 영생의 삶으로 자기의 오늘도 래일도 빛내어나가고있소!)

경호는 혼자소리로 이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관중석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백두산 어머니산아

강 창 영

그대의 장검인양

푸른 번개로 구름을 가르고

그대의 입김인양

세찬 바람으로 안개를 휘몰아가더니

삼시에 파아란 하늘을 열며

승엄한 모습을 드러냈구나

오, 백두산

만년장설을 머리에 이고

그 어디를 바라보며

먼 눈길을 떼지 못하는것인가

오랜 세월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그 누구를 기다려

이 땅의 눈비를 다 맞는것인가

줄기줄기 산줄기 천만갈래

그대품에서 시작되었기에

이 땅 한끝에 떨어져있어도

해빛아래 보고싶어 찾고

저 멀리 어둠속에 잠겨있어도

별빛아래 그리워 찾나니

어머니품은 정다웁더라

푸른 하늘아래 빛을 뿜는

금강의 봉우리도

검은 구름아래 빛을 잃은

한나산메부리도

한품에 안아주는 마음

그마음

지척에 있는 아들보다

멀리 있는 아들을 더더욱 못잊어

안타까운 마음 달랠길 없어

천리수해를 흔들고

때로는 장수의 서리찬 기상으로

폭풍속의 먼 봉우리들을 부르며

그대는 노한 가슴속의 불을

온 누리에 우뢰로 내뿜나니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솟아

이 나라 력사의 갈피갈피에 깃든

천만 사연을 헤아려주고

천지의 푸른 젖줄기로

이 땅 그 어디나 생명수를 부어주는

오, 백두산 어머니산아

그대의 넋을 안고

그대의 기상을 닮아

이 땅 천봉만악은

세기의 려명을 가까이 보며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고있어라

백두산 백두산

그대 영원한 어머니품에 안겨

지름길에서

박창민

승용차는 가리마같이 끈게 뻗은 길을 따라 경쾌하게 달렸다.

수려한 산밭들이 차창으로 물결쳐왔다.

짐을 실은 자동차들과 승용차들이 분주히 오고갔다.

그 지름길이 다가올수록 나의 가슴은 흥분의 파도에 실려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아, 지름길, 잊을수 없는 길이어!)

한없는 그리움과 숭고함이 하나로 뒤엉켜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의 밀물이 가슴을 잠그었다.

승용차는 지름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기세좋게 달렸다.

금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호방하신 웃음소리와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냥 지날수 없는 지름길이었다.

《운전사동무, 차를 좀 세워주오!》

나는 저도 모르게 소리치다싶이 말하였다. 승용차가 급히 멎었다.

운전사는 묻는듯한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좀 쉬어갑시다. 이 갈림길을 그저 지날수 없어 그러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부지중 눈앞에는 못잇을 감격의 그날이 떠올랐다. 몇해전 어느 여름, 이곳에 주둔한 어느 한 구분대는 병실을 건설하고있었다.

세멘트며 모래, 나무를 실은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달렸다.

바로 그때 이 땅에 변혁과 창조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시며 위대한 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곳을 몸소 찾으시였다.

한일 의 농민모로 8월의 피약별을 막으시며 농장길을 걸으시기도 하시고 산기슭의 자그마한 목장을 찾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급한 일이 제기되어 평양으로 차머리를 돌리기도 하시고...

낮에 밤을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발동을 끄는 때가 없는것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구분대전투장을 찾으시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런데 실무지도를 마치시고 구분대를 떠나시려던 그이의 예지로 빛나는 눈길이 한곳에 이르러뗏으시였다.

(무엇때문에 그러실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알길이 없었다.

이윽도록 자동차들을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좋은 길을 두고 왜 저 길로 다닙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자애에 넘치시면서도 깊은 심리가 담기신 물으심이였다.

《...》

친부모의 다심한 은정이 철철 넘쳐흐르는 뜨거운 사랑에 병사들은 그만 눈뿌리가 화끈해졌다.

구분대장도 병사들도 뜨거움에 젖어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한 일군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 사연을 말씀드렸다.

좋은 길을 두고도 멀리 산기슭의 좁은 달구지길로 에돌아다니는 거기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어보시며 그이의 만수무강과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려는 병사들의 숭고한 의리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깃들어있었다.

전투장으로 끈게 뻗은 포장한 지름길로 오면 시간도 단축할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하였다.

하건만 병사들은 그 누구도 그 길로 차를 몰지 않았다.

그 누가 시킨 일도, 그 어느 지휘관이 조직한 일도 아니건만,

실무지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그이께 자그마한 지장도 끼쳐드려서는 안된다는 숭고한 충성의 마음이 그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흐르고있었던것이였다.

이슬내린 논머리에 오시여서는 실하게 자란 벼포기들의 이지수도 친히 세여보시며 농사일을 의논하시고 머루덩굴 무성한 산판에 오르시여서는 산에서 황금을 건어들일 휘황한 전망도 펼쳐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의 바퀴엔 언제나 감탕이 묻어있고 차창엔 늘 들길의 먼지가 올라있었다.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휴식을 모르시고 일하는 그이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를 때마다 병사들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곤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휴식은 언제 하시고 끼니는 언제 드십니까.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줄곧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부디 단 하루밤, 단 한나절이라도 편히 쉬시며 실무지도의 길에서 쌓이고 쌓이신 피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은 그이께서 달리는 승용차안에서나마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이께서 가시는 길에 비단필을 깔아드리는 심정으로 포장길을 알뜰히 거두었다.

먼동이 터오는 이른아침에 간절한 소원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쓸고 또 쓸며 충성의 마음을 수놓아가던 태성할머니처럼 아침저녁으로 이 길을 쓸고 또 쓸었다.

한점의 먼지라도 앓을세라 쓸고 또 쓸고 닦고 또 닦고, 길가엔 향기롭고 아름다운 갖가지 꽃들을 옮겨심고...

그 일군이 올리는 말씀을 다 듣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들의 기특한 마음을 헤아리시듯 한동안 끈게 뻗은 지름길을 바라보시었다. 한없이 부풀어오르는 충성의 서약을 가슴에 안고 서있는 병사들의 숭엄한 눈길이 그이를 따라 움직이였다.

그이께서는 잠시후 병사들을 둘러보시며 그렇다고 좋은 길을 내놓고 다른 길로 다닐 필요가 있는가고, 이제부터는 저 지름길로 다나라고 말씀하시였다. 친근함이 확 안겨오는 다정한 음성이시였다.

북받치는 감격을 안고 서있는 병사들의 가슴을 쫓하니 울리며 그이의 다정한 음성이 울려왔다.

《나와 함께 이 길로 갑시다.》

순간 병사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

감격에 목이 메어 그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병사들에게어서 발동을 걸고 같이 떠나자고 재촉하시였다.

격동으로 파동치는 심장의 고동소리인가 부르릉 부르릉... 자동차들이 떠났다.

곧추뻗은 지름길로 전사들이 앞서 달렸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가 따라갔다.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질세라 좋은 길을 가리켜주며 행복에 겨워 뒤따르는 다심한 어머니처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휘부성원들은 생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인민의 참다운 지도자이시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구상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있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다. 뚫어넘치는 흠모의 정과 그지없이 경건해지는 마음으로 운전사도 말없이 지름길을 바라보았다.

깊은 감회에 잠긴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로 달리는 마음을 달랠길이 없었다. 문득 그이를 모신 낮익은 승용차가 마주올것만 같았다. 자동차들이 달려오고 달려갔다.

저 운전사들은 이 길에 어떤 은정깊은 이야기가 깃들어있으며 자기들이 지금이던 사랑에 받들려 이 길로 달려가는가를 알고있을가

우리는 떠났다. 승용차는 거룩한 향도의 자욱 뜨겁게 어려있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내 어찌 지금 한갓 길고짧은 거리의 개념으로 불러우는 그런 지름길로 간다고만 생각하랴,

자신과 함께 이 길로 기차고 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리라 맹세다지던 바로 그 길, 충성의 그 길로 내 지금 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이 나라 방방곡곡 어느곳이나 천갈래만갈래로 뻗어간 크고작은 무수한 길들 그 길에 갈래는 많아도 당을 따라가는 마음속의 길은 하나의 지름길로 이어져 거창한 충성의 대오가 굽이쳐흐르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한길 곧은 길로 가고가리라 !

걸음걸음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을 아로새기며 오직 곧바로 가는 전사의 길-지름길 !

바로 그 길로 내 지금 가고있구나!

우리모두가 함께 가고있구나!

시조

그이는 나의 삶의 별

백 하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어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어
내 그 꿈을 잃는다면
한걸음도 옮기기 힘들우리
한순간도 살아가기 고통스러우리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어
눈을 뜨면 달리는 생각
길을 가도 뚫어쫓는 욕망

하나의 희망이 나를 사로잡네

아,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어
온나절 가슴울렁이며 모대기네
어제도 오늘도 이 마음 불태우네
한생을 바쳐 꽃피우는 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뻐드릴 꿈 !

1984. 10

그 리 움

별많은 새벽 들가에 나서니
낮선 산그림자 앞뒤로 막혀
서둘러 찾아보노라 은하수 달려간곳
그이 계시는 평양의 하늘가

어머니 젖품을 멀리 떨어진듯
하염없이 하늘가에서 눈길 떼지 못하는데
말없이 이 가슴 비쳐주는 불빛, 불빛...

내 조용히 골짜기를 굽어보니
은하수는 여기에 이어졌던가

아사라, 내 이 무슨 생각이라
친애하는 그이의 그리운 발자욱
은하수처럼 찍혀있는
우산장에 와있는데야 !

1984. 10

꿈속에서 그이를 보옴고

꿈은 베개맡에서
다 흩어지고 사라졌건만
이리도 생생히
눈앞에 남아있을가

꿈속에서 뵈은
친애하는 그이
따뜻이 저의 인사 받아주시며

조용히 일어나앉아
다시금 그려보아라
기쁘고 행복하던 그 순간이
하나라도 잃어질가봐 저어하며...

굳게 손을 쥐여주시던 그 행복
자애로우신 그 미소
함뼉 넘치던 그 영광...

아, 현대 내 그이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었던가?

분명, 그 말씀은
삼가 올리였건만
어찌나, 기나긴 세월
안겨주신 그 은정에
해와 달을 두고 쌓아두었던
뜨거운 감사의 인사는
내 왜 못드리었던가

너무도 아쉽고

꿈속에서나마 간절히
그 소원 아뢰었던가?

너무도 민망스러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줄 모르나니...

이 어찌 한낱 꿈이라고 하랴
내 우러러따르는 마음
아직도 가슴속에 뜨겁지 못해
이런 아쉬움을 남긴것이 아니라

1983. 1

시간은 나의것이 아니다

길가의 꽃향기에 취해
잠시 넋 잃고 섰다가도
문득 심장속에 울리는
엄숙한 깨우침을 듣는다
-시간은 너의것이 아니다!
나는 서둘러 길을 걷는다

흥심없는 이야기속에
깊이 빠져있다가도
문득 뇌리를 치는
준절한 목소리를 듣는다
-시간은 너의것이 아니다!
나는 서둘러 일손을 잡는다

시간이여, 귀중한 시간이여
내 너와 함께 반생을 걸어오며
너무도 무렵없이 대해온 탓이더냐
살뜰한 친구같이, 귀여운 동생같이
내 손 이끄는대로 따라온 시간이여

내 너를 나의 소유물로 여겨온동안
내 얼마나 너를
물쓰듯 흘려버렸더냐
값없이, 보람도 없이

세월이 갈수록 내 사무쳐깨닫노라
시간이여, 네가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강물같이 흐르는 네 흐름
그 한가닥에도
내 감히 손댈수 없음을

그앞에서는 오직 자각해야 하나니
거침없이 내닫는
엄숙한 혁명앞에 서있음을
위대한 당앞에 서있음을
그 순간 순간마다에 오직
친애하는 그이의 구상을 쫓아
시대의 의무 하나만이 놓여있음을

그렇다,
시간은 나의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서둘러 길을 걷는다
열흘길을 하루에!
십년세월을 한해에!
잃어버린 그 모든 시간을 되찾아
그 소중한 분과 초가 오직
친애하는 그이의 뜻으로 흐르게 하리라!

1983. 5

빛의 시작점

배민옥

이 땅이 생겨 수억년 따사로운 빛은 인류를 한 품에 안아키워주었고 따사로운 빛은 세상만물에 뜨거운 숨결을 부어주었다.

바로 그 빛을 따라 낮과 밤은 흐르고 또 그 빛을 따라 꽃은 피고 지거늘.

아! 빛이여, 너의 시작은 어디메냐, 끝은 정녕 어디메냐.

끝나지 못한 장편소설

소용차는 달리고있었다.

우리의 귀가에는 갑오년 농민봉기군들이 부르던 《출진가》대합창이 끝없이 들려온다.

어화 농부들아

모두 떨쳐나오거라

척왜척양 보국안민

우리들이 할일이라

우리가 아니하면

어느 누가 하여주리

안팎의 원썬들을

모조리 쳐엎애고

나라를 바로잡아

좋은 세상 살아보세

그 노래소리에 전주성이 그대로 떠나갈듯...

우리는 상념에 잠겨 저마음 눈들을 감았다.

《오! 눈이 내리누만, 올해의 첫눈이.》

누구의 말인지 우리의 상념을 여지없이 휘저어 놓았다. 우리의 생각은 90년이란 세월을 거슬러 올라 오을 이 시각으로 고스란히 헤어나왔다.

흐릿해진 차창밖에 춤추듯 날아내리는 흰눈송이는 차창문을 가웃이 들여다보고는 스르르 녹아 내린다. 순간 우리의 머리에는 그 어느 책에서 본듯한 옛시 한구절이 되살아났다.

《소슬한 찬바람 지금도 예와 다름없건만 인간 세상만은 바뀌었구나.》

실로 그러하였다. 귀전에 울리는 저 자갈굴리는 소리는 분명 군마의 발굽소리가 아니라 승용차의 고무바퀴가 수리중에 있는 돌다리를 넘어서는 소리이고 저 길옆의 발머리에서 웃고 떠들다가 차를 향해 손짓는 저 처녀들은 리조말년에 가난에 쪼들리던 농촌녀성들이 아니라 방금 갈아엎은 논배미들을 바라보며 래년농사작황을 예견해보는 녀성뜨락뜨락전수들이 아닌가!

우리가 사색에 잠겨있는동안 승용차는 어느덧 시내를 아득히 벗어나 우증충한 발전소굴뚝도 멀리 뒤에 남긴채 활짝 열린 고속도로도로로 거침없이 질주하고있었다.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는 산기슭의 뉘엿한 등성이마다에 철이 다 지난 누런 잎들을 아직도 가득 안고 우수수 설레이는 가둑나무들, 가을을 하고난 네모뽕뽕뽕한 논둑들에 드문히 서서 한산한 초겨울 바람에 요동치는 누런 갈대들,

《에이, 여름에 왔으면 좋았을걸...》

정말 초겨울이란 려행하기 썩 리상적이 못되는 계절이었다. 추위도 추위려니와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정경은 얼마나 을씨년스러운가! 물론 우리의 흐린 기분은 이 날씨에서만 오는것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는 려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쓴 작가 박태원의 집을 나와 우산장창작실로 가는길이다. 그간 읽어오던 《갑오농민전쟁》제2부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었지만 사색은 계속 책의 다음 갈피에로 나래친다. 그런데 이 책의 다음갈피는 정녕 어디에?...

우리의 눈앞엔 방금 그린듯 누워있던 작가의 얼굴이 방불히 되살아났다. 병곳이 뜬 두눈은 그 어딘가 무연한 세계를 바라보는것만 같았어도 벌써 빛을 잃은지 10여년, 저 마른 가둑나무잎처럼 마비된 전신, 바로 이런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듯한 용사들의 형상을 이 거창한 장편소설속에 그려놓았으리라고 그 누가 상상인들 할수 있으랴. 실로 어린 몸으로 10여년을 살아올수 있었으리라는것조차 믿기 어려운것이였다. 지금은 그의 의식조차도 창작의 사색속에서 영원히 멀어져가고있지 않는가...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들은 그는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향긋한 미소를 담은 그의 입술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우리가 것처럼 기다리고 그가 것처럼 하고저하는 말소리는 끝내 울려나오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웠다.

저 끝없는 미소와 이야기속에는 얼마나 절절한 사연이 담겨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오랜 문단생활을 통하여 이미 내외에 널리 알려진 작가 박태원의 신상에서 오는 불행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녕 사그러진 초불처럼 자기의 창작무대에서 영원히 물러섰단말인가? 격류마냥 흐르던 농민봉기군대오는 전주땅에서 멈춰서버리고 펼쳐지던 갑오농민전쟁의 화폭은 여기에서 끊어진단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우산장창작실에서 〈갑오농민전쟁〉 제3부를 쓰고있습니다.》

방금 집을 나서는 우리를 바래주며 조용히 속삭이던 작가 박태원의 딸의 이야기가 가슴에 어려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가슴속깊은 생각을 가셔주지 못하였다. 진갑나이가 넘는 로인이, 하물며 단 한편의 짧은 글조차도 발표해보지 못한 할머니가 그 글을 그것도 제일 관건적인 마지막 장을 결속하게 되리라고 그 누군들 믿을수 있으랴.

붓을 꺾고...

《이런 산골에 이렇게 아름다운 휴양각들이 있을 줄이야!》 언젠가 먼 후날에 가서 자식들에게 오늘의 감회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리라 생각하며 우리는 차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빼곡한 밤나무숲들을 에돌아 질주하던 승용차는 벌써 맑은 물이 남실대는 호수옆에 이르렀다.

《이 호수에 물고기가 있어요? 금붕어는요?》

꿈세계에 도취된것처럼 그린듯한 경치에 매혹된 우리는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선듯싶었다.

《있지요. 여름엔 이렇게 손바닥만큼한 금붕어가 있다우. 우리 작가들은 글을 쓰다가도 여기 호수나와 금붕어와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의 한때를 보낸다오.》

어찌 그뿐이겠소. 저 골짜기들을 보시오. 온통 밤나무, 딸기나무로 들어찼소. 저 나무밑에 척 늪기만 하면 밤알들이 입에 줄렁줄렁 떨어지고 말큰말큰한 딸기송이들이 〈나를 잠사줍시사〉 하고 작가들을 찾아 창가에까지 온다오.》

우리는 밤알이 저절로 입안에 굴러드는듯싶어 입을 다물수가 없었고 딸기송이가 손끝에 말쑥말쑥 닿는듯하여 가슴이 달콤해났다.

《지금도 있을까요?》

《아유, 이제 어느때라구... 옛말에 눈밑에서 딸기를 따다는 말은 들어어두...》

깔깔, 꺾꺾.

실로 그러하였다.

좋다좋다 해도 우산장창작실이 어떠한지는 이제와보니 정말 알겠다. 산딸기 무르익는 봄철도 좋고 밤송이 대롱대롱 달린 가을철도 좋지만 방금 눈썹이 춤을 추던 이 우산장의 겨울은 또 얼마나 좋은가! 옛날 어떤 선비가 글공부를 하려 해도 먹을것이 없고 집이 없어 하늬바람이 부는 날 눈무지로 담을 쌓고 그속에 앉아 한 꿈을 얻었는데 그 꿈에 선비는 산속에 깊이 들어가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산새 우짖는 한곳에 이르렀다 한다. 그런데 거기에 그윽한 초당이 한채 있었고 밥상에는 흰쌀밥이 물물김을 뽕고있었으며 삽작밖에 개가 쿵쿵 짓고있었다 한다. 이를 가리켜 후세사람들은 무릉도원이라

일컬었다. 그런데 오늘 아늑한 밤나무골에 자리잡고 금붕어 노니는 호수에 둘러싸인 이 아담한 휴양각들을 무어라고 불러야 할것인가? 그것도 한갓 꿈이 아니라 현실인데야...

《이 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창작실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 경치아름답고 풍격좋은곳에서 마음껏 글을 쓰도록 배려를 돌려주시고도 늘 마음놓이지지 않아 이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몇번이나 다녀가셨답니다.》

우리를 반겨맞은 한 작가동무는 감개무량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설해주는것이였다. 우리는 어느덧 2층으로 된 깨끗한 청사앞에 이르렀다. 뒤희 쓸어놓은 청사마당에는 자그마한 화단이 있었는데 나무가지로 넉출을 감아올린 포도나무가 보였다.

《이것은 녀성작가 한분이 늘 애착을 가지고 가꾸던 포도나무예요. 며칠전에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나와 같이 여기에 있었다우.》

포도나무에 눈을 주는 우리를 보고 누런 다우다직숨옷에 곤색 모실로 쓴 자그마한 모자를 쓴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손에는 짧은 지팡이 하나를 쥐고있는데 그의 부드러운 음성과도 같이 동실한 얼굴이 펴 유하게 보였고 얼굴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말그레한 홍조까지 비껴있었다.

《아, 이분이 바로 작가 박태원의 부인입니다.》

우리를 안내한 작가동무의 소개에 반색을 한 부인은 우리의 손을 꼭 잡더니 마치 오래전에 갈라진 딸자식을 만난듯이 기뻐하였다.

《아니, 이런 추운 날에 이렇게 멀리 찾아오다니 내가 뭐게...》

순간 우리는 부인의 그 수심깊은 밝은 눈빛에서 뭔가 이름할수 없는것을 느꼈다.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젖어왔다.

그런데 그는 생각밖에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를 자기의 오붓한 창작실로 안내하였다.

《아이구, 이것보지, 온통 어지럽혀놓았군요. 손님의 울줄을 모르고... 하긴 저 나무가지에서 오늘 아침 까치가 울었다니 하하.》

우리는 방금까지만 해도 펴 측은해보이기까지 하던 이 할머니가 이처럼 활달한 마음과 천진한 웃음을 갖고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어서 삽지에 얼굴을 붉혔다. 것처럼 서글픈 모습으로 그려본 주인공이 이렇게 유쾌한 사람인줄이야...

우리는 마치 제집에 온듯한 기분에 싸여 스스로없이 방안을 돌아보았다. 실로 책상우에도 창턱에도 침대우에도 온통 책이였다. 동실한 웅장탁우에는 두툼히 쌓아놓은 원고지들이 보이는데 그옆에는 방금 쓰다놓은듯한 두껍이 열린채로 있는 만년필이 보였다.

저 한장한장 접어놓은 자료철들은 작가 박태원이

길고도 긴 창작의 나날 사색과 환상을 내려치면서
톱이나가던 자욕이며 저 만년필은 그가 이미 사라
진 한세기전의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부어주
던 혁명의 무기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저 뭘 말할까요.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어머니, 정말 용습니다. 70고령에 글을 쓰시느
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원, 수고야 뭐, 거저 마음뿐이지, 아직 같길은 먼
데 벌써 인생은 락엽을 재촉하니...》

부인은 안타까운듯 머리에 썼던 모자를 벗어놓
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자 밑으로 희끗희끗한 모발
이 헤엄치듯 흘러나왔다. 그는 조용히 머리를 비다
듬고 나서 말했다.

《정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에 대해 말하
면 우리령감을 빼놓고야 누구를 첫자리에 놓겠습
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민하여 그 은혜에 천분지
일도 보답하지 못하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
까.》

그렇다. 지난날 부르조아문학의 락류속에 잠겨
길을 잃었던 그를 오늘 주체형의 작가로 키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를 어찌 한필로 다 적
을수 있으랴.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수십년
전 불구름 몰아오던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로 이끌
어갔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열렬한 애국자가 아닌 작가가 어찌 애국주의
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있으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예술가가 어찌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작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총소리, 뒤에는 포소리, 방금 공격전을 멈
춘 고지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종군작가 박태원은
차거운 전호에 잔등을 대고 누워 어둠에 잠긴 하늘
가를 바라보았다. 검푸른 하늘에선 머리없는 상현
달이 유유히 구름속을 헤쳐가는데 여기저기에서
진주모래를 뿌려놓은듯 별들이 차거운 빛을 뿌리
고있다.

《박태원동지, 자 담배를 붙이십시오.》 어느결에
옆에 다가온 한 인민군관관이 그의 손에 두툼하게
만 담배가치를 쥐여주었다.

《저 뭘, 나야...》

《자요. 빨리 내게도 있습니다.》

고지에선 제일 귀한게 담배였다. 더우기 하루의
치열한 전투를 끝마치고 지켜낸 조국의 고지를 바
라보며 마음껏 들이키는 그 담배맛이야말로...

박태원은 구수한 담배연기를 폐부속깊이에 빨아
들이며 생각했다.

(아, 내가 겪은 이 몇달간의 간고한 종군생활, 가
렬처절한 전투, 차거운 전호가에서 만난 뜨거운 인
간들이 모든것은 나에게 있어 너무나 생소한 세계
였다. 어찌하여 내가 지난날 것처럼 상아탑속에서

에타게 그려내던 인간들과 이 력사의 준엄한 결전
장에서 목숨바쳐 싸우는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이치
럼 다른 삶의 차원이 설정되어있는것일까. 내가 아
름답고 고상하게 그리던 주인공들은 더럽고 저속한
허수아비였던단말인가! 그렇다면 이름있는 작가라
고 자부하던 이 박태원이 반평생을 잘못 살았던
말인가?)

반생을 남반부에서 살아오던 종군작가 박태원은
매일 이때마다 이렇게 자신과 물어보곤하였다.

그는 발끝까지 무장한 미제놈들을 보충으로 까부
시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보았고 농촌마을의 수레
바퀴우에 중기관총을 걸어놓고 미제의 비행기를 쏘
떨구는 명사수들도 보았다. 어찌 그뿐이랴. 그는 부
대의 전진을 위하여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는 이
런 전사도 보았고 싸우는 인민군대에 밥을 날라다
주기 위하여 부상당한 몸으로 마지막순간까지 달려
와 불타는 고지우에서 숨진 이름없는 농민의 시체
도 조국의 푸른 대지우에 물어보았다. 어찌하여 그
들은 이처럼 용감히 싸울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그
들은 이처럼 귀중한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고요히
웃음지을수 있었을까! ...

종군작가 박태원은 끝내 이 모든것을 깨달았다.
이 진리를! 그는 이 거창한 혁명대오가 바로 민족
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지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
군님의 손길아래 전진하는 인민이며 이들이 바로
력사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불패의 힘을 지닌 력사
의 주체임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민.

이것이 바로 종군작가가 깨달은 삶의 진리였다.
이것을 떠나서 그 무슨 창작을 운운할수 있으랴...

그는 이렇게 반생을 써내려오던 자기의 붓촉을
일석에 꺾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자책에 모대졌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 한곳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펜을 잡았다. 이리하여 종편소설 《조국
의 품》, 《조국의 기발》, 《리순신장군》, 장편소
설 《계명산전은 밝아오느냐》 등이 꼬리를 물고 세
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 소설들에 작가는 자기가
새로 보고 느낀것, 자기의 자책 그리고 기쁨과 희망
을 담았다. 이리하여 그의 글속에는 우리 인민들이
살아움직이게 되었고 그의 지향도 인민의 지향과
함께 약동하게 되었다...

부드러운 말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방안엔 어느덧
저녁노을이 찾아들었다...

우리는 붉은 노을속에 몽롱히 잠긴 그 언젠가엔
찍 아름다웠을 부인을 취한듯 바라보았다. 그는 바
로 수십년전 남편이 겪은 그 이야기를 방금 오늘 겪
은 체험인듯이 흥미진진하게 것처럼 희망에 차 이
야기하지 않은가? 마치 그 이야기가 자기의 최대의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모든것인것처럼...

부인의 감격은 우리의 가슴도 훈훈히 덥혀주었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눈길을 돌려 책상우에 무독히

쌓아놓은 책들을 바라보았다.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라는 제목이 한눈에 안겨오는 책뚜껑에도 노을빛은 붉게 물들었다.

아, 붓을 꺾고 다시 쓴 저 글, 저 책들, 이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아닌가?

빛은 어디에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 제2부를 쓸 때 심한 시력감퇴를 느끼고 저의 손에 이끌리어 병원으로 갔던 남편은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시신경위축에 색소성망막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은 불치의 병일뿐 아니라 오래지 않아 눈이 멀게 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야는 점점 좁아져서 글자 한자를 보자고 해도 확대경을 가져다 대야만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증할 자료를 머리맡에 가져다놓고 한자한자 뜯어보며 머리속에 새겨넣기도 하고 안해인 저에게 발췌해두게 하면서 어렵게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지 말기를 바라던 그 무서운 시각은 드디어 오고야말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캄캄한 어둠속에 잠겨 날이 밝고 또 밤이 오는것도 모르면서 절망속에 모태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과 이야기를 끝없이 주고 받았습니다.

〈아! 빛이여 너는 어디에? ... 이제부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것처럼 크나큰 대가를 치르며 찾아왔던 혁명대오에서 물러나 그들의 발구름소리만 들어야 하는가? 안해가 떠날 어주는 음식을 받아먹으며 숨쉬는 산송장으로 살아있어야 하는가? ... 안된다. 나는 쓰리라 내가 하고싶은 말은 아직 너무도 많다.〉

이렇게 모태기던중 그는 자신에게 아직도 입이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목이 메여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왜 이리 우둔할까. 이것도 모르다니. 철필을 가져오오. 내옆에 앉소. 그렇지, 자 됐소. 인젠 씹시다.〉...

이렇게 창작사업은 다시 계속되었다. 온 대지가 깊이 잠든 밤, 대동강반에 높이 솟은 아파트의 어느 한 방문으로 또박또박 울려나오는 말소리, 찹찹 찹 찹 철필소리를 따라가 문을 열면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조용히 우운 장대한 체구를 가진 사나이는 희디흰 천정벽 그 어데를 바라보며 뭔가 끝없이 이야기하는데 흰저고리에 검은 옥양복치마를 입은 한 여인은 그 사나이의 입가에 귀전을 대고 그 한마디한마디 말이 그 무슨 귀중한 비밀이라도 되는듯 하나하나 가슴속에 담아 글줄에 새겨간다. 그런데 어찌하여 찹찹찹소리는 멎어버리고 저 여인은 책상

우의 원고지에 얼굴을 묻고말았는가?

사나이의 부드러운 손길은 세상모르고 깊이 잠든 녀인의 수척한 얼굴을 쓰다듬는데 그의 보이지 않는 두눈에는 뜨거운 이슬이 맺혔다.

이렇게 하루이틀도 아닌 긴긴 창작의 나날, 하루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남편을 돕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또다시 숨막히는 정적은 그의 집에 찾아왔다. 다시 들었던 그 붓이 여기에서 꺾이고 마는가...

그런데 바로 이때 그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처럼 귀중한 사연을 전해줄줄이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태원동무가 어려운 조건에서 창작을 한다고 하시면서 안해가 전적으로 그의 창작을 도와줄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업에서 일체 벗어나도록 해줄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정중히 일어섰던 부인은 그만 땅에 펄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다. 박태원동무의 두눈에서도 눈물이 싹없이 흘러내렸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이 깊이 묻어둔 고충을 어떻게 아시고 그토록 다 헤아려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순간 박태원의 어두운 눈앞엔 이미 아득한 추억의 갈피속에 사라졌던 그 나날들이 흘러지났다.

온 하루 해빛 한점 볼수 없는 다락방, 축축한 습기와 벌레들의 기승, 보이지 않는 눈을 찌프리고 간신히 써내려가던 글줄들, 검열관의 부름튼 눈길, 어스름저녁 찾아가던 전당포... 돈, 돈을 위해 써나갔던 저속한 취미의 글줄들...

이것이 바로 것처럼 건장하고 유쾌했던 그에게서 언제나 빛나던 눈빛을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위대한 당은 그에게 이처럼 창작조건까지 걱정해주지 않는가!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랴. 대학을 나온 끝끝한 자식들, 모든 것이 유족한 훌륭한 주택,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받아오는 심방치료...

그런데 이처럼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는 그에게서 병마는 두눈을 빼앗았으며 또 얼마 안되어서는 그의 육신이 신경중추의 지배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의 유일한 창작수단이었던 입마저 철문처럼 굳게 닫겨버렸다. 의사는 그에게 전신마비라는 무서운 진단을 내렸다. 병세는 사정없이 그의 온몸에 덮쳐들었다. 육체적불구의 운명은 작가 박태원을 여지없이 희롱하였다.

바로 이 위기일발의 시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이 박태원의 가슴속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바로 그 빛이 없던 어제날엔 두눈을 보며 푸른 하

늘을 안고 살면서도 그는 어둠속에서 글줄을 찾아 헤매었고 바로 그 빛이 없던 어제날 그는 저 풍요한 대지위에 살면서도 황금의 기생충들인 썩어가는 인간쓰레기들만 볼줄 아는 정신적불구자로 되었었다.

그런데 오늘 전신불구의 사경에서 모태기는 그에게 참으로 삶의 빛이 다시 재생의 숨결을 부어주었으니 그는 두눈을 감고서도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방불히 볼수 있게 되었다. 침대에 붙잡혀있는 몸이지만 흐르는 인민의 대오속에 영원히 함께 서서 숨쉬고 함께 달릴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는 사랑이 깃든 귀중한 약재들이 끊임없이 전달되었고 의료집단은 밤에 낮을 이어 그의 신변을 지켜냈다.

어느날 작가 박태원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누가 그를 깊은 잠에서 깨웠는가? 안해인가? 귀여운 아이들인가? 아니 그럼...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으려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

아, 노래, 노래소리가 그를 죽음의 깊은 심연속에서 불러낸것이 아닌가!

불타는 고지, 달려드는 적 땅크. 비발치듯 날아오는 총탄.

《동무들, 앞으로!》 중대장의 웨침.

《만세!》 내달리는 전사들...

우렁찬 노래소리는 작가 박태원의 꺼져가던 심장속에 거대한 생의 희열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조용히 생각하였다.

(아, 얼마나 훌륭한 노랜가. 작곡가는 저렇게 좋은 노래를 내놓고 얼마나 기뻐하였을가? 나도...)

이때 박태원의 머리속에서는 일대 기적이 일어나고있었다. 먹장같이 흐렸던 캄캄한 밤하늘에 무서운 구름장속을 헤치고 새별이 돌아나듯 멀리 숨어버렸던 소설의 화폭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나는게 아니겠는가...

《여보., 일어나세요. 빨리 좀 보세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신이 음악을 즐긴다고 하시며 이 전축까지 보내주셨어요!》

안해의 울음섞인 목소리가 귀전을 두드렸다.

작가 박태원은 샘솟듯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으며 사랑의 선물을 보고있었다. 심장으로...

귀중한 약재들은 생명의 감로수마냥 굳어져가는 혈관속에 흘러들어 무서운 병마를 물리쳤고 아름다운 음악은 그의 가슴속에 생의 불길과 정열을 불러일으켜주었다.

실로 정성이 지극하면 교목에도 꽃이 핀다고 작

가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 1, 2부는 끝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쇄잉크도 채 마르기도전에 그 책을 보시고 것처럼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하여주시고는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으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까지 안겨주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받은 사랑의 전부는 아니었다.

또 그에게 진귀한 60뿔생일상까지 차려주실줄이야 그 누가 꿈엔들 생각했으랴!

실로 인생에는 불구가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불행이란 없는것이다. 작가 박태원은 행복하였다. 박태원일가의 그날의 그 감격은 이를테가 없었다. 작가 박태원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말하였다.

《아, 나의 눈에 번개의 섬광과도 같은 순간의 빛이라도 차례진다면 그토록 뵈고싶은 고마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한번만이라도 우리러뵈울수 있으면만... 단 한번만이라도...》

이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 소원을 안고 그는 10년이란 기나긴 나날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창작사업을 계속했던것이다. 오늘 그의 가슴속엔 그 절절한 소원이 하나의 승엄한 모습으로 아로새겨졌다. 그는 오늘도 바로 그 모습을 우리러 조용히 웃음짓고있었을것이다...

《아유 이것 보지. 내가 이야기에 취하여 저녁밥을 굵길번했구만. 자, 갑시다.》

좋은 이야기가 명약이라더니 우리는 오늘저녁 일곱시가 되도록 식사할 생각마저 잊고있었던것이다.

겨울이라 어둠이 빨리도 찾아와 창문밖을 내다보니 칠흑같이 캄캄했다. 그러나 정작 집을 나서니 여기저기 골짜기어귀마다 당실히 솟은 창작실 창가에서 흘러나온 불빛들이 서로서로 인사사누듯 오고가면서 식당으로 가는 동구밖길을 뽀뽀 밝혀주고있었다. 우리는 부인과 함께 시원한 저녁공기를 마음껏 들이키면서 식당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저녁어슬넷마다 식당으로 갈 때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오. 달과 별이 비쳐주는 흰한 밤길을 걸으면서도 나는 불안에 잠기곤하는데 우리령감은 어찌하여 그렇게 캄캄한 속에서 춘하추동을 보내건만 늘 병궁병궁 웃기만하는가고... 령감생각을 하면 내 마음도 한결 든든해지지요.》

독자들이여, 이 이야기의 대답을 그대들은 다른데서 찾지 마시라!

바로 한 평범한 작가의 부인이 말하고있는 그 이야기속에 가장 정확한 우리 시대의 대답이 있지 않는가!

빛의 시작점! 그것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심장속깊이 받아안은 당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있다고!

빛은 래일로

하루밤에 맺은 우정이 퍼그나 깊어 부인과 작별하고 떠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저지기 섭섭했다.

밤나무결을 벗어나 넓게 뻗은 고속도로도로로 나왔지만 우리의 시선은 자꾸 차창뒤컨으로만 향했다. 올 때만 하여도 서글퍼보이던 가을이 끝난 논밭에 척척 갈아엎어놓은 검실검실한 이랑들에서는 구수한 봄냄새가 풍겨오는듯한데 길옆의 동실동실한 산비탈마다에 파릇파릇 자라난 겨울남새모들이 류달리 봄날의 정취를 자아내었다. 실로 동지도 지나지 않은 이곳에 봄이 찾아오는것이 아닐가?...

《어머니, 인젠 년세도 적지 않으신데 쉬면서 일하세요.》

《쉬다니, 아직 할일이 많고도 많은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초소가 바로 여길세. 우리 령감을 방조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처럼 높이 평가해주신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의 제3부를 완성해나갈 나의 위치란말이네. 나는 조국해방 40돐과 우리 당 창건 40돐을 맞는 새해에 꼭 이 글을 끝내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

도자동지께 작가 박태원이 여전히 건재하여 절절한 인사를 드린다고 보고올리겠네.》

멀리 동구밖까지 나와 우리를 바래던 부인의 말이였다. 우리는 바로 이렇듯 조용히 말하는 부인의 두눈에서 작가 박태원의 가슴속에서 번쩍이었던 그 섬광을 보아냈다.

아 !그 빛을 받아안은 부인, 그는 바로 남편이 굳게 잡았던 붓을 억세게 잡고 남편이 걸어가던 그 길로 억세게 걸어가고있지 않는가?

승용차는 기세 좋게 내달린다. 우리는 한가슴에 비쳐든 그 빛을 소중히 간직하고 돌아간다. 우리는 바로 멀지않은 래일 수천수만의 눈동자들이 받아안게 될 그 빛을 안고 적어가는 부인의 잊을수 없는 글발을 다시 되새긴다.

《전봉준이 마침내 10만대병을 량편으로 나누어 진군의 길에 올랐다.

기치창검이 숲을 이룬 농민군대렬이 원쑤 쓸어눌힐 투지 안고 성난 파도처럼 흘러간다. 대하처럼 도도히 굽이쳐흘러간다.

길군악소리 류창히 울리고 농민군 소리를 합쳐 병정가를 부른다...

회령사적비앞에서

김 남 결

너무도 짧구나
어머님 한생 걸으신
자옥 자옥에 비길제
여기 새긴 글발이

너무도 낮구나
어머님 넘으신
힘한 령 생각하면
여기 세운 비석이

생각에 덧쌓는 생각
비문따라 눈길 없노라니
마음속 갈피속에 일어서는
항일의 피어린 나날이여

천만문자 모두 모으면

대사하의 언덕
여기 다 적을수 있다더나
큰 비를 세우면
청봉의 재봉기소리
다 들을수 있다더나

걸으신 순간 순간이
행복으로 이 땅에 남았고
순간 순간에 하신 말씀
참된 삶의 교과서로 남아

아 이 땅
천만산악을 그대로 비로 세우고
압록강의 물결 그대로 다 찍어
후세에 남길 글발 쓴들
어머님 한생 어이 다 적으리

장편소설 《높새바람》(상)의 사상에술적성과에 대하여

방연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에서는 또한 인민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생활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반영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거의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거 조선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생활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린 력사물작품은 오늘의 우리 인민의 민족생활을 그린 작품과 함께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진다.

장편소설 《높새바람》(상) (홍석중작)은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표상을 가지게 하는 력사물작품이다.

이 작품이 사회주의적력사소설로 성과있는 작품으로 된것은 력사물창작에 관한 우리 당의 올바른 지도적지침을 구현함으로써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풍격을 갖추었기때문이다.

장편력사소설 《높새바람》(상)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에서는 몇가지 측면에 국한시켜 언급한다.

그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지난 시기 일부 력사소설들에서 력사적사건이나 사실 그자체를 보여 주는데 치우치던 결함을 극복하고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의식발전과정을 생동하게 잘 그려낸것이다.

소설에서 설화체의 낡은 요소가 제일 농화하게 남아있던 분야가 력사소설분야였다.

그리하여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대로 력사소설분야에서 낡은 설화체를 극복하고 성격중심의 묘사문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인 력사소설은 단순한 성격중심의 묘사문학이 아니라 주체의 견지에 선 정적중심의 묘사문학이다.

사건중심의 설화는 인간학으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다할수 없다. 설화체의 소설, 력사소설은 소설문학의 발전의 견지에서 보면 낡은 단계의 산물이다. 성격중심의 묘사문학으로 되여야 력사소설이 인간학으로 되게 된다. 그리고 성격중심의 력사소설의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자면 인간중심의 견지,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창조된 성격중심의 묘사문학으로 되여야 한다.

바로 장편력사소설 《높새바람》(상)은 과거 력사소설분야에 남아있던 설화체의 낡은 요소를

극복하고 주체의 견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견지에 튼튼히 서서 력사적으로 진실하고 생동한 전형적인 성격들을 창조함으로써 《삼포왜란》이 일어나기직전에 있었던 왜놈들의 해적행위와 침략적인 음모책동을 반대하여 싸운 과거 조선사람들의 투쟁을 감명깊게 형상화한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였다.

성격창조에서 거둔 작품의 성과는 우선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견지에서 력사적으로 본질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진실한 문제성을 옹바르게 탐구하고 그것을 극성이 느껴지게 실현할수 있도록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한데 있다.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창조하자면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등장인물들에게 시대적으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성을 짊어지워야 하며 부여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높새바람》은 1592~1598년의 임진조국전쟁이 있기전인 16세기초 《삼포왜란》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취급하고있다. 상편에서는 《삼포왜란》을 일으키며 나아가서는 조선침략을 전면적으로 감행하기 위한 왜놈들의 음모와 도발책동을 사실대로 까발히면서 왜놈들의 끊임없는 략탈과 음모책동을 반대하여 싸운 당대 인민들의 투쟁을 그리고있다.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 왜놈침략자들의 략탈과 살인만행으로 신음하는 노비와 백정을 비롯하여 다수를 이루는 농어민들이 자주적인 요구와 계급적리해관계로 하여 왜적을 반대하여 투쟁한 력사의 주체였으며 다시로서 가장 진정한 애국의 주인이었다는것을 주인공 농쇠를 비롯한 하층인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하고있는 여기에 작품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농쇠를 비롯한 천개불이나 날치군과 같은 최하층의 백정, 노비나 양민들은 봉건통치배들과 왜놈침략자들로부터 2중3중의 략탈을 당한 처참한 피해자들이다. 16세기초 당시대의 제약성속에서나마 그들이 어떻게 점차 각성되여 계급적원썹들을 반대하여 싸우며 무자비하게 징벌하였는가, 이와 같은 등장인물들의 의식발전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당대 인민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할수 없으며 16세기 왜놈들의 조선침략사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재현할수 없다. 또한 왜놈들의 해적행위와 침략행위를 두고 누가 나라와 겨레 조국땅

을 지킨 력사의 창조자들이었으며 누가 왜놈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백성 조국땅을 팔아먹는 반역자들이었는가 하는것을 력사적사실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없다.

장편력사소설 《높새바람》(상)은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규정하고 의식장성과정을 생활 그대로의 형태로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16세기초 왜놈들의 조선침략사와 왜놈들의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조선인민의 투쟁사의 일단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재현한 산 력사로 되었으며 조선과 아시아를 또다시 삼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오랜 뿌리를 파헤침으로써 력사의 경중을 올린 준엄한 론고장으로 되었다.

성격창조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으로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규정하고 그의 의식발전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전형화한데 있다.

주인공 납쇠는 아득한 옛적부터 바다를 뜰어 먹고 살아온 배군들속에서 《삼포왜란》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싸워 조선사람의 생명선인 조국강토와 바다를 지킨 자랑스러운 배군들의 용맹과 슬기와 피땀한 유한을 상징적으로 담아 높새바람으로 노래한 구전가요에 기초하여 창조된 당대의 전형적인 농어민의 형상이다.

작가는 《삼포왜란》당시부터 전해내려오는 구전가요의 주인공을 원형으로 삼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들 당시 절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의 전형으로, 왜놈침략자들의 략탈과 살륙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조국강토와 동족을 지켜싸운 애국자로 규정하고 당시대의 본질과 특성과의 연관속에서 그의 긍정성과 제한성을 갈라보면서 통일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천대받고 학대받는 사람으로서의 계급적감정과 각성, 사람된 도리와 의리가 그의 긍정적측면이다.

이름있는 돌팔매군다운 날파람과 결패, 저력있고 탄력있는 체질과 날랜 숨씨, 과묵한 성미 등 기질적으로 생리적으로 형성된 개성과 결합되는것으로 하여 그의 계급적인 감정과 인간된 량심, 도리는 성격적으로 더욱 돋보이며 생활적으로 더욱 강렬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어린시절 12년전 가덕섬에서 부모와 마을사람들 수십명을 무리로 살해한 왜놈들을 잊지 않고 원수 갚을 일념으로 자라오다가 드디어 원수 사부로놈을 칼로 찔러죽이고 부모의 원혼을 위로하는 자식다운 납쇠의 형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바루 그때 가덕섬에 들어왔던 왜놈들의 두령놈이랍시다.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그만 한을 푸시구 지하에서라도 편안히 눈을 감으시우.》 이처럼 원수를 갚고 부모의 영원한 안식을 비는 오직 이 하나의 순간만을 향하여 걸어온 그에게

있어서 원수 왜놈 한놈이라도 잡아죽임으로써 피의 복수를 하려는것이 그의 생활의 전부였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것은 일찌기 고아로 된 그의 삶을 지탱하게 한 유일한 마음의 기둥이었으며 계급적각성의 표현이었으며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구실을 하는 도리의 표현이었다.

납쇠의 인간된 면모는 특히 자기때문에 억울하게 체포된 병록이를 구하기 위하여 관가에 스스로 자수하여 나서는 결바른 행위에서 감명깊게 드러난다.

원수를 갚음으로써 마음의 기둥이 뽑힌 지금 언제까지나 숨어 살아야 할지 모를 자기를 두고 납쇠는 자기 삶의 의의를 더는 찾을수 없었다. 그런 고민속에서 모대기던 그에게 있어서 자수함으로써 병록이를 구원하는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값높은 의리로 생각되었다.

이것이 소설의 앞부분에 그려진 주인공 납쇠의 초기상태이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납쇠의 계급적감정과 인간된 도리의 마음은 자연생장적인것이였으며 긍정적인것이면서도 제약성을 가진것이였다.

작가가 작품에 등장하는 초기상태의 주인공의 긍정성을 자연생장적인 계급적각성과 인간적인 도리에서 찾고 부모의 원수를 갚는것부터 보여준것은 정당한 처리였다. 납쇠의 초기상태의 긍정성이 납득이 가는것은 회상의 수법으로 그의 아버지 김서방과 우중의 아버지 리생원을 비롯한 밤내마을 배군들이 집단적으로 살해당한 가덕섬이야기를 생활적으로 펼쳐였기때문이다. 작품은 왜놈들의 가덕섬 학살사건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납쇠가 어떤 시대적환경속에서 어떤 계급의 출신으로 태어나 어떤 가정적지반우에서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며 일찌기 남다른 곡절을 겪게 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지 않고도 생활을 통하여 자연생장적으로 터득한 그의 긍정성을 수궁할수 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성격발전의 긍정적바탕을 간결한 묘사방법으로 적중하게 처리한 성과로 된다.

작가는 납쇠의 긍정성과 함께 또한 그의 제한성을 옳게 보고 생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의 성격발전을 위한 주객관적조건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었다.

납쇠의 제한성은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대적환경의 성격과 특성과 굳게 연결된 자연생장적인 계급의식, 봉건적인 사상, 도덕관념이 가지는 제약성이였다.

그것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것으로써 자기 삶의 의의가 끝나는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서 계속 원수들을 보복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자수하면 병록이를 구원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

는 천진하면서도 어리석은 행위에서 찾아볼수 있다.

물섬에 숨어 배편만 기다리던 늙쇠는 조난당한 우중이를 구해주고 그가 바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피살당한 량반 리생원의 아들 리선달인것으로 하여 그를 믿게 되며 그로부터 앞으로 싸워나갈 진정에 넘친 깨우침을 받지만 끝내 제발로 걸어서 자수하고만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리를 다하려는 그의 성품이 얼마나 끈고 끈은 사심없는것인가를 생활적으로 보여주고있을뿐 아니라 그의 의기십이 봉건사회의 지배적통치리념이었던 유교의 관습에 깊이 물젖은 얼마나 맹목적인것인가를 극적으로 확인한 진실한 예술적처리로 된다. 동시에 이것은 성격과 생활의 논리를 따른 성격발전의 진실성을 보장한 생동한 예술적처리로 된다.

이처럼 소설은 주인공 늙쇠의 성격을 옹계 규정하고 그의 긍정성과 제한성을 시대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생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의 의식발전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을 형상적으로 축성하여놓는데 성공하였다.

작품은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역시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늙쇠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것은 그의 긍정성과 더불어 제한성을 깊이 깔고 나가면서 성격발전의 계기를 정당하게 설정하고 그의 의식장성을 생활적인 우여곡절을 통하여 전제와 축적이 있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늙쇠의 성격발전의 첫 계기는 물섬에서 아버지때부터 연고관계가있는 우중과의 상봉이였으며 왜놈두목 막부의 지시로 대마도를 거쳐 삼포에 잠입해들어오는 사몽고로일행과의 조우전을 통하여 생사를 같이한 그와의 연고관계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호상 신뢰였다.

늙쇠는 자기가 구원한 우중이가 량반인데 실망하고 결을 주지 않았으나 그가 왜놈의 략탈과 침략에 대처할데 대한 의견을 상주한 죄아닌 죄로 물섬에 귀양왔다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해당한 리생원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 물섬에 기여든 한무리의 왜놈에게 원수 갚음을 한 같은 복수자로서의 뉴대로 하여 그를 믿을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신에게도 똑같은 피맺힌 원수인 그 왜놈을 칼로 찔러죽인 늙쇠의 통쾌한 복수를 그 어떤 은공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문에 늙쇠의 운명과 래일에 대하여 무관심할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있는 우중의 의식적인 영향은 늙쇠의 제시된 의식에 잊을수 없는 파문을 일으킨 첫 충격이였다. 사모슨 도둑놈들이라고만 생각하고있던 량반들속에도 상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원한

을 간직한 사람이 있다는것, 포악한 임금과 간신들을 잡아치우고 어진 임금을 모셔야 백성들도 굶은 허리를 펼것이며 나라의 기강도 바로 서서 왜놈들의 먹을 단단히 틀어쥘수 있다는 우중의 말은 그가 여직 알지 못하던 세상의 리치였다.

늙쇠는 우중은 믿었지만 그의 말을 한꺼번에 깨칠수가 없었다. 그 엄청난 문제를 자기의 판단과 사색으로는 다룰수 없었으며 그저 꿈속같이만 생각되었다.

작품은 의식발전의 복잡성, 어려움, 점차성의 논리에 맞게 늙쇠의 성격을 생활의 우여곡절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진실성을 보장하고 있다.

늙쇠의 성격발전의 두번째 계기는 옥중생활에 있다. 그 계기는 무서운 고문을 끝끝내 이겨내고 의식을 회복한 첫순간에 옥살창너머로 내다보며 느끼는 생에 대한 의욕이였으며 더우기는 함께 갇혀있는 날치군의 영향이였다. 삶을 포기한 인간이 순간적인 안정을 얻고 바라보는 푸른 하늘 밝은 해빛, 새의 우짓음, 달콤한 꽃향기에 대한 감수는 삶에 대한 의욕을 충격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자극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맹목적으로 살고싶지는 않았다.

소설은 그와 같은 심리적변화를 꽃속에 파묻혀 있는 늙고 굵은 복숭아나무와 그옆에 잎없는 검은 가지들 앙상하게 추켜들고 서있는 어린 대추나무에 대한 늙쇠의 감성적인 체험을 통하여 비유적이면서도 아주 감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왜놈의 략탈과 살륙, 량반놈들의 학대와 억압속에서 죽어서 사는 거짓 삶을 살기보다 차라리 떼떈이 삶을 바라는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늙쇠다운 자기식의 정신적체험과 그 발전의 예술적표현이였다.

외눈통이고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날치군이 늙쇠에게 가하는 비웃음과 시까슬음은 아주 지긋고 심술스러우며 무자비하고 아픈것이면서도 남다른 견인력이 있었다. 그것은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바와 같이 데통스리워보이나 실상 누구보다 울퉁고 다감하고 정적인 개불의것과도 다르며 리지적인 성격과 세련된 친화력을 가진 우중의것과도 다른것이였다. 살아서 악귀같은 왜놈들을 씨종자가 남지 않도록 모조리 쳐죽일 생각을 못하고 왜놈 몇놈 죽이고 자기가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발로 판가에 자수하여 병록이를 구하겠다고 어리석게 처신한 늙쇠의 행위를 두고 《남자야말루 두눈은 성해두 망울이 없는 병신이구 습습한 병아리오줌으로 만든 반편》이라고 꾸짖는 날치군의 말은 참을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뒤미처 생각하면 자기가 갇히웠지만 병록이를 구할수 없었던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수 없었다. 이것은 자기행위의 무모성에 대한 자기 의혹의 첫썩이다.

그러나 이러저러구해도 사람이라면 의례히 바

른 도리와 의리를 중히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납쇠가 그의혹의 싹을 물리치는것은 진실한 의식비극전의 한 고리이다.

자기의 과거와 비슷한 날치군의 피맺힌 원한과 슬픔을 들은 다음에 체합하게 되는 납쇠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는 하나의 개인으로부터 사회적인간으로 가지게 되는 계급적의식, 동족의식을 깨치는 질실하고 생동한 묘사로 빛나고 있다.

날치군이 대통을 뒤매리에 대고 망치로 치는 야수적인 형벌로 하여 외눈통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되것은 원쑤 왜놈과 량반관헌들때문이었다. 진영에 번을 서려고 간 새에 왜놈이 날치군의 안해를 겁탈하려다가 듣지 않으니까 죽어버렸다. 날치군은 원쑤 왜놈을 붙잡아가지고 관가에 끌고갔다가 오히려 두서운 화를 입었다. 관가에서는 조선옷을 입고다니는 그자가 왜놈이 아니라면서 조선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하였다고 하여 야수적으로 날치군의 한눈을 뽑아버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던 섬으로 귀양살이까지 보낸다는것이였다.

날치군은 납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기의 비양이 왜놈을 잡아죽이지 않고 관헌에 끌고간 자기어리석음에 대한 학대의식의 표현이라는것을 고백한다. 이 날치군의 뜻밖의 고백에 접쳐 자기 운명을 두고 것처럼 가슴아파하는 날배가를 비롯한 친근한 고향사람들의 피로움속에 비긴 자기 모습, 느닷없이 떠오른 회영녀에 대한 지울수 없는 생각이 하나로 소용돌이치면서 같은 운명에 처하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확대된 의식이 생겨나는것이였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원쑤를 갚아야할 자기 개인의 의무외에 같은 상사람들과 같은 겨례의 공동의 원쑤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이였다. 이것이 납쇠가 개인적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첫 각성이다.

작품은 이 첫 각성을 때늦게 살아나는 대추나무에 대하여 느끼는 납쇠의 감정적인 체험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예술적여운과 인상을 강화하고있다.

소설은 정당하게도 이것으로 납쇠의 의식발전이 끝난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여곡절을 통하여 점차적인 체험의 축적과 각성의 축적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그려진바와 같이 사람좋은 문침지가 옥을 지켜 번을 시고있을 때 그를 죽이고 뛰자는 날치군의 권고에 납쇠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늙은 문침지를 죽이고서라도 자기의 뜻을 펼치려는 날치군의 그 무자비성에 대한 놀라움도 있었지만 보다 큰 놀라움은 이미 옆지른 몰사발과 같은 자기 처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

는것이였다. 그러나 납쇠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만큼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강직한 성미대로 순순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순간을 감수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성격과 생활의 논리를 따른 정당한 처리로 된다.

이처럼 제1편에서 납쇠의 의식발전에서 일어난 변화는 삶을 스스로 포기한 인간으로부터 삶에 대한 강한 요구, 어떻게 살아서 왜놈들과 끝까지 결판을 지어야 하리라는 의식을 깨친것이다.

이것이 제1편에서 진실하고 생동하게 실현된 납쇠의 의식발전의 첫 총화이다.

다음단계의 의식발전의 계기는 우증을 따라 서울에 가서 겪는 세상의 리면사에 대한 놀라운 생활체험이다.

1편에서의 납쇠의 성격발전은 주로 우증과 날치군과의 관계속에서 받은 영향으로 이루어진다면 2편 서울생활에서 겪는 의식발전은 주로 자기 스스로의 체험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연생장적인 의식을 벗어나 일정한 목적의식성을 가진 인간의 성격발전에 작용하는 리치를 따른 정당한 예술적처리로 된다.

물론 1편과 2편에서의 의식발전과정을 그린 예술적수준을 비교하면 1편에서 보여준 집약성, 집중성, 간결성에 비하여 2편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나 반정의 주모자들인 대감마님들과 사모모로와 같은 왜놈들과 주몽갑과 같은 잠상들이 꾸미는 음모선이 납쇠에게 안겨주는 극적인 생활정황들을 하나하나 다 겪으면서 스스로 의식발전을 이룩해야 하는것만큼 그 음모성들이 서로 엮히고 교차되면서 생활적으로 전개되는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놈들의 음모선들을 피동적으로 겪게만하기 말고 납쇠의 성격발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음모선들을 납쇠의 의식발전의 계기가 되게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반정음모과정과 사모고로와 주몽갑의 음모선이 지내 전개되어 전반적으로 간결성을 보장하지 못한 생대적인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납쇠의 의식발전을 극적인 생활정황속에서 세부적인 형상으로 뚜렷이 감득하게 그리고있는 것을 결코 무시할수 없다.

자네나 내나 왜놈한테 끌수에 박힌 원한을 씻자면 나라의 정사부터 바로잡는 반정음모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자는 우증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납쇠의 새 출발은 왜놈들에게 자신과 고향마을 사람들, 온 나라 사람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 그날을 바라고 떠나는 발전된 의식의 표현이면서 량반 통치배들의 정체를 깊이 알수 없었던 그의 제약성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서울생활은 처음부터 그의 지대와와는 달랐다.

류순정의 량반집 사랑방에서 겪는 생활은 사람다운 진실성을 간직하지 못한 권세와 부귀에만 아부굴중하면서 눈치 빠르고 타산 바르고 리속에 밝은 도가집 강아지로 되어버린 위선적인 인간들과의 생활로서 참기 어려운 역겨운 것이었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납쇠는 고향에 두고 온 진실한 벗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여 후회가 막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왜놈들에게 크게 보복할 그날을 위하여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우중의 말대로 역겨운 생활의 갈피갈피를 체험하면서도 참고 견딘다. 이 과정에 그는 반정부음모자들의 추악한 정체와 특히 자기 리속을 위해서 왜놈들과도 손을 잡는 반정부음모자들의 흑막을 밀바닥까지 목격하고서야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더러운 세상의 내속을 새롭게 깨닫고 반정부음모자들과 인연을 끊고 자취를 감추는데 이르기까지 발전한다.

서울에서 납쇠의 성격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첫째로 반정부음모의 주도자들이나 현집권자들이나 결코 갈라볼수 없는 같은 가증스러운 계급적본성의 체현자들이라는 인식, 그에 기초하여 반정부음모가 세상을 바로잡는 의로운 일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과 반정부음모에 끼여든 자기 의혹이었다. 그것은 반정부음모의 총지휘자인 류순정의 심부름으로 주도자의 하나인 김세균네 집에 갔다가 겪는 생활체험에서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서 서울로 올라온 납쇠의 후회와 량반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솟구쳐올라 자기가 끼여든 반정부음모에 대한 질은 의혹, 특히는 우중에 대한 못마땅한 경원의 감정을 체험한다.

서울에서의 성격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둘째로 류순정의 첩년의 딸을 위한 액백이로 꾸민 《보쌈》에 걸려 죽다살아난 사건과 그것을 계기로 점차 그 사건의 줄이 잡상으로 동방갑부가 된 무서운 음모군인 주룡갑에게 어어져 있고 원쑤 왜놈 사몽고로에게까지 잇닿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납쇠는 자기가 대감마님들의 정변에 끼울수 없는 사람이고 량반계급과는 화합할수 없다는것을 통감하며 주룡갑이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것이 아니라 부모를 죽이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한 진짜 원쑤이며 사몽고로와 같은 왜놈들이 그 모든 불행과 비극을 강요하는 원흉이고 나라와 동족을 삼키려는 철천지 원쑤라는것을 통절히 느끼게 된다. 왜놈과 반정의 주도자 잡상은 자기 리해관계로 하여 하나로 내통되어있는 원쑤라는 인식은 납쇠로 하여금 될수록 빨리 반정에서 벗어나서 종전의 자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계급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것이 제2편에 그려진 납쇠의 의식발전에서 이루어진 두번째 총화이다.

장편력사소설 《늙새바람》(상)은 이처럼 주인공 납쇠의 의식발전과정을 시대와 성격에 맞

게 생활적으로 전제와 축적이 있게 그림으로써 사상예술성이 보장된 주제의 인간학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작품은 주인공 납쇠의 성장과정을 따라가면서 16세기초 조선의 사회상을 생활적으로 깊이 알수 있게 하며 왜놈들이 막부의 지휘 밑에 삼포의 왜놈들을 리용하여 조선침략을 어떻게 준비하였으며 그 준비과정에 있었던 치떨리는 최악상을 치솟는 격분으로 보게 하는 산력사로 되었다. 동시에 작품은 량반통치배들은 나라와 겨레를 지킨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권욕과 치부욕에 환장이 되어 왜놈침략자들과도 내통한력사의 반동이며 나라와 동족을 지켜 싸운것은 천대받고 학대받는 상사람들이었다는것을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산력사로 인민사적건지에서 파악하게 하는 시대의 거울로 되었다.

장편력사소설 《늙새바람》(상)이 거둔 성과는 다음으로 지난 시기의 력사적사실이나 인민들의 생활을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그린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높은지성과 건전한 정서 현대적미감으로 하여 사건중심의 설화체를 좋아하지 않으며 인간체계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간결한 묘사를 요구한다.

여기에서 달성한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과거시 대상과 력사적사실, 생활모습을 사건중심의 설화체로 장황하게 도해한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생활묘사로 작품형상의 집약성과 간결성을 보장한것이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인공 납쇠의 의식발전과정을 사건적인 설화로 길게 늘어놓지 않고 집약적이고도 간결한 묘사를 통해서 실현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또한 시대상과 사회상을 개괄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 빚어지는 생활정황과 그속에서 겪는 인간의 심리세계를 그리는 방법으로 그 성격의 본질과 특질을 드러내면서 시대상과 사회상을 생활적으로 감득하게 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제1편에서 보면 시대와 사회상의 제시, 인물소개와 인간관계의 제시, 사건전개 등이 인물의 체험세계를 그리는 방법으로 실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장황한 설명과 군더더기가 없이 매우 간결하고 요령이 잡히게 그려지며 생활적으로 흥미있게 펼쳐진다. 그리하여 어디까지 심리묘사고 어디까지 환경묘사이며 어디까지 생활묘사인 지 하는 구분이 없이 하나로 덩어리지면서 묘사의 집중성과 립체성, 간결성을 보장하고있어 소설의 세계에 쉽게 이끌리게 되며 작품세계가 지루하지 않고 품위있게 그려진다.

작품의 서두에서 고향마을에 들어서는 우중이 2년만에 고향의 색다른 봄빛을 다시 체험하는 심리묘사의 실례만 상기하여도 그것을 알수 있다.

소설은 3절에서 보면 고향마을의 무르녹는 봄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느덧 우중의 짜릿한 감회의 세계에 대한 묘사로 들어가며 그 감정을 타고 지난 화창한 봄날 반정음모의 우두머리인 류순정의 집 문객량반들과 동소문밖 삼선평에 해돋이놀이에 갔다가 그곳에 불리워온 기생들속해서 우연히 알게 된 국아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간다. 국아의 거문고소리에 심취하여 고향집 대낮이 낮익은 사립문, 세상에 없는 부모들에 대한 그리움에 빠졌다가 거문고소리가 몇자 소스라쳐 깨어난 순간 놀란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국아의 시선과 부딪치던 그 잊을 수 없는 인연. 그것을 더듬는것을 통해서 국아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며 그것이 임금의 부패한 생활의 노리개로 복무하는 가흥청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개로 넘어간다.

보는바와 같이 어디까지 봄에 대한 자연묘사인지, 어디까지 우중의 심리묘사인지, 어디까지 인물소개와 사회상에 대한 묘사인지 구분이 없이 그것들이 능숙한 솜씨로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구경에는 인간세계를 그려내는데 집중됨으로써 2년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우중의 신변과 심정세계를 감칠맛이 나게 보여주는 작용을 하고있다.

17절에서 납쇠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헌집권자들과 반정음모자들, 왜놈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것인가를 주도면밀하게 타산해보는 주룽갑의 심리묘사를 통해서 반정음모가 벌어지고있는 당시 정세, 상층지배계급들의 움직임이 손금보듯이 알게 그린것도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이것을 보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내면세계 인간세계를 파고들면서 시대와 정세를 알게 함으로써 작품형상을 집약적으로 간결하게 그려내는 솜씨를 찾아볼수 있다.

납쇠의 구리몽둥이에 대한 이야기, 천개불의 치자나무에 대한 이야기, 엄둥이네의 서총포이야기 등도 생활세부적으로 그려지면서 인물의 성격적면모를 특징적으로 파악하게 할뿐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짜내어 등뼈를 꺾아먹고사는 연산군대의 극도로 몰락해진 사회상에 대한 긴 설명이 없이 그 학정의 진상을 현실적으로 통감하게 한다.

이처럼 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 내면심리세계를 그리며 파고드는 방법으로 시대적환경도 저간의 모든 사정도 알게 하는 소설적인 묘사의 특성을 솜씨있게 구사함으로써 제1편은 전반적으로 집약화되고 간결한 형상을 설득력있게 창조하고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현대적미감에 맞는 이 작품의 소설적인 묘사와 그 현대적풍격에 대하여 말한다면 또한 지루한 서두가 없이 우중의 고향행차로부터 시작하여 납쇠의 살인으로 사건을 긴장시켜 놓고 주요인물소개와 인간관계를 통해

사건이 발단되게 된 전말을 알게 한 짜임새를 그쳐 보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중이, 천개불, 표서방, 회영녀, 주룽갑, 수계시라, 사몽고로 등의 인물을 통해서 특히는 우중이가 아버지를 잃었으며 납쇠가 역시 아버지를 잃은 병진년의 그 가덕섬의 학살사건에 대한 이러저러한 체험적인 회상을 통해서 주인공 납쇠의 성품과 그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된 태력을 알게 한 형상솜씨 역시 작품형상의 립체성과 간결성을 보장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더우기 김서방에 대한 묘사, 천개불에 대한 묘사속에서 납쇠와 어린시절의 성품을 비껴냄으로써 주인공을 인간적인 바탕에서부터 깊이 파악하게 한것은 주인공을 그리는데서 사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많은 지면을 절약하게 하면서도 주인공에 대한 인상을 강화하고 작품형상의 밀도를 강화한요인으로 빛난다.

작품이 과거 력사적사실을 취급하면서도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력사소설로 될 성과는 다음으로 민족적인 특성을 고루한 것이 나지 않게 풍부하고 선명하게 구현한데 있다.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생활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리는것은 오늘의 현대생활을 그리는데서만 아니라 특히 과거 오랜 민족생활을 그리는데서 주요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력사적사건과 민족적인 색채가 짙은 과거생활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살리는것은 작품의 사상에 술적견인력을 강화하는데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

장편력사소설 《늑새바람》(상)이 민족적특성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구현함으로써 작품의 민족적이며 현대적풍격을 살린 경험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성과적인 측면으로 된다.

여기에서 유일한 경험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력사의 창조자들이며 력사의 주체인 인민들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인 성품과 생활을 뚜렷한 색채로 인상깊게 그린 점이다. 그것은 오랜 옛적부터 단일한 민족으로 집단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민족적인 성품으로 가꾸고 꽃피워온 그 정의를 사랑하고 사람다운 도리를 숭상해온 조선인민의 미덕을 인상깊게 형상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납쇠가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며 그 과정에 체험하는 내면세계에서 가슴뜨거운것을 느끼게 되는것은 바로 원수들의 불의에 정의로 맞서며 부모의 자식된 도리를 한다는것을 삶의 어길수 없는 신조로 인정하고 어짐없이 실천하는 행동거지에서 그것을 생활적으로 감득할수 있다.

납쇠의 아버지가 리생원이 비록 량반이기는 하지만 왜놈의 침략을 방지할데 대하여 임금에게 간한 《죄》로 가덕섬에서 귀양살이하는것을 관가의 눈을 피해가며 사심없이 도와준데서 읽을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정의감, 애국심, 인간된 도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로 민면히 이

어저 내려오는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 품성이다.
 또한 업둥이네가 남편이 역군으로 서울로 끌려갔다가 온신 못하게 다치고 남편 대신 물어야 할 서춤대포때문에 아들을 키우는 기쁨보다 차라리 딸을 가진 갈매를 부러워하는 눈물겨운 하소연을 가만히 듣고 가난한 살림에도 갈매가 외동딸의 설빔으로 만들어준 무명옷을 아껴 입고 농밀에 갇숙이 간수해오던것을 업둥이네 가공한 정상에 마음이 움직여 보탬하라고 주는 희영녀의 아름다운 소행과 그에 넘치는 인정 역시 우리 민족의 미풍 양속의 일단을 가슴후덥게 보여준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나누며 남의 불행을 덜고 의로운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몸을 돌보기 않고 도와주는 미풍은 늑쇠를 것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지켜주는 천개불이와 표서방의 형상에서 그리고 것처럼 험상궂고 거칠고 사나와보이는 외형에 대조되게 가슴에 굽이치는 따뜻한 인정세계와 곧은 도리, 같은 처지의 사람에 대한 동정과 왜놈원췌에 대한 뚫어넘치는 적개심으로 하여 오로지 늑쇠를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서슴없이 내대며 파옥 탈출하고자나서는 날치군의 형상에서 민족적인 성품으로 선명한 색채를 띠고 강조된다.

그와 반면에 작품에 그려진 관가와 랑반대감들의 집안에서 매국적인 잠상들인 배거북이나

주룡갑의 형상에서 드러나는 도덕과 세태풍속은 더러운 사심과 위선, 결발림, 고루함과 락후성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그리고 특히는 가리울것 가리우지 못하고 날차는 사몽고로를 비롯한 왜놈들의 형상에서 드러나는 짐승과 같은 사무라이 풍모와 기질, 미개한 행실은 끝없는 혐오물 자아낸다.

이처럼 작품이 과거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랑반지배계급과 왜놈들의 면모와 대조시키면서 색깔이 뚜렷이 드러나게 그린것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중심의 견지에서 민족적특성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구현함으로써 이룩한 성과로 된다.

이밖에도 작품은 작가의 시점에서 구사된 지문에서조차 어려운 한문자어휘를 쓴 약점은 있지만 어휘와 문체를 살리는데서 력사소설로서의 특성을 비교적 잘 살린것도 작품이 이룩한 뚜렷한 성과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작품이 거둔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이 밝혀준 력사물창작에 관한 주체적문예방침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살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작가의 첫 창작적열매로서 다음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확고한 조건으로 되며 우리의 사회주의적소설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하나의 경험으로 된다.

단 풍

한 정 규

강산이 푸를 때엔
 함께 푸르려 몰랐구나
 마가울 찬바람속에 붉게 타는 단풍아
 네 이리도 아름다운줄...

눈보라 겨울은 앞에 왔는데
 어느뇨 모르느뇨
 붉은 잎잎의
 진정 모르는 그 설레임은
 봄날에 돋은 잎이

한여름에 푸르려
 가을날에 자는거야 어찌랴만
 은혜로운 햇빛아래
 푸른 시절 더 한껏 푸르지 못한 아쉬움 있어
 늦가을 잎잎은 이리 타는가

너처럼 나도 불타리!
 지는 순간 마감까지
 햇빛 향해 붉게 타며
 뿌리내린 강산을 빛내는 단풍아
 아 내 마음아!

철산봉 외 1편

송찬웅

아득히 뻗은 산발마다
층층 다락을 펼쳤는가
산우에 첩첩 산이 솟은
무산의 철산봉 철산봉아!

너에겐 무성한 푸른 숲도
흐르는 옥계수도 없건만
어찌해 너의 재빛 산악이
이다지도 네 마음 끌어당기는가

산이 온통 쇠덩이로 덮인듯
너의 한량없는 그 무게
억만 재부의 그 깊이를
내 어이 다 헤아리라

아, 그래서 우리 수령님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몸소 너의 산정에 오르시여
철이 흐르는 산발을 바라보시며
보배산이라 불러주셨거니

못잊을 그 산정길을 걸으며
가슴뜨거이 새기노라

철전선의 앞장에 너를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과 당의 높은 뜻을

그 뜻을 안고
들끓는 쇠돌산아
너는 날마다 시간마다
김철에 숨결을 부어주는 생명선!

네가 끓어야 쇠물이 끓고
온 나라에 폭포처럼 쏟아지기에
땅을 빈드는 우리 광부들
너를 통채로 타고 앉아
무쇠같은 가슴으로 돌과구를 열어가거니

아, 철산봉 철산봉
너 조선의 보배산아!
활짝 열어헤쳐라
억년 품고있던 철의 보화들

나는 보노라
너의 매부리 한치한치 낮아질수록
철웃을 떨쳐입은 강대한 내 조국이
동방의 하늘가에 높이높이 솟아오르는것을!

내 마음엔 언제나 붉은 노을이

-조종공처녀의 노래-

두만강 저멀리
저녁노을 사라져도
내 마음엔 가득히
밤노을이 비껴와요

은빛인가 금빛인가
조종실의 신호불빛
집채같은 마광기들 한눈에 살피며
정광폭포 흐르는 소리 나는 들어요

산넘어 물건너 관을 타고 250리
정광이 흘러흘러 김철에 가닿으면
이 밤도 쇠물노을 곱게 피겠지...

아, 나는야 속삭이듯 노래불러요

노을아 노을아
김철의 쇠물노을아
그 어찌 용해공들만
너를 곱게 피운다하랴

잠모르는 무산땅에
이런 불야경의 밤이 있어
너 철의 도시 하늘가에
그리도 아름답게 피어나거니

두만강 저멀리
저녁노을 사라져도
아, 내 마음엔 언제나
쇠돌노을 붉게 붉게 피어올라요

흙 한삽 ! 외 1편

송 명 근

누구도 그저는 못지난다네
차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차 바꾸어타는 시간에도 달려오는
제련소건설장
손목시계 자주 들여다보며
출장길 바쁜 공무원도 뜨고가는 흙 한삽

손수 기른 패지를 물고온
성미 팔팔한 농장원아주머니
그냥 말려도
삽자루 찾아들고 나서네
흙 한삽 못뜨고야
송구해서 높은 굴뚝 어이 바라보랴고

들끓는 건설장이 걸음을 잡아
병사도 휴가배낭 단천땅에 풀었네
기다리는 고향길보다
당의 은덕 꽃피우는 전투장이
병사의 가슴엔 더욱 가까와
팔걸고 뛰여들이 흙 한삽!

적어두는 명단도
로력공수도 없건만
당이 부르는곳 두고는
발걸음 그저 지나칠줄 모르는
량심의 무게를
듬뿍듬뿍 덧엮어가는
아, 한삽의 흙이여 !

떠받들려 사노라

하늘이 빙그르
땅이 둥둥-
《어잇사 ! 》
경제선동은 평양의 이름난 배우들이
한번 추켜올리자
허양 뒀네 공훈세운 아바이

웅근 한해 계획을
반년이나 당겨서 끝냈다고
또 한번 《어잇사!》
꽃보라 꽃테프는 어깨에 감기고
안전모밑의 주름진 얼굴 환히 웃어도
이런 때면 절로 젖는 눈시울...

떠받들려 사노라 !
피눈물의 옛세상
무너지는 막장에 탄과 함께 묻히면

땅우에 무덤조차 못남겼던 탄부들이
천만길 땅속 아득히
세상의 최하층에 울던 탄부들이

떠받들려 사노라 !
땅밑에서 수고도 많다고
아껴주고, 내세워주고
비행사대우까지 베풀어주신
아버이사랑의 그 하늘우에...

하늘이 빙그르
땅이 둥둥-
몸이야 허공중 뗏지마는
마음이야 플라구 어림없지
지하천척 더 깊이 더 깊이 내려
내 조국을 떠받들 탄부아닌가 !

눈길 30리

김 송 도

밤사이 내린 눈이 길우에 쌓여서 교통을 마비시켜놓았다. 아침에도 눈이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직물공장건설지휘부로는 전화들이 설사이없이 날아들었다.

《…세멘트를 실은 차들이 눈속에 파묻혀 신고하고있습니다.》

《역에서 설비들을 실어와야겠는데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릅니까?》

《오늘 목재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 바랍니다.》

전화를 받고있는 시공참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번들거렸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한채 난처한 얼굴로 리찬수쪽을 바라보았다. 어떤 대답을 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찬수가 머리를 끄떡이자 거기서 힘을 얻은 시공참모는 전화통에다 대고 소리쳤다.

《여보, 무얼 그리 우물쭈물하오. 오늘 계획된 물동들은 무조건 끌어들이시오.》

방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시공참모동무, 각 현장에 알리시오. 모두 눈치는데 동원되라구말이요. 그리구 내 부탁이라고 하면서 군인민위원회에도 알리시오. 아무래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소.》

리찬수는 할 말을 다했다는듯 옷깃이에 걸린 습동복을 벗겨입으면서 밖으로 나갔다. 후리후리한 키, 딱 버그러진 어깨, 50줄에 금방 들어섰지만 아직도 그의 온몸에서는 젊음이 꿈틀거렸다.

리찬수는 벽쪽에 세워놓은 눈가래를 하나 집어들었다. 한창 일어서는 공장건물이며 우뚝 솟은 굴뚝이 아니라면 건설장도 알아볼수 없게 흰눈천지다. (에이, 눈도...이렇게 바쁜 때 내릴건 뭐람.)

이 눈때문에 정연하던 사업질서가 헝클어진것이다. 파장들은 사업조직을 다시 하고 지도원들은 계획던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어야 할것이다. 찬수는 이제라도 빨리 벗었으면 하는 근심스런 눈으로 눈송이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쉽사리 멎을 눈이 아니었다. 이때 하늘 중천에 떠서 저 멀리 산릉선너머로 오르내리는 삭도바가지들이 뽀얀 눈발속에 아련히 바라보였다.

사람도, 자동차도 움직일수 없는 이 눈천지에서 억세게 숨을 쉬며 자유롭게 움직이고있는것은 오직 저 삭도뿐인가싶었다. 찬수는 한동안 부러운 눈으로 삭도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키고는 자동차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디선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날아왔다. 건설장앞 넓은 공지쪽에서 아이들이 패를 지어 눈싸움을 하고있었다.

한패는 공격하고 한패는 방어를 하고있다.

눈덩이들이 《적진》을 향해 비발치듯 오고갔다.

《만세 !》 함성까지 터져오른다.

찬수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피어났다.

(눈이 저 애들에게만은 혜택을 베풀었군...) 저 애들처럼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눈속에 파묻혀 뛰놀았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찬수에게는 이 눈이 하나의 커다란 불안으로 되고있다. 우선 직물공장건설장에 오늘 계획된 물동을 끌어들이야 했다.

그는 이 직물공장건설 총책임자였다.

석달전 군당집행위원회에서는 군내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푸는데서 매우 중요한 직물공장건설 총지휘를 찬수에게 위임했었다.

참말로 리찬수는 요즘 젊음이 되살아난듯 이 직물공장건설장과 함께 숨쉬고있다. 속이 타서 돌아가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또 웃기도 하며 ...

찬수가 자동차길에 다달으자 저 아래쪽에서 눈가래를 멘 사람들이 밀려오고있었다. 눈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다.

각 공장, 기업소에서 동원된 사람들임을 찬수는 대뜸 알아보았다. 앞쪽 길변쪽에서는 녀인들이 웃고 떠들며 밀려오고있었다.

(저건 녀자옷공장 사람들인가?)

그 녀인들은 찬수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아니 위원장동지-》

녀인들속에 파묻혔던 뚱뚱한 사람이 찬수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는 군상업관리소 소장이였다.

《아 상업관리소도 〈출동〉했소?》

《우린 〈녀자부대〉긴 하지만 인민위원회에서 전화가 오기전에 출동했는걸요...》

소장은 우스개소리를 하며 껄껄 웃었다.

《어쨌든 어떻게 건설장을 지원해주니 고맙소.》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긴 아래쪽에서 또 한무리의 사람들이 밀려왔다. 리사무장이 인솔하는 인민반아주머니들도 섞여있었다.

《그래 요새 주민공급사업은 잘되오?》

찬수는 요사이 미처 상업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먼저 가슴에 마저왔다.

《예! 요새 온실에서 거둔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

고있지요.》

소정은 작년 가을에 온천을 리용하여 건설한 온실에서 판 오이와 쑥갓을 주민들에게 공급한 정형을 자랑처럼 꺼내놓았다.

《...이제 건설장에두 오이를 한차 실어보내겠습니다.》

《고마운 일이요.》

찬수는 더없이 기뻐다. 효성이 지극한 소녀가 어머니의 병을 꼭 고치기 위해서 엄동설한에 참외를 따왔다는 꿈같은 옛말이 오늘은 현실로 되지 않았는가.

참말로 좋은 세상이다.

어쩐지 평평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마치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꽃보라처럼 느껴졌다. 이런 눈을 맞으며 천리고 만리고 걷고만 싶은 충동이 찬수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이었다.

정거장쪽으로 나가는 굽인돌이길에서 찬수와 소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벌써 눈치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끔 붐비며 떠들썩했다. 불도젤이 눈을 밀어제끼며 부르릉거리고 자동차들이 눈을 싣고 오고가고있다. 찬수는 눈치는 사람들 속에 끼여들었다. 한참 눈을 치고나니 찬수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이마에는 땀이 내뿜었다.

찬수가 잠시 허리를 펴고 쉬고있느라니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인민반에서 나온 아주머니들이 눈을 치고있었다. 그때 찬수의 눈길은 후렁후렁한 반외투를 입고 부지런히 일하는 한 아주머니에게 쏠렸다.

(웃이 너무 크구만. 피복공장에 나가봐야겠군! ...)

그는 주부다운 눈으로 녀인들이 입은 옷의 색깔이며 모양새들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녀인들의 입에서는 실사없이 세말사가 터져나왔다. 자기네 마을 호랑령감의 막내아들이 대학을 아와 어느 큰 기계공장의 기사로 배치받아서 우쭐해 다니는 이야기, 어느집 세대주가 일을 잘해서 훈장을 탄 이야기, 누구네 60뿔생일상이야기, 상점에 색깔고운 비닐 바께쓰가 많이 들어왔다는 등...

찬수의 입가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해학적이면서도 수다스런 녀인들의 이야기속에는 생활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맥맥히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만큼 그대로의 진실이 담겨져있는 것이다. 찬수가 눈가래를 쥐고 다시 허리를 굽혔을 때 얼핏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는 팔을 놀리며 귀를 도사렸다.

《아니 영천물고기상점에 고기가 떨어졌다는게 참말이유.》

《글쎄 물고기 좋아하는 우리 시동생이 와서 가보니까 매대가 비었더군요...》

《...》

찬수는 그 녀인들의 말이 믿어지질 않았다. 이군에서 제일 흥성거리고 일 잘하는 상점이 아닌가. 신문에도 여러번 나고 상점책임자는 경험토론까지 한 사실을 찬수는 기억하고있었다. 그럴리 없겠는데... 찬수는 머리를 흔들었다.

(어쨌든 한번 알아보긴 해야겠군...)

찬수는 상점 물고기 이야기속에 그이상 더 파묻혀있을 여유가 없었다.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지도원이 헐레벌떡 뛰어왔던 것이다.

《여기 계시는걸 겨우 찾았습니다.》

지도원은 털모자를 벗더니 이마에 내뿜힌 땀을 씻었다.

《무슨 일이요... 음... 도시경영일군협의회때뭡누이 지? ...》

《예...》

지도원은 찬수가 이렇게 복잡한가운데서도 군인민위원회 위사업계획에 반영된 회의날자를 잊어먹지 않고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라도 한듯 눈이 둥그래졌다.

찬수는 눈가래를 천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는 갑자기 쏟아져내린 눈으로 인하여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군내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의 긴급협의회를 포치했다. 이제 한시간후이면 찬수는 이 긴급협의회에 참가해야 한다.

이런 때는 몸을 둘로 갈라놓는 재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찬수에게는 이 두 협의회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두 협의회가 겹쳐기였다. 그때 찬수에게는 번쩍-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지도원동무, 도시경영일군협의회에서는 시범단 위방식상학이 있지 않소.》

《예, 협의회끝에 송평건물관리반에서 방식상학이 세시간 예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도시경영일군협의회는 방식상학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의 긴급협의회를 먼저 끝내구 곧장 도시경영일군협의회에 참가할수 있게말이요.》

지도원은 송구한 웃음을 얼굴에 띠웠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장동지가 건설사업이 바쁘기때문에...》

《참. 담당부위원장동무의 몸은 좀 어떻답니까... 많이 완쾌되었다니 기쁘요. 나두 료양소에 편지를 하겠소. 동무들도 자주 편지를 해주요.》

지도원은 날개가 돋힌듯 달려갔다.

X

군내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의 긴급협의회는 물공장건설현장사무실에서 열렸다. 방 한가운데 놓인 철관난로는 이글거리면서 열기를 확확 뿜었다.

지배인들은 눈사태에 대처하여 자기네들이 취한 비상대책정형을 찬수에게 보고했다. 찬수는 머리를 수긋하고 사업일지우에 부지런히 펜을 놀렸다. 지금 그의 머리속에서는 크고작은 문제로부터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군내사업이 엉키어 돌아갔다. 찬수는 자기 보고를 끝내고 자리에 방금 앉은 배전소 소장을 다시 불렀다. 그는 찬수의 입에서무슨 지적이 나올것 같이 긴장해서 찬수를 바라보았다.

《…광산로동자구 두개 인민반에 불이 오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소…》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는 얼굴이 가름한 짧은 소장은 눈이 둥그래졌다. 인민반세대들의 전기고장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민수용 전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제 텔레비죤 방영순서를 보니까 오늘 좋은 영화를 한하는데 그때까지 고장을 퇴치할수 있겠소?…》

《예-시급히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죤인데 전기가 고장 나면 그 애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의견이 많겠소.…》

짧은 소장은 후-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기 사업일지에다 《텔레비, 이이들… 하치 않은 일이라도 놓치지 말것-》이라고 적어놓았다. 찬수는 지배인들의 사업정형보고에서 뜻밖에 닥친 자연기후로 인하여 생산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것을 간파했다. 조건이 좋을 때는 생산이 올라가고 나쁠 때는 떨어지는 생산의 파동성

-이것이야 말로 루기적인 경향이다. 더우기 많은 사람들이 자연기후조건에 빙자하면서 웅당 그럴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것이 찬수의 기분을 흐리게했다. 지금 직물공장에 새로 도입하려는 열풍식건조로가 완만하게 진척되고있는것도 역시 사람들이 그런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일하기때문이었다. 협의회를 통하여 이것을 깨야 한다. 협의회는 찬수에게 더욱 뚜렷해졌다.

바로 그때 상업관리소 소장이 자리에서 성큼 일어났다. 찬수는 조용히 머리를 들어 성급하게 사업일지를 뒤적이고있는 소장의 안정끼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 관리소 랭동기운전공 한 동무가 직물공장건설 기술혁신돌격대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소문을 들어보니 열풍식건조로가 승산이 없는것 같은데 우리 기술자동무를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소장은 마치 지지를 받으려는듯 도수높은 안경알을 번뜩이며 장내를 휘돌러보았다.

《…우린 랭동고를 하나 더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관리소에서 기술이 제일 높은 그 동무가 있어야 랭동기잘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

름철에도 매일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주민들에게 공급할수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느냐는듯 소장은 찬수쪽을 올려다보면서 멧적은듯이 입을 헤벌쭉하며 싱겁게 웃었다.

《…사실 터놓고 말해서 그 동무는 차갑게 만드는 기술자가 열풍로같이 뜨겁게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안에서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의 해학이 담긴 어조에서 타산밖은 상업일군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기때문이었다.

소장은 상업부문에서 다른 도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수완이 좋고 일욕심이 많은 그가 나서기만하면 고양이볼도 구해온다고 했다.

《상업에서는 저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

누구라 없이 소장을 두고 칭찬하는 말이였다. 찬수도 역시 이 말을 긍정하고있다. 소장은 인정미도 있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광산로동자구의 한 오랜 광부가 제대되어 돌아안 아들이 잔치상에 문어를 놓고싶어한다는 소문을 듣고 문어를 구해가지고 먼 산길을 걸어오다가 길을 헛들어 밤새껏 고생한 일도 있었다.

하긴 그는 사업에서도 종종 《길을 헛갈리는》때가 없지 않았다. 조건이 좋을 때 매상고를 부쩍 올려야 한다고하면서 작년 여름 물고기를 타산없이 차판으로 끌어들여 미처 처리하지 못해서 얼마나 찼찼매고 돌아갔던가. 아마 그때는 자동차바퀴가 다 닳도록 저 험한 시루봉령길 30리를 앞집 마실가듯 하루가 멀다하게 오고갔을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랭동고를 큼직하게 더 짓겠다고 결심했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혹시 자기네 사람을 빼우지 않을가고 항상 근심하던 소장은 새로 건설한 랭장고를 핑계로 동원된 사람을 데려가려는것이였다. 상업관리소 소장은 벗어진 이마에서 번들거리는 땀을 문지르면서 마지막 으로 이렇게 말했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직물공장건설을 성의껏 지원하고있는 때에 한사람 동원시킨것마저 데려가려다고 욕할줄 알면서도 사정이 너무 딱해서 위원장동지에게 제기하는겁니다. 하긴 직물공장 열풍식건조로건설이 승산이 없을바에야…》

그때야 비로소 찬수는 가볍게 떨구었던 머리를 번쩍 추켜들었다. 그의 두눈에서는 그 어떤 결심이 번뜩이고 지나갔다.

《기술혁신돌격대 책임자동무! -》

한쪽 구석에서 몸이 갱빳한 사람이 일어났다. 기계공장 설계실기사인 그는 지금 기술혁신돌격대를 책임지고있었다.

사실 찬수는 기술자들을 통하여 직물공장에 새로운 열풍식건조로를 받아들이면 생산성을 3배로 높이면서 수백톤의 무연탄을 절약하게 되고 전력 소비기준도 낮출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매혹된 찬수는 그 새로운 열풍식건조로를 받아들일것을 결심하고 군내 공장, 기업소의 유능한 기술자들로 기술혁신돌격대를 조직했던것이다.

《열풍식건조로 실험을 언제 또 하겠소…오늘 할 수 없겠소?》

《…》

기사는 자신이 없는지 인차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직물공정건설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내 결심은 열풍식건조로가 성공할 때까지 백번이고 천번이고 실험을 해보자는거요-》

협의회과정에서 제기된 그 모든 의견들에 대한 대답이더라도 한듯 찬수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크게 울렸다. 그제야 비로소 기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기술혁신돌격대는 실패만 계속 하다나니까 귀한 자재랑비와 시간랑비의 책임앞에 어차피 서야 합니다. 그러니 일부 동무들은 이리다간 무슨 일을 치겠다구 벌써 주저앉은 동무들도 있습니다. 실패의 후과가 두려워진것입니다.…»

순간 찬수의 두눈에서는 불빛이 번쩍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 높이 머리를 추켜들었다.

《좋소 그 실패의 책임은 내가 지겠소.》 갑자기 놀랍게 치른 눈들이 찬수에게로 일시에 쏠렸다. 외면에 찬 눈, 공감하는 눈, 겁질린 눈…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 책임이 두렵지 않은건 아니요… 그러나 나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만 그 책임에 대하여 말하는게 아니요. 한 평범한 당원으로서 공민으로서 말하오만 나라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일이라면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무슨 책임인들 못지겠소.》

숨소리조차 죽인 방안에는 찬수의 목소리로 꽉 차있는듯싶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엿한 자기 희생적인 감정이 조용히 떠올랐다. 사람들은 스스로 머리를 떨구었다. 가슴이 후더워오는듯…

마치 자기를 잃어버리더라도 한것처럼 까닥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X

지금 찬수는 건설현장지휘부의 책상앞에 앉아서 오늘 진행한 사업정형을 하나하나 총화해보고 있다.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의 긴급협의회와 군 도시경영일군협의회… 이 두 협의회의에서만도 얼마나 절박하고 큰 문제들이 제기되었던가.

찬수는 앞으로 취해야 할 대책적문제들에 대하여 사업일지우에 또박또박 적어나갔다.

《관을 해결할것, 세멘트문제, 열풍식건조로 실험을 근기있게 밀고나갈것.》

이쯤하면 오늘 하루일은 기본적으로 총화되고 정리된셈이었다. 찬수는 잠시 빠진점이 없는가를 돌이켜보았다. 갑자기 찬수에게는 오늘 아침 눈치러

나왔던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던 이야기가 되살아났다. 입이 헤뜬 녀인들의 말이긴 하지만 그저 스쳐버릴수 없는 문제가 있는것이다. 오전에 있는 긴급협의회때 상업관리소장이 동원된 자기네 사람을 도로 달라는바람에 찬수는 그만 이 문제를 놓치고 말았었다.

(아주 중요한걸 빼놓을뻔했군!…)

찬수는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교환이요. 상업관리소 소장실에 좀 주오… 나오지 않는다…그럼 관리소 경비실에 대오-》

붕-붕거리는 호출신호에 뒤이어 석침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상업관리소입니다.》

《군인민위원회 리찬수입니다.》

찬수를 알아본듯 저쪽에서 대답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업과장입니다.》

《한가지 알아볼게 있어서 그러오… 이제 설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영천물고기상점에 물고기가 떨어졌다는게 사실 이요?…》

《예… 눈때문에 길이 막혀 미처 물고기를 실어오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눈이 일을 저질러놓은것이다.

물고기차가 읍까지 오자면 30리 시루봉령길을 넘어와야 한다. 보나마나 그 물고기차가 평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있을것이다.

《그래 상업관리소에서는 물고기를 실어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소?》

찬수의 어성은 이시간히 높아졌다.

《예, 우리 소장동무가 대책을 취하려 시루봉을 넘어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았소-》

찬수는 수화기를 놓았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뒤집을 진채 방안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물고기라… 물론 그것은 큰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가 상점에 미처 가닿지 못한것은 결코 눈이 왔다는 자연 재해때문만이 아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의 심장에 어떤 피가 끓고있는가에 있다. 더운가? 차거운가?…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찬수는 방한가운데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두눈엔 그 어떤 단호한 빛이 어렸다. 이윽하여 그는 옷걸이에서 털모자와 솜옷을 벗겨들고 밖으로 나갔다. 흰눈에 정갈하게 씻긴 깨끗하고 짜릿한 공기가 가슴속 깊이까지 흘러들었다. 그가 마당으로 나서자 기다렸던듯싶게 승용차가 그의 옆에 와 멎었다.

《어디로 가잡니까?》

운전사는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시루봉으로 가지요-》

찬수는 차에 올랐다. 갑자기 시루봉에는 어째서

가느냐는듯 운전사의 두눈은 휘둥그레졌다.

《물고기를 싣고오던 차가 눈에 박혀 서있다고 하오.》

《...》

운전사는 더 묻지 않았다. 찬수의 심중한 안색에서 그 무엇인가를 직감했다.

승용차는 길우로 스스럼없이 미끄러져갔다. 차창 밖으로는 흰눈에 덮인 거리가 저녁 어스름에 묻혀들어 고요히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공원의 의자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속삭이고있는 처녀와 총각이 시야에 확 안겼다가 획 스쳐지나갔다.

《에이-이런 겨울날에 춥지도 않은가?》

심심해났는지 운전사는 이렇게 중얼거리고서 빙시 웃었다.

《동무한테두 저런 때가 있었겠는데 이때 चु슴데-》

찬수는 운전사의 통조에 인차 응하였다.

《글쎄요. 난 봄에 약혼을 했다가 아주 늦은 여름에 잔치를 해놔서 더운지 추운지 잘 모르는 걸요.》

《허허...얼마나 좋은때요. 나두 저런 때가 있었겠는데 잘 생각나지 않소. 전쟁판에서 흘러보냈으니까.》

찬수는 불타는 고지우에지 흘러보낸 자기의 청춘 시절은 더듬어보았다. 얼마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자기의 고귀한 삶과 행복을 오늘을 위해서 스스럼없이 바쳤던가. 따뜻하고 다정한 속삭임은 없을지 언정 참말로 그것은 조국을 위해서 바친 청춘,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가장 값높은 사랑이었다.

《바로 저 젊은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지...》

찬수는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겠는데-》

이렇게 운전사는 찬수의 말을 되받았다.

《모르면 어쩌오.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걸 보는게 더 좋지 않소-》

찬수의 얼굴에서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얼마나 가슴 흐뭇한 겨울밤인가. 단지 흰눈이 주는 정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온 심장을 바치려는 열망이 주는 흥분이였다. 어쩐지 찬수의 가슴은 후터워졌다. 갑자기 승용차는 길게 가로 누운 차단봉앞에서 급정거했다. 그 차단봉에는 도로관리원이 써붙인듯 《령길이 막혔음. 차 운행못함》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전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동무는 되돌아가오. 어차피 나는 이 시루봉을 넘어야 할 사람이니까.》

찬수는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면서 차문을 열었다.

《아니 어떻게 이 밤중에 령길을 넘는다고 그러니

까.》

운전사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찬수의 앞을 성급히 가로막았다.

《상점에 고기가 도착하지 못해서 설날아침 주민들의 식탁에 고기반찬이 오르지 못하겠는데 어찌 그걸 알구야 가만있겠소.》

《그렇지 않아두 다른 일에 바쁜데 사람들의 식탁까지 걱정하겠습니까.》

《그러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요.》

찬수의 목소리는 저력있게 울렸다.

그 말은 직위나 공명에 대한 울림이 아니였다.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군》의 소박한 목소리였던것이다. 운전사는 한자리에 멍하니 선채 흰눈을 밟으며 걸어가는 찬수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는 정신을 차린듯 이렇게 소리쳤다.

《차를 건사하구 내 곧 따라가겠습 니다.》

X

흰눈속에 묻힌 령길은 길고 험했다.

예전같으면 지금쯤은 집에 들어가 딸애의 손목을 잡고 거리를 거닐고 난 뒤였을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큰눈으로 하여 오늘은 이렇게 늦도록 밤길을 걸지 않으면 안되였다. 문득 찬수에게는 집생각이 났다. 그와 함께 밝게 웃는 딸애의 얼굴도 떠올랐다. 찬수가 극진히 사랑하는 막내딸이 있다. 간혹 밤늦게라도 집에 들어가면 제일먼저 딸애의 방문부터 열어보는 찬수였다. 래년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농촌청년본조로 나가겠다고 하는 딸이다. 찬수의 입가에서는 대견스런 미소가 피어났다. 그러나 집과 딸에 대한 이 따뜻한 생각마저 찬수에게 오래 머물러있을수 없었다.

날카로운 바위벼랑을 끼고 30리...

찬수는 무엇인가 발에 채여 몇번이나 눈속에 나딩굴었는지 모른다. 그가 하얀 눈사람이 되여 시루봉밑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조그마한 려관에 도착했을 때는 밤11시가 거의 되였을 때였다. 려관마당안에는 자동차 한대가 서있다. 차번호를 보니 상업관리소 랑동차가 문명하였다. 려관의 경비실인듯한 조그마한 창문에는 불이 환히 켜져있다. 찬수는 곧 그 방으로 찾아들어갔다.

《아니, 위원장동지가 웬 일이십니까.》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있던 상업관리소 소장은 방안으로 불쑥 들어서는 찬수를 보자 두눈을 놀랍게 치떴다. 방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서 들어와 몸을 좀 녹이십시오.》

소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찬수를 아래목으로 이끌었다.

《무슨일때문에 이렇게 밤길을 다 떠나셨습니까?》

소장은 어리둥절하여 찬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동무네 물고기차가 이 령말에 서있다가 길을 떠났소-》

《예?!》

소장은 자기 귀를 의심하듯 멍해졌다.

《그래 물고기차는 언제 움직이겠소.》

찬수가 이렇게 물어서야 소장은 분명 위원장이 물고기때문에 령길을 넘어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령동차운전사며 인수원이며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송구스러운듯 몸둘바를 몰라했다.

《사흘전에는 차가 움직일것 같지 못합니다.》

소장의 대답에 찬수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는 바람에 씻긴듯 사라졌다.

《…내가 도로시설에다 길을 열어달라구 몇번이나 전화했는데 아직 사흘이나 더 있어야 된답니다.》

소장은 하소연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이거 길이 막히니까 우린 정말 야단입니다.》

《그래 동무네는 어떤 대책을 세웠소-》

《할수없이 고기는 이 근처에다 넘기거루했습니다. 물고기배정계획이 여기는 이미 끝났지만 다음차가 인차 오겠는데 한차쯤이야 뭐합니까? 눈이 온덕택에 여기 사람들이나 실컷 곱배길 하라지요 뭐…》

그는 자기 마음은 이렇게 넓다는듯 자랑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게 세웠다는 대책의 전부요?-》

엄해지는 찬수의 눈길에 소장은 서리라도 맞은듯 시들해졌다. 일순간 찬수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뜨거운것이 가슴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찬수는 입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격렬한 감정을 애써 짓눌러버렸다. 단지 그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않을것이고 그렇게밖에는 일처리를 하지 않을것이라는것만은 말하고 싶었다. 몇순간 침묵이 흘렀다.

《상점에서 고기를 떨군지 며칠이나 되오?-》

벌써 두번씩이나 곱씹고있는 찬수의 물음이었다.

《이틀째입니다.》

소장은 시들하게 대답하였다.

《그럼 아직도 삼일은 차가 움직이지 못하겠으니 까 주민들에게 설에도 물고기를 공급하지 못하겠구만.》

《설날아침 상에 물고기쯤 오르지 못한다구 뭐 큰 일나겠습니까. 있다가도 떨어지는게 상점물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무 오늘 오전협의회에서 물고기를 주민들에게 매일 공급하겠다고 동원된 령동기운전공까지 달라고 하지 않았소?》

소장의 말투에 찬수는 어지간히 기분이 상했다. 어째서 매대에 물건을 떨구는것쯤을 레사로운 일로 생각하는가.

찬수는 그 무엇인가 혼자소리처럼 웅얼거리며 아

픔을 느끼듯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진정 아픔을 느끼고있다. 건설장사업, 협의회…

자기 체면이 깎이우는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뛰어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왜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가. 이것이 요령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 찬수의 얼굴은 확 달아올랐다. 부끄러워졌다. 방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상점들에서 간혹 생기는 일인데 그래두 우리 군 상점들은 괜찮은편입니다.》

소장은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느끼지 못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변명했다. 게다가 얼굴에는 자만기가 섞인 웃음이 떠돌고있었다. 찬수는 속에서 갑자기 화가 울컥 치밀어오르는것을 겨우 눌러버렸다. 꼭 다문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찬수는 천천히 소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안되겠소. 그 물고기를 등짐으로라도 날라가야겠소!-》

《예?!…》

놀란 부르짖음소리가 동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위원장이 자기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소장은 자기 귀를 의심하듯 멍해졌다.

찬수는 방바닥에 놓았던 털모자를 집어들며 밖으로 나갈 차비를 했다.

《위원장동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30리 눈길 이 가까운줄 아십니까? 무슨 수로 고기를 등짐으로 나르단말니까?-》

소장은 찬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르짖었다. 등짐을 지겠다고 밖으로 뚝뚝뚝 나가려는 찬수가 너무도 억지스러웠다. 찬수도 지금 자기가 사리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등짐으로라도 물고기를 날라다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기풍이 소장뿐만아니라 찬수자신에게도 필요한것이다.

《…비판을 해두 이걸 너무 하십니다. 차라리 매회 치는게 낫지 이거야 어디 견디겠습니까?》

소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부르짖었다.

《물고기를 등짐으로 날라가자는게 동무를 비판하기 위해선줄 아오?…》

찬수의 두눈에서는 불빛같은것이 번쩍했다. 그 눈빛이 가당으면 돌덩이라도 녹여낼것만 같았다.

《…그런 비판은 백번이 아니라 천번을 받아도 좋소… 푸짐한 식탁에 마주앉은 인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때 제일 기뻐하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간직할 일군이라면 어떻게 그럴수 있는가말이요. 30리밖에 있는 물고기마저 큰눈이 왔다고 상점매대에 올려놓지 못하는 일군이 무슨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겠소…》

《…》

《소장동무! 선반공이 한번 실수를 해서 오작품을 내면 다시 정품을 깎아 실수를 보상할수 있지만 나나 동부가 한번 실수를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단말이요…》

찬수의 목소리는 어느때없이 강하게 울렸다.

《...》

《바로 그렇기때문에 등짐으로라도 고기를 날라야 한다는거요...》

뜨겁게 울리는 찬수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푹 떨군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숨소리하나 들리지 않았다.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자신들의 의무에 대하여 것처럼 가슴뜨겁게 생각해본적은 아마도 오늘이 처음일런지도 몰랐다. 그제서야 비로소 찬수가 말한 이틀간의 죄책이 무엇이었던가를 소장도 깊이 깨달은것 같았다.

《소장동무는 30리 눈길이 멀다고 했소.

그러니 멀기만한것이 아니요. 조건이 좋을 때엔 이 시루봉령길 30리를 하루가 멀다하게 다니던 소장동무가 아니요. 그러니 결코 굶은돌이도 있고 눈도 많이 쌓여있기때문에 먼길이 아니란말이요. 그렇다고 한 서너시간쯤 걸으면 끝나는 길도 아니요. 인민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 티없이 깨끗하지 못하면 일생을 걸어도 다 가지 못할수도 있는 길이요-》

찬수는 할 말을 다 했다는듯 모자를 푹 눌러쓰며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간다. ...먼저 밖으로 나온 찬수는 마당가에서 무르춤 걸음을 멈추었다. 활활 달아오르는 얼굴을 식혀보려고 허리를 굽혀 눈을 움켜쥐려던 그는 그대로 굳어지고말았다. 눈우에 찍힌 발구자리를 발견했던것이다. 순간 할구로 물고기를 나룰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흥분하여 굶었던 허리를 쭉-펴면서 일어난 찬수는 또다시 그대로 굳어졌다. 그의 귀에는 이상스럽게 《쓰르릉... 쓰르릉...》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기때문이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더라?...

잠시 생각을 뒤굴리던 찬수는 그 소리가 바로 군소재지 운봉광산 선광장에서 시루봉넘어 이곳역으로 광석을 운반하는 삭도가 흘러가는 소리임을 알아차렸다.

《아-삭도! -》

찬수는 숨이 킁-막히는것 같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환성을 지르며 뒤따라나온 소장의 팔꿈치를 움켜잡았다.

《소장동무! 저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장은 저도 앞쪽만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았다.

《...귀를 강구어 들소. 삭도소리가 들리지- 거기다 고지를 실어나릅시다-》

《하-그저 ...참》

소장은 그제서야 삭도소리를 들었다.

그 역시 인차 흥분했다.

《위원장동지는 눈도 밝습니다. 아까 대낮에 우린 산등성이를 타고넘으면서도 삭도바가지를 보지 못했거던요-》

소장은 찬수가神通한 눈을 가지고있다는듯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삭도가 흘러가는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참말로 영광스러운 당의 뜻으로 숨쉬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눈이 있으며 자기자 가는 앞길에 가로막힌 장벽도 허물어버리는 불가항력의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이 생활의 진리를 온몸, 온심장으로 느끼기까지 이제 나는 이 눈길 30리가 아닌 얼마만한 길을 더 걸어야 할것인가?)

《소장동무! 삭도운전실에 가봅시다.》

찬수는 소장을 잡아끌었다.

《예! 그럼시다-》

두 사람은 무릎까지 푹푹-빠지는 눈을 헤치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발밑에서 눈뚫히는 뾰드득- 소리가 한결 더 기분을 돋구었다. 눈내리는 밤의 차고 신선한 공기가 가슴속으로 마구 흘러들었다.

마음이 한결 더 맑고 깨끗해지는듯싶었다. 문득 찬수에게는 멀리로 흘러간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찌그려진 판자집, 문턱에 앉아 쪼르북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일나간 엄마를 기다리며 하늘에서 끝없이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이 흰쌀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가싶던 그 시절이 되살아났다. 바로 그 눈물겹던 어린시절의 꿈이 오늘은 현실로 되었다. 삭도를 타고 물고기들이 날아간다. 하늘에서는 바다에서 펄펄 뛰던 물고기가 집집으로 쏟아져내린다. 그것은 결코 꿈이거나 환상이 아니였다.

지금 찬수는 어린시절의 꿈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눈덮인 밤길을 걷고있지 않는가. 이런 밤이라면 기운이 진하도록 걷고 또 걸어가고만싶어졌다.

《위원장동지! 눈길 30리가 그저 범상한 길이 아니었구만요-》

문득 소장은 생각깊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

찬수는 대답대신 그저 빙그레 웃었다.

참으로 눈길 30리는 시간과 길이, 수학적개념으로만 표시할수 없는 길이였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다해도 걸어갈수 없는 먼길이였고, 어떤 사람은 단숨에 갈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찬수와 소장은 지금 그 길을 함께 걷고있는것이였다. 깨끗한 흰눈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곧게 찍혀져나갔다.

발표되지 못한 실화원고

장기성

얼마전 신평군에 취재나갔던 나는 러관으로 찾아온 스무살안팎의 한 문학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옆집에 사는 러관접수원을 통해 작가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낭간이마에 눈망울이 류달리 새까맣고 송곳이우에 셋하얀 덧이가 나 첫눈에 호감이 가는 청년이었다.

이고장의 온화하고 고르로운 말씨와는 구별되는 그의 억양을 통하여 나는 묻지 않고도 그가 일본에서 귀국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마디 인사말을 주고받은 다음 나는 문학청년들을 만나면 흔히 그러듯 작품을 써온게 있는가고 물었다.

《예 한편 가져왔습니다.》

청년은 기다렸던듯 들고온 삼면차크가방에서 원고를 꺼내놓았다. 얼핏 눈짐작에 매수가 그리 많지 않은 원고였다.

《실화문학입니다.》

청년은 잠시 무엇인가 바재이는 기색을 보이다가 눈길을 떨군채 말을 계속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원고는 편집부에 올려보냈다가 되돌아온것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편집부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단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검고 빛나는 그 인상적인 눈을 들어 나를 마주보았다. 그 눈매에는 자기 창작품에 대한 그 어떤 확신과 반표하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어려있는듯했다.

《제가 조국의 품에 안겨 쓴 첫 작품이고 또 지금까지 글을 써보던중 그 중자나 소재에 있어서 제일 흥분되어 쓴 글인데 글썄...》

편집부에 대한 청년의 불감은 이만저만한것이 아

닌상싶었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이 애송이 문학청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일줄 모르는것인가?

나는 편집부에서 어떤 의견이 제기되었가 물으려다가 우선 작품을 본 다음에 듣기로 작정하고 원고를 집어들었다.

실화문학

삼촌

남현철

순식간에 눈섭에 성애가 하얗게 불리는 맵짠 날이었다.

군병원 수술실앞마당은 그 무슨 군중집회라도 있는듯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설레이었다.

수술실에서는 뜻밖의 일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일곱살짜리 한 소녀에 대한 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되고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박명야라고 했다. 소녀는 유동세멘트공장 노동자의 딸이었다.

지금 소녀의 아버지 박응식은 안해와 함께 수술실 전실 창가에 서서 문밖에서 설레이는 사람들-저마다 자기의 피부를 명야에게 주겠다고 앞을 다투는 사람들을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고있었다.

한직장사람들과 이웃들도 많지만 전혀 낯모를 사람들이 더 많았다.

꿈인가싶었다. 우리 명야가 뭐가 되어서 무슨 관제가 있어서 저들이 저렇게... 일본에 살다가 얼마전에 조국의 품에 안긴 그에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며 문앞까지 다가들어왔다.

그는 문을 쿵쿵 두드리며 소리를 쳤다.

《의사선생님, 문을 열어주세요. 내 그 애 삼촌이

왔습니다. 출장 갔다가 금방... 어서 잠깐 열어주세요.》

근심과 불안, 다급함이 한껏 서린 목소리였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절절하고 절박했던지 바람벽처럼 끄덕않던 의사가 문걸쇠를 벗겨주었다.

그가 들어올 때 하마트면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할번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문어 들어오려는것을 문지기 의사는 본의 아닌 신경질을 부리며 완력으로 겨우 밀막았다.

대기실에 들어선 그 사람은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겸 사의를 표시했다. 했으나 박응식부부 쪽은 덤덤히 한번 스쳐볼뿐 아무런 아는 기색도 나타내지 않았다.

박응식부부의 의아한 두 시선과 의사의 어리둥절해진 시선이 순순히 허공에서 부딪쳤다.

《?》

《? ?》

삼촌이라는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수술실로 가버렸다.

박응식은 꿈을 꾸는듯 무엇에 홀린듯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여보, 저분이 뭐했어요.. 삼촌이라 하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어디 저런 동생이...》

기대와 의혹이 실린 얼굴로 안해가 물었다.

《...글쎄》

한참만에야 저도 모를 소리를 낸 박응식은 눈을 가스름히 좁히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어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는 외독자인것이였다. 친척이라고는 오촌 한분이 있을뿐인데 그는 아직 일본에서 귀국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전혀 초면인 사나이가 나타나 딸 명야의 삼촌이라는것이 아닌가. 이게 어찌된 사연인가?

얼마후에야 피딱 스치는 생각이 있어 박응식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우리 명야와 같은 이름을 가진 어떤 애의 삼촌이 제 조카가 불행을 당한줄 알고 달려왔으리라는 추측이였다.

필경 그럴것 같았다.

미구에 《삼촌》이 약간씩 다리를 걸며 수술실에서 간호원과 함께 나왔다.

그는 무엇때문인가 불만족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그래 삼촌한테서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펜단말이요?》

수술실안에서 하던 이야기의 계속인것 같았다.

박응식은 그의 앞으로 나섰다.

환자가 자기 친조카인줄 알고있을 그의 무거운 근심과 불안을 빨리 없애주고 어차피 그의 피부가 딸 명야에게 이식되게 되는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아니 뉘시라고요?》

《...》

《삼촌》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언뜻했다. 그의 시선은 재빨리 의사의 얼굴을 스쳤다.

《저 여기 명야는 우리 앤데 아마 다른 명야의 삼촌이겠기에...》

박응식의 그 말에 《삼촌》의 둥근 얼굴에는 반기는 미소가 피어났다.

《아 부모님이군요. 난 또... 인사가 늦었습니다. 팔애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맘놓으십시오. 온 병원이 달라붙고 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명야를 위해 나서는데 일없습니다. 애는 곧 낄겁니다.》

《삼촌》은 박응식의 손을 뜨겁게 맞잡아주었다.

《아니 그럼 우리 명야인줄 알고서 삼촌이라...구! ! 참 어디서 사시는 뉘신지?》

박응식은 열풍과도 같은 뜨거운것을 다시금 느끼며 물었다.

《예. 제 명야의 삼촌이라니까요,》

《삼촌》은 창박으로 흘끔 눈길을 주며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문지기 의사를 향해 미안쩍은 인사를 가볍게 했다.

하고는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숨기며 간호원을 따라 안쪽문으로 나갔다.

《아, 그럼 성함만이라도...》

박응식은 자꾸만 목이 베어오는것을 겨우 자제하고 이렇게 물었으나 그 소리는 이미 닫아버린 안쪽

문에 부딪쳐 흩어 지고말았다.

박응식부부의 가슴은 몽쿨몽쿨하다 못해 이제는 그 어떤 강한 흥분제에 폭 취한듯싶었다.

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 웨치는 소리가 좀처럼 멎을줄 몰랐다.

밀치고 당기며 싱갱이를 하는 사람들의 물건 !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들의 머리위에 부드러운 함박눈이 날리고있었다.

박응식은 이제는 폭 젖어버린 손수건으로 다시 또다시 눈굽을 문대며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가슴은 마냥 뜨겁기만 했다.

아 평범한 한 노동자의 어린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 앞을 다투어 나서주는 사람들 ! 주수도 이름도 모르고 난생 처음보는 사이인데도 삼촌이 되어주는 사람들 ! 친척이란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어렵고 곤란할 때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어 남과 다르다고 한다. 하여 친척이 없으면 외롭다고 한다. 내 일본에 살 때 바쁜 친척이 없는 외로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던가. 그러나 이 땅에는 피줄로 이어진 친척이 없다 해도 도울 일이 있을 때는 저렇게 누구나 다 친척이 되고 일가가 되어준다. 수많은 친척들의 사랑과 보살핌속에 명야가 살고 내가 산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화목한 한 가정으로 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다 !

눈송이들은 점점 더 소담해지고있었다.

그 눈발속에서 더더욱 설레이는 사람들의 물결이 박응식의 눈물어린 망막위에 어머니조국의 얼굴로 비쳐들었다.

작품은 매수가 적은데다 하자는 소리가 명백하고 문제적속도도 있어 단숨에 읽히었다.

잘된 글이라고 할수는 없었지만 문학통신원이 쓴 실화문학으로서 그만하면 발표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편집부에서 되돌려보낸 작품에 대하여 서둘러 자기 견해를 표시할수는 없었다.

편집부가 제기한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청년은 눈치가 매우 빨랐다.

×

내가 묻기도전에

《편집부에서는》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가지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교양기사가 아니라 실화문학작품인만큼 인물들의 초상묘사와 심리묘사를 더 질게 주고 감정조직을 짜고 들어 짧지만 감동적인 글로 완성하자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휘 문장구사에서 딱딱하고 토막감나는 대목들을 고쳐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의견은 접수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가지 의견은》 청년은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종자와 소재가 새롭지 못하다는것인데 저로서는 좀처럼 리해되지 않는딘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글을 써보던중 제일 흥분되어 쓴 글인데 글썽 새롭지 못한 너무도 범상한 이야기라니 참... 제자 생각하고있는바하군 영 반대의 의견입니다.》

청년은 자기의 창작의도를 긍정해줄것을 고대하는 눈매로 나를 마주보았다.

《새롭지 못한 너무도 범상한 이야기라.》

나는 저도 모르게 편집부의 의견을 되뇌었다.

사실상 우리 제도에서 그런 소행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는, 이제는 너무도 범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깊이 할수록 나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남을 위해서 앞다투어 자기의 피부를 떼주고 뼈를 주고 각막을 떼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범상해진 우리 현실 ! 아, 아름다운 우리 사람들 !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편집부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지 않을수 없었다.

《작가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한단말입니까?》 하고 청년은 실망조로 반문했지만 나는 달리 말할수 없었다.

《그렇소. 편집부의 의견은 다 옳소 ! 그러니 어찌겠소. 종자 소재가 새롭지 못하다는거야 어쩔수 없으니깐 그 밖의 두 의견만 잘 고쳐서 주오. 내가 편집부에 전해주겠소.》

행복

방정강

아침이면 떠오르는 해의 첫 빛발이 창가에 먼저 비쳐들고 저녁이면 넘어가는 해의 마지막 빛이 떠나기 아쉬운듯 그냥 오래 방안에 남아있는 집.

창가의 화분들엔 봄향기를 풍기며 연붉고 파르스름한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새집!

먼 고향의 산촌에서 살다가 며칠전에 함흥으로 새로 이사온 우리 가정의 기쁨은 사뭇 컸었다. 아이들은 책가방을 달랑거리며 새 학교에 다니고 수예 품공장에 들어가 하얀 천우에 갇가지 고운 꽃들을 수놓게 될 안해의 기쁨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인젠 모든 수속이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아침마다 붉고 푸른 줄을 띠처럼 두른 무궤도전차를 타고 출근길에 오르게 되리라.

하냥 흥뜨는 마음.

학교에서 10점을 받고 아파트의 층계를 구르며 돌아오는 아이들...

안해도 래일 첫 출근을 하게 된다.

초저녁이었다.

새로 받은 집이어서 세대주의 손이 가야 할데가 많을거라고 등을 떠미는 부서동무들의 정다운 눈길을 받으며 집에 일찍 돌아온 나는 뜻밖의 《큰일》에 부닥쳤다.

반들거리는 새 문소잡이를 잡고 출입문을 벌컥 여니 언제나 웃으며 가방을 받아주던 안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비끼었다.

《무슨 일이 생겼소?!》

나는 영문을 몰라 황급히 물었다.

《미홍이때문에 래일 출근을 못하게 됐어요.》

미홍이란 두살잡이 딸애이다.

아침까지 방글거리며 출근하는 나에게 꽃잎같은 손을 흔들던 애가 아닌가.

《아니 애가 어디 탈이 났소?》

《미홍이를 탁아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오.》

《그건 왜?!》

나는 무뚝뚝하게 다우쳐물었다.

《당연하지요. 글썄 이사를 때 다른 수속은 꼬밀

꼬밀 다 하면서 미홍이 건강관리부와 접종카트를 떼오지 않았군요.》

《건강관리부와 접종카트라니? 그건 뭘 하는거요?》

《아이참, 세아이 아버진데두 아직 그 책을 모르고있어요. 당신같은 애아버지가 세상에 또 어디있겠어요!》

안해는 뽀로통해서 돌아선다.

나는 안해앞에서 대답할 말 한마디 찾지 못하였다.

그날 아침 탁아소에 딸애를 맡기려고 동진료소에 찾아간 안해는 그 어린이건강관리부며 접종카트때문에 불합격을 받았다. 그러니 래일 아침부터 첫 출근을 한다고 로동복에 다림발을 세우며 싱글병글거리던 안해의 얼굴에 그들이 비껴들게 된것은 자못 당연하였다.

나는 탁상우에 손가방을 놓고 봄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좀처럼 피우지 않던 담배도 피워물었다. 이사수속을 하여온 이래 애로되는 점이 있었던가.

이사집을 꼼꼼히 꾸려주던 고향사람들, 새학교에서 만난 다정다감한 담임교원들 그리고 역시 이사집을 받아주며 한식구 대하듯 상냥하게 맞아주던 인민반장아주머니...

하지만 우리의 수속을 엄격하게 지켜보는 남모를 눈이 있었다는것을 우리는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엄격한 눈빛은 바로 우리 당의 예방의항정책을 지켜선 진료소의 의사들과 탁아소보육원들의 눈빛이었다.

담배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었다가 후-하고 내뿜는 순간 나의 머리에는 갑자기 묘한 생각이 떠올랐다.

푸르스름한 담배연기속에서 피어난 그 생각의 실머리는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무릎을 쳤다.

《여보, 뭘 그리 근심하오. 그건 여기서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요!》

《예?! 여기서두요. 아니 어떻게요?》

안해는 내앞에 바투 다가앉는다.

《거 당신 4촌언니가 있지 않소. 구역병원의 한 다하는 과장인데 그쯤한걸 제격 새로 못만들겠소!》

《야-참 내가 그걸 왜 생각 못했을까. 옳아요. 언니가 진료소에 전화 한통만 걸면...》

안해도 무릎을 쳤다. 얼굴에 떠돌던 그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웃음이 남실거려였다. 안해는 곧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곳에 있는 구역병원으로 장달음을 놓았다. 안해가 떠난 다음 나는 더 꾸러놓을데가 없나 하고 방안의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술잎문양의 벽지며 기름기도는 노오란 새장판...

문득 아이들의 옷걸이에 눈길이 미친 나는 오늘 아침 아이들이 옷걸이가 모자라 다투던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만이의 림름한 남학생복이며 인민학교에 다니는 딸애의 진달래꽃무늬세타... 옷들도 아이마다 두세벌씩 걸려있어 옷걸이가 작았다.

나는 낡은 옷걸이를 떼고 그자리에 건재상점에서 새로 사온 긴 옷걸이를 새로 걸었다.

아이들의 옷을 다시 주런주런 걸고 흐뭇이 바라보노라니 어느덧 안해가 돌아왔다.

《빨리 왔군. 그래 어떻게 되었소?》

《...》

《언니를 못만났소?》

《...》

안해는 여전히 대답이 없이 우두커니 서있다.

이윽고 안해는 말을 떼었다.

《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공연히 찾아갔됐어요.》

《아니 그래 못만들어왔소? 지금까지 언니가 병원에 있어도 우리가 언제 한번 신세진 일도 없는데 그것도 안해준단말이요!》

나는 울컥 성을 내었다.

《그런 말씀 말아요. 나도 처음엔 언니가 거절하자 별 고까운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정작 시간을 내어 언가 차근차근 일깨워주는바람에 점점 머리가 숙여지더군요.》

안해의 말소리는 점점 자책에 젖어들었다.

《글쎄. 들어봐요. 우리들은 아이를 낳았을뿐 그

아들을 키워주는 품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지요. 그 아이들 한아이한아이는 태어나자부터 국가가 건강을 담보한단말이에요. 그 책들에는 그것이 쓰여있어요. 우리처럼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병을 만든다는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나도 머리가 숙여들게 되었다.

당의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치료받을 걱정 하나 없지 않는가...

나는 안해가 듣고온 언니의 이야기에 저으기 감동되었다.

《그러니 우리 미홍이는 아직 여기 함흥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속을 끝낸것이 아니라 수속을 시작해야 해요.》

안해는 저으기 흥분하여 말하였다.

그렇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것을 놓쳤다. 한시바삐 고향에 다시 가서 그 고귀한 책들을 가져와야 하였다.

《백번 천번 옳소. 그 접종카트들 빨리 가져와야겠소. 내 부서에 나가 토론하고 밤차로 갔다가 인차 되돌아서겠소.》

안해는 저녁을 서둘렀다.

나는 고향에 다녀올 준비를 갖추었다.

이때였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보니 내앞에 하늘색려행가빔을 든 한 처녀가 서있었다. 처녀는 나를 보고 아는듯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미홍이 아버지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처녀는 살며시 귀밑머리를 쓸어올리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보였다.

그때 저녁을 짓던 안해가 처녀의 목소리가 귀익어선지 문앞으로 다가왔다.

안해는 환성을 올렸다.

《아이, 영혜로구나. 영혜 네가 어떻게?!》

둘은 손을 잡고 맞돌아갔다.

안해가 다니던 공장의 회계원처녀다.

도에서 진행되는 회계원강습에 참가하러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처녀를 우리 집에 온 첫 고향손님으로 반가이 맞아들였다.

《새집이 정말 좋군요. 그런데 미홍이어머니! 탁

아소 소장선생님이 내가 도에 강습온다는것을 뒤늦게야 알고서 한사코 역까지 달려나와 이것을...

처녀는 그 무슨 얇은 꾸레미를 하늘색려행가방에서 꺼내여 안해앞에 내밀었다. 안해는 꾸레미를 들었다.

그러자 돌연히 안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것처럼 안타까이 찾던 미홍이 건강관리부, 접종카트에요!》

《뭐요?!》

《참 영혜야, 고맙다, 고마와. 이 책을 가지러 애 아버지가 지금 고향에 다녀오려 했단다.》

처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탁아소 소장선생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었다.

《자 이젠 어떤 책인가 어서 보세요.》

안해는 내앞에 처녀가 가져온 그 귀중한 책을 내들었다.

나는 세아이의 아버지가 되지 10여년이 되여도 아직 한번 본적없는 그 류다른 책을 펼쳐들었다.

첫장을 펼치니 거기에는 어린 딸애가 첫돌되던 날의 몸무게며 سن키, 앉은 키 그리고 숨소리가 거칠세라 의사들이 찾아와 채어본 체온들이 적혀있었다.

그 다음장들에도 빼곡이 써여있었다.

예방주사를 맞은 날, 각종 질병을 미리 막는 예방약을 먹인 날들이...

그러니 어린 딸애의 건강을 기록한 이 책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나에겐 그 책들에 써여있는 글발들이 우리의 꽃봉오리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게 지혜롭게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의 서사시로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보건일군들이 탁아소, 유치원 아이들의 건강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진료소일군들은 매일 탁아소, 유치원에 나가보아야 하며 필요한 치료예방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아래 태어나 첫울음을 터뜨려서부터 보건시책의 따스한 요람에 안기는 조선의 어린이들!

나의 어린딸도 그 꽃요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다.

나의 눈가에는 어느새 저도 몰래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이 책은 참말이지 아버지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나는 얼마전에 《로동신문》에서 질병에 걸린 어느 한 나라 어린이들의 사진을 본 일이 있다.

우묵하게 들어간 두눈.

뼈만 남은 앙상한 다리.

오늘 지구상에서 수억만의 어린이들은 먹을것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있다. 그 애들은 병에 걸려도 약 한봉지, 주사 한대 맞지 못하고 숨지고있다.

저기 남녘땅의 어린이들은 살인귀 미제침략자들과 파쑈악당 전두환놈의 폭정아래서 상자에 실려 머나먼 남아메리카로 팔려가고있으며 허기져 쓰러진 어머니이 젖꼭지를 잡고 몸부림치고있다.

하건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애들의 아버지인가. 나의 어린 딸애는 값높은 행복의 화원에서 자라나 꽃필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있다.

나는 그 귀중한 책들을 오래도록 손에서 놓을줄을 몰랐다.

그 어떤 부피 두터운 책과도 결코 바꿀수 없는 책! 비록 부피는 얇아도 이 책에는 천만권에도 다 쓰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것이다.

부모들의 잘못으로 잠시 놓칠뻔한 행복을 나의 어린 딸애는 다시 찾았다.

아 행복이란 그 무엇인가!...

행복에 젖어 그 행복을 잊을뻔하였던 나와 나의 안해이다. 그리고 그 행복을 앗아서도 고스란히 다 받아안은 나의 어린 딸애이다.

나는 두볼에 보조개를 지으며 방긋 웃는 어린 딸애를 닮은 안아올렸다.

그리고 안겨주었다.

어린 딸애가 가는 앞길에 불어오는 비바람, 눈보라를 막아주고 오는 병, 지나가는 병도 맞받아나가 미리 없애버려주며 웃음꽃을 피워주고 아름다운 노래를 줄 한없이 귀중한 그 책을 딸애의 가슴에 꼭 안겨주었다.

건설장이 한눈에 보이는
현장지휘부
방금 영웅칭호를 수여받고
대대로 돌아온 지휘관
열어놓은 창문가에 말없이 앉았다

해중에 끄슬린 적동색 얼굴엔
상기도 크나큰 감격이 어려있고
한생을 돌이켜보는 그의 눈가에
목이 메어 말못하던 연단에서처럼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맺히는구나

열여덟에 군복을 입은 때로부터
조국 위해 걸어온 복무의 길
생각한적 없다 그 언제 자신이
위훈으로 남을만한 일을 했다고는

서리발이 이는 전연초소에서도
고속도로도로건설의 나날에도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겼건만
그때마다 안겨지는 파분한 표창앞에
가슴이 후덥기만 하던 지휘관

오늘은 갑문건설의 영웅이 되었나니
그가 어찌 알았으랴
저 가물막이언제를 쌓아올리며
천우들과 고락을 함께 한 나날들이

그처럼 큰 위훈으로 빛날줄을
아,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올라
그는 현장지휘부를 나섰다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아버이수령님과 당에 향한 감사를 안고
그는 걸어간다 전투장으로

믿음은 크고 할일은 많구나
그가 이제 무엇을 아낄것 있으랴
영웅의 걸음이 어떤것임을
떳떳이 보여주어야 할
무거운 영예 두어깨에 걸매고
그는 걸어간다 수백의 눈길을 받으며

충성에 불타는 가슴
승엄한 맹세가 번뜩이는 시선으로
언제를 쌓으며 가야 할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말없이 바라보는 영웅

아, 그는 지금
새 탄생의 걸음을 내짚고있어라
크나큰 사랑속에
영웅으로 태어난 전사의 삶
반색의 머리칼은 군모밑에 희끗해도
값높은 한생은 앞에 있구나

해지는 바다가에서

해지는 바다가 노을이 곱구나
일 끝낸 잠수공들
물속에 잠기는 황금빛 태양을
취한듯 바라보며 배전에 앉았네

물결은 잔잔하고 바다는 가없다
수평선 저 멀리 해지는 한때
송두리채 녀을 앗아가는 아름다움이

바다와 하늘사이 황홀히 비졌구나

이런 때엔 손품금수여 한 곡조 울려라
청춘의 가슴에 넘치는 랑만을
어찌 그대로야 물어들수 있으랴
더더구나 이 하루도
그들은 사나운 파도속에 싸웠거니

언제말에 숨새는 물구멍을 막으며
보이지 않는 바다물속에서도
성실한 로동을 바친 잠수공들 아니고서는
가슴에 넘치는 희열일수 없으리
이 저녁 타오르는 저 노을이,

수십길 바다속을 손더듬하며
남모르게 바친 그 수고가 없다면
땀땀이 마주설수도 없으리

랑심의 거울과도 같은 바다
황황히 불타는 저 아름다움앞에

그렇구나
잠수공들 하는 일 아무도 몰라도
당을 받드는 깨끗한 랑심은
바다에 억년 뿌리내리고 솟아있을
청춘의 기념비-갑문언제가 보증하리니

해지는 바다가 노을이 곱구나
흔들리는 잠수선 배전에 앉아
잠수공들 노래하네
밭밀에 파도는 고요히 숨죽이고
그 가슴에 안기여 바다는 잠자네.

《바다속의 체육대회》

누가 그 이름 붙였던가
얼마나 많은 생각 불러내는 말인가
《바다속의 체육대회》

그 어느 익살군의 기발한 착상이 아니다
어느 랑만가의 꾸며낸 말도 아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는
몰라도 좋다, 그야 아나모르나 매한가지

병사들이 바다물을 말린
한해전만도 날바다이던곳에서
체육대회를 벌렸다.
들레들레 언제나머엔 파도가 철썩이고
합성이 들고나는 가물막이언제안에선
배구공이 하늘을 날고있다

이 얼마나 랑만적○니 화폭이나
이 얼마나 청춘들의 성미에
잘 어울리는 생활이나

저 높은 도약과 힘있는 강타로
배구공을 내려치는 선수가
물속에서 수십일 파도와 싸우며
첫볼로크를 내려앉힌 그 전사다

능란한 숨씨로 다시 받아지는
상대방의 저 키큰 선수
30만산을 통채로 날리고

허물어져내린 구슬섬을 바라보며
즉흥시도 잘 넘기던 그 전사다

헤쳐온 시련이야 있었던듯 없었던듯
웃으며 떠들며 와와 소리지르는
하늘을 찌를듯한 저 기세앞에
파도 사나운 날바다도
수천년 차지했던 《진지》를 내놓고
가물막이언제밖으로 물러갔구나

《우승컵》을 양보치 않는 저 드센 승벽
복나팔로 응원에 열을 올리는
온 《경기장》의 하나같은 저 호흡이
갑문언제를 억척같이 안아올리며
마지막돌격전을 승리로 떨치리니

오, 이 얼마나 열정에 넘친
힘의 시위나
이 얼마나 꿈많은
청춘들의 생활의 화폭이나

그들의 머리에
화선방송은 더 피가 뛰는 노래를 울려라
이런 랑만, 이런 환희
이런 숨결을 안은 병사들에겐
그 어떤 힘겨운 고난도
한갓 가벼운 웃음이로구나

간석지의 물소리

리 재 준

굽이굽이
흘러온 길이 천리라고
이리도 주절대느냐
간석지의 물소리-

잔물이 몰아오던 사나운 물소리에
내가 울며 뒤쫓기던 간석지
이 봄엔
단물을 앞세우고 흘러드는 물소리에
웃음이 벅글어 내가 따라선다

나무재기 덩불에 봄이 묻혀
계절은 바뀌어도 가을은 없던 땅
이 봄엔
관개수 흘러 새땅을 적셔
내 마음도 희망에 부른다

뜨락또르바퀴에
구슬져내리는 물방울은
그대로 기대에 걸어주는 꽃목걸이인듯
논판으로 흘러드는 물결은
내 가슴에 노래의 금선을
제먼저 튕겨주고 달려가는듯

바라보면 물빛엔 어려오누나
모금모금 단물을 들이키며
키돋움하는 일만벼포기들

귀기울이면 물소리엔 실려오누나
바다멀리 펼쳐진 새 지평선에
넘어날듯 일렁이는 이삭의 설레임소리

아 청제비 날아에는 하늘가에
벌쳐너들 몰아오는 모내는기계 따라
아지랑이 가물거리는 저 들판의 생활이
통채로 간석지에 넘어서누나
물소리 타고 물결에 실려

정녕 네 우엔 소원이던 봄도
정녕 네 우엔 희망이던 금나락도
다 실려있어
물결아 너는 간석지에
노래를 앞세우고 흘러드는 젖줄기
숨결을 부어주며 젖어드는 피줄기

아 간석지에 첫봄을 싣고온다고
이리도 주절대느냐
일궈야 할 나락의 물결이 하높아
이리도 서둘러가느냐

물소리-
생활을 앗아만 가던 간석지의 물소리
너는 이 땅에 태동하는 삶을 떠실고와
오늘은 천가지 기쁨이 흘러드는 소리
오늘을 만가지 행복이 젖어드는 소리

막장에 울리는 진군의 노래

럼 우 봉

싸우는 고지에서처럼
들려오누나
천길막장마다 울리는
우렁찬 진군의 노래가

저 멀리
검덕과 무산

안주와 순천
지구는 서로 달라도

지척인듯 부르며
화답하며
어깨걸고 나아가는
하나의 전선이며 !

평범한 날에
평범한 땅에서
받아안은 부름이라면
가슴가슴
이리도 뜨거우랴

우리 땅이 안겨준
시대의 숨결 -
《80년대속도》로
순간순간이 흘러가고

우리의 지도자동지
끝없이 베푸시는 사랑
자랑높은 승리로
자욱자욱에 빛나는 땅

간해에도 여롭han철
외국방문의 길 이어가시는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따라서던 인민의 마음 안고
조국땅 북변에 이르시더니

력사의 그길, 그 위업
쇠돌로 빛내이고 받들어가는
무산의 평부들을 찾아
몸소 철신봉에 오르셨거니

아, 우리의 지도자동지
크나큰 사랑속에
새 진군의 구상 펼쳐주신
우람한 쇠돌산들과 탄전들이여

정녕 착암기소리 채탄기소리
하나로 어우러진 교향악속에
10대전망고지의 승전고도
가슴가득 가슴가득 울려움이여 !

기세좋다, 채취공업전선
봄노을에 뒤덮인 철의 기지들과
꼬리물고 나아가는 수송전선들로
익측은 넓고
종심은 또 깊어

오, 창조와 건설의 저 노래속에
인민의 행복은 커가고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할
무적의 힘도 자라거니

온 나라 온 전선을 거느리며 이끌며
더 높이 부르며 가자
천길막장마다 울려퍼지는
장엄한 진군의 노래를 !

거 울

김 정 철

막장에 거울이 걸려있네
날마다 굴진공 그 총각
울렁이는 마음 안고 마주만 서도
온 갱내에 넘치는 웃음소리

총각은 말했네 그날도 말했네
거울을 안고 온 압축기공치녀에게
-땅속에서 거울을 보아선 무엇하랴
차라리 바람이나 잘 보내주지

치녀는 말했네 총각에게 말했네
-마음에 티없어야

좋은 맥 잡는대요 !

그래서 그런지는 정말 몰라도
그날부터 잡히는 눈부신 금돌
그래서 그런지는 정말 몰라도
마음 고운 그 처녀 얼굴도 고와보여

이제는 거울속에 제 얼굴이 아니라
치녀의 얼굴만 가득차 웃네
총각은 얻었네 단번에 세가지
거울도 금돌도 그리고 사랑도

윤보령감

김영선

1

구름속을 헤엄쳐 달리던 달도 어느새 서산마루에 걸렸다. 북송산에서 마가울의 싸늘한 바람이 불어 왔다.

어머니의 젖줄기와도 같이 기슭을 적시며 흐르는 검푸른 버들강우엔 달빛이 어리어 흰 띠를 건너질렀다. 흰 띠는 잠시도 진정하지 못하고 흐느끼듯 설레인다.

양어장두리에 키높이 자란 버드나무들은 락엽이 저 꺼칠해지기 시작했다. 양어장물우에 떠도는 락엽들은 달빛을 받아 잉어의 비늘처럼 번쩍인다.

《철썩-》

새벽에 접어들어 너무나도 조용한데 가깝증을 느껴서인지 잉어 《할아버지》 꺾인 복덩이였다.

정윤보는 잉어들과 헤여질수 없어 양어장쪽에 앉아 장밤을 밝히었다.

그는 희뽕히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저녁까지만 하여도 버들강다리를 건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썰렁한 바람만 강물을 훑을뿐이다.

《아바이, 놈들의 척후대가 인차 덤벼든다는데 복덩이와 종자잉어들만이라도 술산저수지에 옮기고 빨리 몸을 피해야겠습니다.》

어제 아침 양어장을 찾아온 면당위원장 선규가 걱정애 싸여 한 말이였다.

《아니 그럼 저 많은 잉어들은 다 어떡허구?》

그때 윤보는 오그라드는 가슴을 가까스로 펴고 양어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었다.

《나머지 잉어들은 정황을 보가며 차차 처리합시다. 늦어서 래일 점심때까지는 북송산 참나무골로 오십시오. 거기서 만납시다. 그럼 전 바빠서 그런데 여기 일은 아바이만 민습니다.》

윤보는 눈앞이 아뜩해져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닥쳐 오리라고는 기척 생각지 못했던것이였다.

그는 일이 손에 걸리지 않아 팬스레 양어장쪽에 맴돌기도 하고 나무그루터기처럼 멍청히 앉아있기도 했다.

그는 저녁녘에야 집에 들어가 가장집물을 꾸러 허청간에 묻어놓았다. 로친네를 먼저 떠나보낸 그는 다시 양어장으로 나왔다.

기다렸다는듯 별이 내려앉아 숨박꼭질하는 양어

장물우에 잉어들이 유유히 꼬리를 저으며 그를 반겼다.

윤보는 젓먹이를 떼어놓고 떠나는 어머니처럼 가슴이 콕 메여와 그자리에 못박히고말았다.

그는 양어장을 버리고 혼자 떠날수 없었다. 양어장을 잃는다는것은 윤보자신을 잃는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윤보는 해방후 5년동안 이 양어장과 함께 참된 인간의 삶을 찾았으며 자신의 존엄을 키워왔던것이다.

그는 밤새껏 담배 한쌈지를 다 태웠다. 허끝이 갈라지고 입안이 소태처럼 쓰거웠다.

그는 새벽녘에야 복덩이를 비롯해서 종자잉어들 만이라도 술산저수지에 옮기라던 면당위원장의 말이 떠올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는 우선 잉어들에게 아침먹이부터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먹이가 그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물녘으로 내려섰다.

다미가 툭툭 불거진 큼직한 손에 먹이를 듬뿍 쥐어낸 그는 물우에 쭉 뿌려던졌다. 그리고는 뿌잇한 물속에 들어다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였다. 뽕뽕이 곤두섰던 채양같은 눈섬이 부드러워지면서 깊숙이 패였던 주름살들이 다림발같이 쭉 퍼지였다. 보통사람은 느끼지도 못하는 잉어들의 움직임은 그는 온몸으로 느끼는것이다.

몇번 손을 놀려 먹이를 뿌려주자 그가 딛고선 발판밑의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한쌍의 복덩이가 덩지 큰 몸뚱이를 불쑥 솟구쳐올랐다가 사라졌다.

먹이를 받아먹느라 비비적되는 잉어들을 흐뭇이 내려다보았다.

그가 이러고 서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며 바가지에 다시 손이 가는 순간 새벽하늘을 찢어발기듯 버들강너머쪽에서 화광이 치솟더니 뒤이어 《파르릉-》 하고 요란한 소리가 울리였다. 땅이 통채로 부르르 떨었다. 락엽이 와스스 훑날렸다. 잉어들이 자맥질하며 자취를 감추었다.

(개놈들이 벌써?)

윤보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갑자기 버들강다리쪽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였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먹이를 말끔히 뿌려준 그는 허리를 꺾어버정하고 술산쪽으로 향했다. 우선 몸을 피했다가 정황을 보가며 잉어들을 옮기리라 마음먹었던것이다.

윤보는 허리를 치는 속새발을 지나 무성한 소나

무숲에 들어선 뒤에야 숨을 돌릴념으로 담배쌈지를 꺼냈다. 총소리는 점차 숲산쪽으로 옮겨오더니 잠속해지였다.

부시를 쳐 불은 불인 윤보는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었다가 서서히 내보내었다. 한껏 긴장했던 속이 후련하게 열리었다.

담배 한대를 거의 다 태워갈무렵 등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는 무릎걸음으로 돌아보았다. 총대들이 소나무들사이로 얼씬거리었다. 어망결에 벌떡 일어난 그는 주먹을 부르쥐고 내뛰기 시작했다.

《서라, 섯!》

총소리가 연거퍼 터졌다. 총알이 귀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무가지가 와지끈 부서지고 솔방울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윤보는 최녕쿨에 걸려 허궁 꼬꾸라졌다. 자리를 차고 뛰쳐일어나는 순간 어깨가 지끈하며 팔이 떨어져나가는것 같아 모로 쓰러졌다.

《흠, 늑다리어.》

먼저 덮쳐든놈이 맹랑하다는듯 지껄이였다. 그놈은 꼬잔등에 마마자국이 덕지덕지 겹쳐앉았다.

윤보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선임하사님, 늑다립니더.》

선임하사님은 살모사처럼 생긴 세모눈으로 윤보의 아래우를 뜯어보았다.

《두상이 빨찌산인가?》

윤보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짜식-》

어느새 주먹이 날아와 윤보의 뺨을 쳤다. 눈에서 불꽃이 탁 튀었다. 입새로 끈적끈적한것이 흘러나와 밤송이 같은 수염을 적시며 턱밑으로 흘렀다.

《선임하사님, 양어장입니다.》

폼보가 알려주는 말이였다.

《이새끼, 잡으라는 빨찌산은 못잡구 처먹을 궁리야?》

두다리를 버티고 선 선임하사님은 씩씩 모두 숨을 내쉬였다.

놈들은 중요한 군사보급로인 버들강다리를 차지하기 위해 적후부대로 기여들다가 인민군부대의 된타격에 뒤이어 빨찌산들의 매복전술에 걸려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들과 유생력량을 잃었다. 독이 오른 놈들은 주변을 살살이 빗질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윤보는 가슴을 쳤다. 자신의 아픔보다도 복덩이 조차 건지지 못한게 원통했다. 서두르지 못하고 어물거리다 이 꼴이 된 자신이 한스러웠다. 면당위원장의 믿음을 이렇게 저버린단말인가?

그는 양어장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침노을을 한껏 받아안은 양어장은 부글부글 끓는듯했다.

한쌍의 까치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앉으

며 각각거리다. 매일아침 한적한 버들강기슭에서 제일 먼저 반겨주던 까치였다. 그들도 난데없이 나타난 불청객들에게 항변이나 하는듯 소란스럽게 울어대였다.

적병 몇놈이 양어장쪽으로 몰려갔다. 뭐라 지껄이던놈들은 이어장에 대고 총질을 해댔다.

《뽕뽕뽕...》

물속으로 날아드는 총알들이 쇠된 소리를 내질렀다. 잔잔하던 양어장우엔 무수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윤보의 눈길은 곳곳해지였다. 채양같은 눈섭이 후르르 떨렸다.

《이 개놈들이...》

복송산골안이 찌렁 울렸다.

윤보는 무작정 양어장쪽으로 달렸다. 소나무숲을 채 빠져나가기도전에 강한 타격을 받은 그는 물먹은 흙담처럼 풀썩 쓰러졌다. 길길이 자란 속새풀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키려던 그는 연거퍼 날아드는 강한 타격에 의식이 몽롱해지였다.

2

속이 얼어드는듯 싸늘한 촉감에 윤보는 눈을 떴다. 뿌연 연막속에 무수한 흰 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몸을 일으키려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으음-》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몸은 무거운 바위에 짓눌려 천길 땅속으로 잣아들어가듯 같기도 하고 가랑잎처럼 뒤번저지면서 등등 떠가는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온몸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마구 찌르는것 같기도 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 이대로 오래오래 누워있고싶었다. 조금만 더 누워있자. 개놈이 마구 죽쳐어. 에잇 그놈들을 그쳐...

《각 각...》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윤보는 눈을 번쩍떴다. 총소리가 울린다. 복덩이가 총에 맞아 락엽이 떠도는 물우에 붉은 피를 쏟으며 애처롭게 몸을 뒤채기는것만 같았다.

(내가 이러고있으면 어떻게 해. 일어나야지. 개놈들이 우리 복덩이 죽여버리겠구나.)

윤보는 이를 악물고 천근같이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세웠다.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울리더니 덜컥하고 문이 열리었다. 살모사눈깔이 들어왔다.

《소위님, 이놈입니다.》

등글모자가 문앞에 나타났다. 희멀건 얼굴이 다가온다. 그놈은 윤보앞에 멈춰서더니 찬찬히 훑어본다.

그놈을 마주보던 윤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송패놈-)

그놈도 윤보를 알아보았는지 흠칫 얼굴이 굳어졌다. 그놈은 선임하사쪽으로 몸을 뺄 돌리었다.

《이따위가 무슨...》

《저도 뭐... 반항하길래 체포했습니다.》

송패놈은 책 돌아서나갔다. 선임하사놈도 윤보를 흘끔 돌아보더니 뒤따라나갔다.

《저건 우리 집 양어장지기였어. 우리 가문에서 종으로 늙었지.》

송패놈의 말이였다.

(양어장지기? 음-송패 이놈-)

송패놈의 말은 윤보의 가슴에 맺혔던 묵은 상처를 칼끝으로 마구 헤쳐놓는듯하였다.

...송패놈의 애비 송교로놈은 버들강슥에서 첫손에 꼽히는 대지주였다. 그놈은 버들강기슭 아늑한 곳에 양어장을 꾸려놓고 여름이면 줄곧 이곳에 나와 잉어의 피와 살로 제 배가죽을 기름지으며 나날을 보내었다.

어느날 얼굴에 노랑꽃이 핀 수돌이가 양어장으로 아버지를 따라나왔다. 그렇게도 엄하게 단속하던 윤보였으나 리질에 학질이 겹친 아들의 정상이 너무나 애처로와 쫓아버리지 못했다.

송교로놈은 탄광주 나사까눔과 술상을 벌려놓고 연승 잉어회를 재촉했다.

윤보는 그물을 쳐 잉어를 건져내고 회를 치느라 찢쩍메며 돌아쳤다.

버드나무그늘에 앉아 마른 나무꼬치같은 두다리를 늘어뜨린 수돌이는 회를 치는 아버지의 손만 바라보며 군침을 삼켰다. 윤보는 아들의 눈길에 손이 걸려 잉어살점을 저며내며 여러번 헛칼질을 했다.

윤보가 회접시를 받쳐들고 일어나자 수돌이의 눈에는 눈물이 펑 피어올랐다. 쥐고놀던 조약돌이 맥없이 굴러나 물속에 툭 떨어졌다.

윤보는 아들의 눈길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멈춰서지 못했다. 철없는 자식앞에서 죄를 지은것만 같아 마음이 쓰렸다. 어째서 나는 수돌이를 돌려보내지 못했단말인가.

《저 더러운 손목대길 어디다 대.》

첩년의 앙칼진 소리가 윤보의 귀청을 때렸다. 윤보는 속이 왈칵 무너져내리는바람에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수돌은 불에 댄듯 흠칫 놀라 뒤걸음질쳤다. 잉어 뼈가 땅에 떨어졌다.

윤보는 입술을 짹 깨물었다. 그 뼈가 자기의 내장을 통채로 헤집어 끌어내는듯하였다.

경련을 만났듯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한동안 꼼짝 못하고 서있던 그는 수치와 모멸, 지주놈과 그 너런네에 대한 반감이 울컥 솟구쳐올라 겁먹은 눈길로 애원하는 아들의 덜미를 움켜쥐고 귀를 찼다.

《아버지-》

자기의 주먹보다 더 작은 얼굴에 다섯개의 손가락자리가 빨강게 튀어오르자 윤보는 속이 베여 가슴을 찼다.

《이녀석아, 그따위 더러운데 뭘하러 손을 대.》

아프게 옥죄여드는 마음을 하소할길 없어 그는 버들강기슭으로 휘청휘청 걸어나갔다. 활짝 피기도 전에 시들시들 말라가는 자식에게 내가 무엇때문에 손을 댔단말인가.

윤보는 자신의 처사가 못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아 사흘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수돌이는 시래기에 강보리가루가 더덕더덕 묻은 죽그릇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윤보는 술을 드는체하고 그대로 보자기에 썼다.

《아버지, 다 잡쥬요. 이젠 안 그럴래요, 네?》

눈물이 글썽해서 애원하는 아들을 바라보던 윤보는 수돌이를 와락 꼬당겨안고 거쿨친 손으로 아들의 꺼칠한 머리를 쓸고 또 쓸었다. 윤보의 눈에는 물기가 펑 피어올랐다. 잉어로막하나 쥐여주지 못하는 아버지이건만 그래도 자기를 리해해주는 수돌이가 대견하고 고마왔다.

버들강에 내려앉아 몸부림치듯 설레이는 달을 오래동안 바라보며 아들의 앙상한 잔등을 어루쓸던 윤보는 움쭉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송교로놈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던것이다.

그는 그물을 쳐 큼직한 잉어 한마리를 잡아내어 회를 찼다. 수돌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의 행동만 지켜보았다.

《이건 아버지가 기른것이다. 어서 실컷 먹으라.》

무서워 웅송그리는 아들앞에 회접시를 밀어놓았다. 그로 하여 윤보는 물매를 맞고 두달을 일어나지 못했다....

윤보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머리꼭대기로 왈칵 솟구쳐오르는듯하였다.

윤보는 벽을 의지하고 일어섰다. 잠시 숨을 돌린 그는 발을 끌며 문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와들과 들 떨렸다. 갑자기 밖에 나서니 머리가 어쩔하여 문설주에 기대섰다.

《소위님이 늘 자랑하던것처럼 버들강의 경치가 참 유별합니다.》

선임하사놈이 송패놈과 같이 은비늘처럼 잔잔히 흐르는 버들강을 바라보며 지껄이였다.

《그전에야 더 좋았지. 강도 산도 양어장도 모두 우리 가문의것이였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젠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하긴 그래. 모든것이 내것으로 뻘지.》

송패놈은 뒤집을 쥐고 곰새끼처럼 저적거리며 흐뭇해했다.

《더러운놈.》

윤보는 송패놈의 말에 격해지는 감정을 삭이지

못해 숨을 몰아쉬며 침을 탁 뱉었다.

《이놈의 두상이.》

선임하사놈이 독사처럼 달려들었다.

《내버려둬, 그까짓 송장같은거...》

송패놈은 제법 점잔을 뺐다.

《한번만 더 허를 수작을 해봐.》

선임하사놈은 널름거리는 주먹을 사리며 독을 뿜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송패놈이 윤보앞으로 뚜격뚜격 다가왔다.

《저것들이 령감을 몰라보고 좀 거칠게 굶어 노엽게 생각될수도 있겠는데 삭이라구. 나두 이젠 돌아왔겠다. 양어장을 잘 꾸리구 그전처럼 재미나게 살아보아야 될게 아닌가.》

윤보는 송패놈의 입에 침바른 수작을 듣는 순간 구렁이가 칭칭 감기는것 같아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돌렸다.

《령감을 집에까지 데려다 줘.》

송패놈은 선심을 쓰며 선임하사에게 명령했다.

선임하사놈이 다가왔다. 윤보는 그놈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안간힘을 써 발을 옮기었다. 몇발자국 걸던 그는 양어장을 돌아보았다. 양어장은 시원한 북풍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실실이 늘어진 버드나무가지들은 해빛에 반짝이는 양어장물결을 어루쓸고있었다.

(끝내 한마리의 잉어도 옮기지 못하고고만단말인가.)

3

윤보는 양어장쪽에 바위처럼 버티고앉았다. 서너발자국 떨어진곳에 선임하사놈이 우리에 갇힌 승냥이처럼 서성거렸다. 윤보옆에는 곰보놈이 수강아지새끼처럼 쭈그리고 앉았다.

문득 걸음을 멈춘 선임하사놈은 윤보의 더부룩한 뒤더수기에 구멍이라도 뚫을듯 쏘아보았다.

《두상, 정 이러기야?》

선임하사놈은 아까부터 그물을 가져다 잉어를 잡아내라는것이였다. 놈들은 은근히 바빠맞았다. 오늘저녁에 미고문관이 중요한 군사보급로인 버들강다리경계정형을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이 왔기때문이었다.

윤보는 독한 염초연기만 풀썩풀썩 내뿜을뿐 꿈쩍하지 않았다.

《네놈의 두상두 5년동안에 완전히 빨개졌단말이지. 어디 두고보자.》

썩어빠듯 말한 선임하사놈은 곰보한테 돌아섰다.

《마을에 가서 그물을 얻어와.온 마을을 발각 뒤쳐서라두 무조건, 명령이다.》

《알았습니다.》

곰보는 마을로 달려갔다.

그래도 윤보는 굳어진듯 움직이지 않았다. 몸도 불편하였다. 그는 락엽이 떠도는 양어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올봄에 까난 잉어새끼들이 얕은 기슭으로 나와 해바라기를 하며 장난질을 하고있다. 서로 쫓고 달리는가 하면 어떤놈은 살짝 락엽밑으로 숨어버리기도 하였다.

잉어들의 장난질에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곤두박질치기도 하는 락엽을 바라보는 윤보의 눈앞에는 해방된 이듬해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토지개혁을 앞둔 어느날 밤, 송패놈과 그 애비는 생석회가마니들을 끌어들여 양어장에 처넣고 새벽에 양어장으로 달려나온 윤보는 물속에 뛰어들어 잉어들을 건져냈다. 한마리 또 한마리...

빈입을 찹찹거리며 무엇인가 하소하던 잉어들은 그의 품에서 뻗뻗해지군하였다. 윤보는 자기의 품에서 살점이 뭉청뭉청 떨어져나가는것 같았다. 초점없는 동공은 주검이 살벌한 양어장우에서 방황했다. 앞이 캄캄해지여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다.

걸음마를 배워서부터 버들강의 조약돌로 소꿉장난을 하였고 아홉살때부터 양어장을 벗삼아 자라온그였다. 한숨과 눈물인들 얼마나 많았으랴만 양어장은 그에게 있어서 마음의 안식처였다.

윤보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자기의 넋마저 아간 원썬놈들을 요정내지 못한것이 분했다. 며칠사이에 볼이 폭 꺼졌고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발로 나갔다. 농사일에 묻혀 양어장을 잊어버리자고 마음먹었던것이다. 그러나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속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면당위원장 선규가 찾아왔다. 윤보는 그에게 자기의 절통한 가슴을 헤쳐보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선규가 큼직한 잉어 한쌍을 가져왔다. 모든것이 우리의것, 인민의것으로 된 오늘 양어장을 버릴수 없다고 했다. 보란듯이 양어장을 꾸리고 제상에도 올리지 못하던 잉어를 밥상에 올리자고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간절히 바라던 땅을 주시여 흰쌀밥을 배불리 먹게해주시었는데 양어를 잘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할 때 윤보는 선규의 두손을 꼭 움켜쥐며 장군님을 위해, 인민들을 위해 양어를 잘하겠다고 하였다.

윤보는 한달음에 양어장으로 달려나갔다. 생석회물을 깨끗이 가셔낸 양어장엔 버들강의 맑은 물이 흘러들고있었다. 그는 옷이 함뼉 젖는것도 모르고 물속에 뛰어들어 불을 비비었다. 맑은 강물이 통채로 그의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그때부터 한쌍의 잉어가 윤보의 지성에 떠받들려 해를 넘기자 수백수천마리로 늘어났다. 윤보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양어장에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웃군에 오시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은 윤보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집도 주시고 양어장도 주시었으며 새 생명의 활력을 부어주신 장군님께 자기의 지성을 올리지 않고는 그대로 배겨낼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던 끝에 제일 크고 살찐 잉어를 골라 장군님께 올리리라 마음먹었다.

윤보는 조심히 그물을 쳐 비듬하나 떨구지 않고 잉어 한쌍을 건져냈다. 그는 잉어를 넣은 큼직한 통을 지고 오십리길을 단숨에 달려갔다. 생각같아서는 자기 손으로 장군님께 직접 올리고싶었으나 자기때문에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빼앗길것 같아 부관에게 맡기고 돌아섰다.

동구밖 느리나무아래서 걸음을 멈춘 윤보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수수한 농촌 초가집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해빙된 첫날부터 인민을 위해 밤과 낮을 이어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가 올린 잉어를 잡수시고 편히 쉬신다면 여한이 없을것이였다.

윤보는 해가 한발가량 남았을 때야 양어장에 돌아왔다.

그런데 무슨 일때문인지 부관이 차를 타고 먼저와 기다리고있었다.

얼떠름해 서있는 윤보에게 부관은 장군님께서 아바이가 보낸 잉어를 보시고 이렇게 크고 살찐 잉어는 처음 본다고 하시며 매우 기뻐하시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윤보의 얼굴엔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기의 얼굴에만 피어날수 있는 깨끗한 웃음이 확 피여났다.

부관이 이끄는대로 승용차옆으로 걸음을 옮기던 윤보는 낮익은 고기통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통안에는 한쌍의 잉어가 맑은 물을 한껏 들이키며 그대로 담겨있지 않는가.

윤보는 놀란 눈길로 부관을 바라보았다. 부관은 윤보의 두손을 뜨겁게 짊 잡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관이 잉어를 들고 식당으로 가려 하자 장군님께서는 그를 멈춰세우시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여 잉어통옆에 서계시던 장군님께서는 잉어를 다시금 찬찬히 들여다보시더니 보아하니 이 한쌍의 잉어는 양어장에서 제일 사랑받던 종자고기일것이라고 하시며 해빙된 조국땅에서 이 한쌍의 잉어가 앞으로 수천수만의 잉어를 새끼쳐 조국을 더욱 풍요하게 만들고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줄것이 아닌가. 인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인민들에

게 행복을 안겨줄수만 있다면 이런 잉어 백마리를 먹는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시며 잉어를 양어장에 돌려보내주시었다는것이였다.

《장군님!!》

윤보는 뜨거운 걱정을 이기지 못해 고기통을 쓸어안고 불을 비비었다.

(장군님! 잉어를 잘해서 장군님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윤보는 이 한쌍의 잉어를 복덩이라 불렀다.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보내주신 복덩이를 윤보는 애지중지 키웠다.

장군님의 배려로 아들 수돌이가 양어기술을 배우러 학교로 떠나던날 양어장에 데리고나온 윤보는 공부를 잘해서 장군님의 사랑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해야 한다고, 그제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들의 도리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런데 원썬놈들은 또다시 윤보의 기쁨과 행복을 깡그리 빼앗으려 하지 않는가...

윤보는 주먹으로 가슴을 짊 눌렀다. 그래도 피멍이 맺히는 속의 아픔은 멎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잉어들은 아직도 물장난을 치고있다. 입을 짊 벌리고 구슬같은 공기방울을 내보내고는 수집은듯 물속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놈은 곤두박쳐 흙을 뿌지며 먹이를 찾기도한다.

《두상,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생각해봐. 소위님과 의 정분을 생각해서 술술 다루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윤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놈들과 마주 서기조차 싫었다.

곰보놈이 그물을 메고 달려왔다.

《고문관님은 저녁녁에 온다면서 빨리 다그치랍니다더.》

곰보놈은 숨이 턱에 닿아 말문이 꺾꺾 막히면서 또 급급히 보고했다.

《알겠다. 그물질을 해봤어?》

《모릅니더. 산골내깁니더.》

곰보놈은 한발작 뒤걸음질치며 겁먹은 눈으로 선임하사놈을 쳐다본다.

《어디서 이따위 시라소니같은것만...》

선임하사놈은 곰보를 아니꼽게 쏘아보았다. 놈은 할수 없는지 윤보쪽으로 돌아섰다.

《두상,그물질을 하겠어 저리 가겠어.》

선임하사놈은 창고를 턱질했다.

윤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보는 무릎마디에서 우드득 소리가 나게 일어났다. 그는 창고로 향했다. 문이 팽 닫기자 그는 무너지듯 방구석에 쓰러졌다. 싸늘한 방바닥에 불을 댕채 오래동안 누워있던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창고문틈으로 새어드는 햇빛 이 맞은편 벽쪽에 쌓아놓은 먹이가마리를 비치고있었다.

윤보의 눈앞에는 먹이를 실은 달구지를 밀어주며 울음사도 잘 지었겠다 잉어들을 살찌워 기를기도는 흰살과 잉어고기를 싸우는 군대동무들에게도 보내주고 마을 농민들에게도 나누어주자고 하며 기뻐하던 면당위원장의 얼굴이 선히 떠올랐다.

이때 찌그러진 문틈으로 왁자지껄하는 놈들의 목청이 들려왔다.(아니, 저놈들이 고기를 잡지 않는가?!)

그런데 자기는 그 귀중한 잉어들을 놈들한테 말긴채 창고에만 틀어박혀있으니 무슨 꼴이란말인가. 개놈들의 먹통이라도 물고늘어지지 못한게 분했다. 가슴을 비틀어짜듯 아팠다. 어떤 방법으로든 개놈들과 해보아야 속이 풀릴것 같았다.

그는 문앞으로 다가갔다.

윤보는 더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창고문을 쿵쿵 두드렸다. 문이 부르르 떨며 요동쳤다.

《두상, 어째서 소동이야.》

선임하사놈이 빗장을 뿔자 윤보는 그놈의 가슴을 떠박지르며 앞으로 나갔다.

그새 잉어를 몇마리 건져낸놈들은 회를 치느라 덤벼치고있었다. 그걸 보는 윤보의 눈에선 불씨가 타락 튀었다. 틀어쥔 주먹이 경련을 만난듯 후들부들 떨었다.

《두상, 고기를 잡겠어?》

그물질하는 사병들을 몰아대던 송패놈이 다가왔다. 윤보는 그놈의 턱밑으로 바싹 다가들며 한주먹 안겼다.

《이놈을 묶어! 》

질겁한 송패놈은 권총을 뿔아들며 소리쳤다. 놈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윤보를 버드나무에 묶어놓았다. 송패놈의 입귀엔 알릴듯 말듯 싸늘한 웃음이 비쳤다.

윤보는 속수무책인 자신이 절통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양어장을 바라보았다. 저녁해빛에 양어장물은 무수한 보석을 쏘아박은듯 반짝인다.

(복덩이를 버리고 내가 먼저 간단말인가.)

윤보는 영원히 찢지 못할 죄를 짓는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젖줄기처럼 마음속에 언제나 정다운 이야기를 속삭여주던 버들강을 바라보았다. 버들강도 무엇인가 애절한두 꿈틀꿈틀 몸을 뒤돌며 흘렀다.

버들강기슭을 훑던 윤보의 눈엔 양어장수문이 안겨왔다. 수문- 그렇다, 저 수문이면 잉어들을 살릴수 있지 않는가. 내가 어째서 지금까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단말인가. 심장은 쿵쿵 방망이질을 하였다.

이때 송패놈의 총구가 윤보의 이마를 겨누었다.

《두상, 마지막이다. 아직두 내 말을 안듣겠는가?》

송패놈은 단말마적으로 소리쳤다. 그놈은 그토록 순종하던 한 늙은이의 마음을 꺾지 못한 악심으로

하여 피가 거꾸로 치솟았던것이다.

송패놈을 쏘아보는 윤보의 입귀엔 태연한 웃음이 비끼었다.

《나두 이제 죽고싶지는 않다.》

총구를 내린 송패놈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꺾꺾 찍어내었다.

4

미고문관놈이 사령부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송패놈은 사병들을 몰고 자리를 떴다. 양어장엔 선임하사놈만 남았다.

《두상, 생각을 잘했어. 목숨이야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건데 그걸 잃어버릴수야 없지 않아.》

선임하사놈은 그물을 뒤적거리는 윤보를 내려다보며 씨벌이었다. 윤보는 입이 쓰거워 대꾸를 안했다.

윤보는 수문쪽으로 눈길이 자주 가는것을 애써 참았다. 선임하사놈이 옆에 붙어있으니 손을 쓸수가 없었다. 이놈을 어떻게 해서든 떼버려야 할게 아닌가.

《두상, 서둘러야겠어.》

선임하사놈은 해를 가늠해보며 재촉했다.

《서둘러야지요.》

이렇게 밀하며 윤보는 그물을 둘둘 말아 한옆에 밀어던졌다.

《이따위걸로는 잉어를 못잡겠어.》

윤보는 손을 탁탁 털고 담배쌈지를 꺼냈다. 윤보를 집어삼킬듯 세모노으로 무섭게 쏘아보던놈은 《그럼 이찌자는건가? 새 그물을 내놓겠는가?》 하고 소래기를 지르며 다가들었다.

윤보는 놈이 지랄을 하건말건 천천히 담배를 말아물고 부시를 쳐 불을 붙인 뒤에야 움지력거리며 일어났다.

《그물을 가져오겠다. 》

윤보는 마을로 향했다. 그를 경계하는 눈으로 쏘아보던놈은 뒤발자국 떨어져 따라왔다. 윤보는 자기생각대로 일이 잘돼간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놈을 때놓을 궁리를 하느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눈앞에는 자기 집 헛간이 떠올랐다. 그곳엔 선거때 입었던 명주옷을 비롯하여 해방후 5년간 차곡차곡 장만한 가장집물이 묻혀있다.

로친과 함께 새옷을 차려입고 선거장 술문으로 들어설 때 면당위원장이 《누구네 신혼부부인가 했더니 아바이였구만요.》 하며 10년은 더 젊어보인다고 기뻐하던 일, 비단이부자리를 꾸며놓고 너무나도 꿈만같아 로친과 함께 밤새껏 즐기고 또 즐겨만지던 일, 성장한 아들뻘으로 첫날옷감을 사들고 덩기덩기 춤추듯 집으로 돌아오던 일들이 눈에 선하였다.

어느새 집에 다달은 윤보는 걸음을 멈추고 락엽만 스산하게 불리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마당북판에는 로친의 손끝에서 기름기가 돌던 동이가 박산나 있다. 그 조박들이 파편처럼 눈을 찔렀다.

선임하사님의 독촉에 윤보는 천천히 헛간으로 들어갔다. 손바닥에 침을 바른 그는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는 힘겹게 삽질을 했다. 이마에선 땀이 락수물 떨어지듯하였다.

삽끝에 판자가 굽힌다. 그러자 온몸이 전기에 닿은듯 찌릿했다.

놈이 고개를 기웃한다.

《판자를 뜯어.》

놈의 독촉이었다.

입술을 콧 깨문 그는 판자를 뜯어제꼈다. 짓눌렸던 비단이불이 부풀어올랐다.

《비단 ? 》

놈은 윤보를 밀어제끼더니 제 손으로 상자의것을 끄집어내었다. 놈은 값진 물건들을 꿰저넣느라 제 정신이 아니었다.

윤보는 슬그머니 헛간에서 빠져나왔다.

(모든것을 다 가져라. 하지만 잉어들만은 절대로 안된다.)

집뒤로 돌아온 윤보는 산으로 올리뛰었다. 경사가 급하고 잡관목이 엉켜 걸음은 빠르지 못했다. 숨이 꺾꺾 막히었다. 목구멍에서 거북내가 났다. 두 다리엔 연딩이를 매단듯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총소리가 터졌다.

윤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암나무와 분지나무, 다래와 칡이 뒤엉킨 속을 헤집고 계속 안으로만 움직였다. 늑은게 한스러웠다. 조금만 더, 그럼 내리막이다.

속새발에 들어선 윤보는 버들강다리쪽에서 적 한 무리가 쏘아져 밀려오는걸 얼핏 보았다. 마을쪽에서도 총질은 그치지 않았다.

창고로 달려들어간 그는 수문틀개를 찾아냈다. 양어장수문으로 밀려간 그는 수문을 열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은 수문옆에 바위돌을 부스러뜨리기도 하고 수문콩크리트를 물어뜯기도 했다.

수문밑이 들렸다. 잔잔하던 양어장물이 흔들리며 회오리를 쳤다. 물이 썩- 쏘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오른쪽다리가 휘청했다. 신발안이 꿀쩍꿀쩍해지었다. 벌건것이 수문콩크리트를 타고 흘러내린다.

윤보는 그것이 자기의 피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처럼 이를 악물고 수문틀개만 돌리고 또 돌리었다. 수문이 활

짝 열렸다.

엄청난 힘으로 쏘아지는 물길을 따라 잉어들이 밀치고 닥치며 버들강으로 빠져나갔다. 마음이 후련했다.

갑자기 한쪽어깨가 시큰하며 겨드랑이가 척척해왔다.

(총에 맞았구나.)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졌다. 그는 무너지듯 수문에 기대었다. 의식이 몽롱해지는 속에서도 수문틀개손잡이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피륙 정신을 차리었다.

(수문틀개 그대로 두면 안돼지. 개놈들이...)

안간힘을 써서 수문틀개를 뽑아낸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늘어지는 다리를 끌며 버들강기슭으로 내려갔다. 윤보는 최후기력을 다 내어 수문틀개를 버들강에 던져버렸다.

《침방-》

수문틀개를 받아안은 버들강은 태연한 모습 그대로 잉어무리를 끄당겨품으며 흘렀다.

한쌍의 복덩이가 철썩 꼬리를 치며 뛰어올라 윤보의 얼굴에 씨똥한 버들강물을 끼얹어주었다.

(복덩아, 잘 가져라.)

윤보는 빙그레 웃었다.

실실이 늘어진 버드나무가지들은 그네를 뛰는듯 멀어졌다가는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다음 모든것이 빙빙 돌아간다. 물속처럼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었다. 다만 버들강의 맑고 시원한 물이 달아오른 가슴을 식혀주며 포근히 잠재워줄뿐이었다.

그는 복송산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면당위원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면당위원장, 복덩이와 잉어들을 살렸네. 원수놈들을 몰아내구 버들강의 잉어를 잡아 양어장을 더 번듯하게 꾸리자구.》

윤보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피어났다. 잉어와 자신을 지켜낸 만족감에서 오는 행복의 미소였다.

그의 눈앞엔 대학생모표를 단 아들의 모습이 다가왔다.

《수돌아, 버들강의 잉어들을 잘 돌보아라. 우리 조국의것이 아니냐.》

윤보는 입속으로 조용히 속삭이였다.

버들강은 윤보의 속삭임소리에 설레여 노호하며 흘렀다. 어머니젖줄기같이 조국땅기슭을 적시며...

저녁노을이 서쪽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노을은 점차 넓게 퍼져간다. 산도 강도 양어장도 이글이글 타버린다.

가장 즐거운 이야기는...

한 용 빈

이야기에 앞서

룽매도간석지에 가로놓인 5호제방, 그것은 마치
도 일망무제한 간석지를 구획지으며 《이 안은 이
제부터 더는 간석지가 아니다!》 하고 선언하는
역센 팔뚝과도 같다.

그우에서 굴착기와 불도젤이 우르릉거리고 자동
차와 트랙포드가 꼬리를 물고 달려가고 달려온다.
거창한 대자연개조의 전투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래전발전소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
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간석지건설
사업소 노동자들과 정무원돌격대 전투원들이 구슬

땀으로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이곳-5호제방에서
는 마감공사가 한창 벌어지고있다.

마감공사라면 흔히들 마감막이전투를 생각할것
이다. 그러나 5호제방에서는 마감막이가 아니라 준
공을 위한 마감작업을 하고있다.

마감막이는 이미 끝난지 오래다.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간석지건설이라 하면 의례 생
각하는 밀물과의 싸움도 없고 터지는 동쪽을 어깨
로 막는 전투도 없다.

그러면 무슨 들을만한 이야기가 있단말인가고 할
수도 있다.

일은 아직 끝난것이 아니다. 일은 마감에 더 많은
법이다. 일이 있는곳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다!

《즐거운 이야기는 ! ...》

나는 그와 함께 제방길을 걸었다. 작업장으로 가
는 걸음이었다.

홍조어린 동그란 얼굴, 언제나 미소를 담고있는
눈, 크지 않은 키, 어느모로 보나 귀염상스럽기만
한 이 처녀가 바로 사업소적으로 제일 일손이 드세
다는 청년직장 2작업반의 안복녀반장이었다.

벽성에 고향을 둔 그는 돌격대로 이곳에 와서 5
호제방의 첫 삽을 뜨는 날부터 오늘까지 3년을 하
루같이 일해왔다.

나는 작업장에서 그와 몇차례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다.

런속 찾아오는 반원들때문에 이야기를 할수 없었
다. 두번째 세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반장이란 자기
시간이란 없는 직무인것 같았다. 그의 시간은 죄다
스물다섯명의 반원들에게 나누어져있는데었다. 세
차례에 걸친 《상봉》에서 들은 이야기란 몇마디밖
에 안되였다.

그가 태어난곳은 벽성군이지만 이곳 청단군 영산
리와 룽매도는 먼 옛날 그의 어머니가 아홉살때부
터 종살이를 하던곳이라는데, 언제건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태어나기전부터
이곳과 깊은 인연이 맺어져있었다.

어머니가 종살이로 끌려왔던곳에 딸은 자원하여
간석지개간자로 왔다. 이것이 알게 된 전부였다.

하여 오늘은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붙들
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아득히 뻗어나간 제방
길이야말로 이 처녀의 3년간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민이 스며있는 길이었다. 한발자국 한발자국이
얼마나 많은 웃음, 눈물, 땀을 담고있으랴.

《그때의 이야기를 좀 들읍시다.》

그는 말을 시작할듯 머리를 들었으나 얼마후에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겸속해서나 수집어서가 아님은 알수 있었다.

정말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찾지 못하는것
이 분명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때문이
리라.

나는 물었다. 《한창 제방을 밀고 나갈 땐 일이
힘들었겠지요.》 《예, 아니 저...》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듯하더니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일이 힘든줄은 몰랐어요. 그보다도 각곳에서
모여와 성격도 취미도 서로 다른 반원들과 사업하
는것이 힘들었어요. 하찮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오
해도 생기고... 그때문에 실적이 오르지 못하고...》

아마 울기도 했을것이다. 허나 이 자그마한 처녀의
눈물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반장은 울어도
누가 보지 않는곳에서 울어야 한다. 울고싶어도 울
어서는 안되는것이 지휘관이다. 아마도 이 처녀의

눈물을 본 사람은 그의 입당보증인인 류정양기사장 뿐이리라.

《그런 때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걸음은 몹시 빨랐다.

마치 나와와 이야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유감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나를 얼핏 보더니 걸음을 늦추며 변명하듯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걷는데 습관됐어요. 20리길이 넘어도 먼줄을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방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일한것 같지를 않아요.》

사실 그럴것이다. 이 제방이야말로 한메터 한메터가 그들의 성실한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겠는가. 멀수록 일한 보람을 더 뿌듯이 느낄것이다. 나는 매끈한 콘크리트벽과 장식으로 이루어진 석축을 보며 물었다.

《여기도 반장동무네 작업반이 했는가요?》

그는 나의 시선을 따라보고 대답했다.

《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여기서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친구간의 콘크리트를 밀몰이 들어 오기전에 끝내야 했어요. 시간이 땀뻗았어요. 그런데 반원들이 어디 제 뜻대로 움직여줘야지요? 일손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고 소리쳐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원들이 막 밉더군요... 종시 밀몰이 들어올 때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우울한 작업총화를 현장에서 하였다. 언쟁이 일어났다.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것때문이었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목소리기 점점 높아졌고 금시 덜미를 잡을것 같았다. 모두 성격이 급하고 양보를 모르는 청년들이었다.

반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장이고 뭐고 다 그만 두리라. 이런 반원들과 무엇을 할수 있단말인가. 더는 못하겠다고 제기하리라.

철썩-썩-하는 파도소리에 그는 머리를 들었다. 밀몰이 만조에 가까와지면서 점점 더 세찬 파도를 몰아오고있었다. 철썩- 철썩- 파도는 힘을 뽐내듯이 그들의 하루작업결과를 삼키기 시작 했다. 굳어지지 못한 콘크리트를 깎아내렸다. 건잡을수 없었다. 언쟁도 멎었다. 그들은 기가 막혀서 보기만 했다.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파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콘크리트를 다 삼키고는 제방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탐욕스런 짐승처럼 몽청몽청 갇아먹더니 철썩-하고 제방 웃머리로 달려들었다.

《제방이 위험하다 !》 반장은 제방우로 뛰어 들었다. 파도는 그의 다리를 후려갈겼다.

《가마니 ! 가마니를 !》 가마니를 가져왔다.

그러나 가마니에 흙을 넣어 쌓을 겨를이 없었다. 한초한초가 급했다. 망설이는 사이면 제방은 터져나갈것이었다.

반장은 가마니속에 흙대신 들어섰다. 옆에서 누군가 가마니와 함께 들어서며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작업반 사로청위원장이었다.

다음은 반대쪽옆에 그리고 앞에 또 뒤에...

20여명이 반원들이 모두 들어섰다. 가마니에 몸을 넣고 일어서서 어깨를 견고있었다. 누가 들어서라고 하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들어섰다

파도는 그들의 몸을 휘감아 넘기려고 날뛰었다. 세찬 바람과 물보라, 질어가는 어둠 이렇게 두시간이 흘렀다...

《...제방은 구원되었어요.》

하고 안복너반장은 긴숨을 내쉬었다.

《그날 직장총화에서 저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루작업 결과가 령으로 되었으니까요. 호된 추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저는... 반장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칭찬이라면 몰라도 추궁을 받았는데도 그 말을 하지 않은게말이에요.》

무엇이 이상하랴. 그 두시간에 그는 영원히 잃지 않을 자기의 작업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찾았거늘 !

《추궁은 왜 받았습니까? 제방뚝을 구원했다는 보고를 안했는가요?》

그는 나를 얼핏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걸음은 어느사이에 다시 빨라졌다.

《하여튼 실적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했다는것과 같잖아요? 결과가 령인데 그런 말은 해서 뭘하겠어요?》 《...》

한동안 잠자코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어 서글픔까지 비끼는것 같았다. 나는 말머리를 돌렸다. 즐거웠던 일에 대하여 듣고싶었다. 가장 기뻐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의 이야기를.

그는 기억을 더듬는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얼마 후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언제가 즐거웠던지는... 언제나 그랬던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마감막이를 끝냈을 때야 기뻐했지요?》

《예 그때는 정말... 일하는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누구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래도 힘든줄은 몰랐어요. 그저 <빨리 ! 빨리 !>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니다. 이것 역시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처녀의 얼굴에서 환희와 즐거움이 불꽃처럼 반짝거리는 미소를 보고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시키고 싶었다.

그는 제방뚝을 내려다보며 걷고있었다. 어디에서

그런 즐거운 이야기가 있었던가를 더듬는듯도 했다. 나는 그의 입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며 곁었다. 제방길의 한치한치가 그에게는 곧 추억의 한치한치일것이다. 피로웠던 이야기도, 즐거운 이야기도.

즐거운 이야기는 어느 지점 어느 구간에 있을까...

그때 반장이 쉼쉼한 음성으로 말했다.

《다 왔어요! 여기예요!》 《예?》

나는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디에 다 왔단말인가. 마치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곳에 다 왔다는듯한 말이었다.

《여기가 우리 작업장이예요!》 《...》

그제야 나는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

처녀는 벌써 자기의 반원들속에 서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귀염상스러운 처녀였다. 그러나 작업조직을 하는 그의 손길과 표정은 자신심에 차있었다.

반원들속에 서니 그는 키가 커진듯해보였다.

자신심이란 사랑의 키를 크게 하는가보다.

그는 반원들에게 말하며 나를 보았다.

미소가 불꽃처럼 반짝거리는 눈동자, 방긋이 열린 입,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에게서 보고싶었던 표정이었다.

그 표정은 마치도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즐거운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그를 한동안 지켜보았다. 즐거운 이야기는 여기에 있다. 그의 표정이 하고있는 말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여보았다. 즐거운 이야기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닐가, 어제날의 이야기가 아무리 즐거웠다고 해도 오늘의 이야기, 지금 창조되고 있는 이야기는 더 즐거운것이 아닐가.

즐거운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이다. 처녀반장은 나에게 표정과 행동으로 이것을 말했다.

옳은 말이다. 어제보다 오늘은 항상 더 아름답고 즐거운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어제로 거슬러올라가지 말고 오늘의 5호제방을 따라가보기로 하자.

검은 보물

굴착기가 와르릉거리며 감탕을 퍼올리고있다.

제방을 규격대로 보강하는 작업이다. 공중에 떠 오른 바가지에서는 검은 감탕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것이 제방우에 산봉우리처럼 쌓이면 불도젤이 힘있는 삽날로 밀어서 제방뚝을 넓힌다.

정무원돌격대가 여기에서 일하고있었다.

그들은 불도젤이 일할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있었다.

불도젤은 힘이 세다. 무척 세다. 허나 만능은 아니다. 만능의 힘이란 사람만이 가지고있는것이나. 하여 만능의 인간은 억센 힘을 자랑하는 불도젤에 길을 만들어주고있었다. 신발을 벗어던지고 무릎까지 감탕속에 잠근채 삽질을 해대고있었다.

《별난 흙이라니까!》

그들은 감탕을 발로 밀어가며 말했다.

돌하나 찾아볼수 없는 흙이다. 먼 옛날부터 기름진 논밭으로 될 오늘을 예견한듯 부드러운 이루어진 흙이다. 처음은 굳은듯하다가도 몇번 밟으면 결죽한 죽처럼 변하여 흐물흐물해지며 발목을 그려안는다. 마치 이제껏 사람의 발길을 기다려온듯하다.

시꺼먼 감탕, 굴착기가 퍼올린 감탕에서는 갈계들이 꾸물거리며 영원히 없어져버린 자기들의 집을 헛되이 찾고있다.

굴착기바가지가 공중에서 기웃하더니 그우에 또 감탕을 짹 쏟아붓는다. 감탕이 죽처럼 사망으로 튀겨난다. 굴착기운전공은 조심스럽게 일하고있다. 사람들에게 흙물이 튀지 않을만해야 쏟아붓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수를 했다. 감탕은 요란스레 튕겨올라 한 돌격대원의 얼굴에 들썩워졌다. 웃음이 터졌다. 굴착기운전공은 멀쩡감치로 피해서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것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한다. 돌격대원은 얼굴에 들썩 감탕을 손으로 문지른다. 비릿한 냄새가 풍기는 감탕, 다른곳에 서라면 코를 막으며 돌아섰을것이다.

그러나 돌격대원은 손에 묻은 감탕을 코에 갖다 대고 심호흡을 하며 감탄했다.

《푸짐한데-!》

그는 손으로 감탕을 둥글둥글하게 빚어보며 다시 한번 감탄한다.

《농사가 잘될게야!》

그러고 보면 그는 쌀더미를 뒤집어쓴셈이다.

누구나 여기에서 일하는 돌격대원들은 비린내나는 감탕을 주무르며 래일의 풍년든 황금벌을 생각한다. 그 생각이 없이는 여기에서 일할수 없다.

그로 하여 그들은 흥분하며 일이 힘든줄을 모른다. 하기에 1중대11소대장 최기훈은 난생 처음 써본다는 자작시에서 (그는 이곳에서 《시인》이 되었다. 간석지가 그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썼다.

어디 안아보자

움켜쥐면 줄줄이 흘러내리는

검스레한 흙이

쏟아지는 천만석 하얀 쌀과 같다

그렇다. 이 흙은 곧 래일의 쌀이다. 시꺼먼 흙속에 하얀 쌀이 있다. 하기에 돌격대원들은 이 시꺼먼

감탕이 얼굴에 튀겨도 옷에 제발려도 웃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 감탕이 세상의 모든 흠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귀중한것이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어느 책에선가 읽은적이 있는 짧은 이야기를 생각했다.

첫눈이 내린 날 한 어린애가 마당에 나와 눈을 밟아 덩어리를 만들고있었다.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 처음으로 밟아보고 처음으로 쥐어보는 눈이었다. 티없이 희고 폭신평신했던 첫눈, 아이는 한덩어리 또 한덩어리 신이 나서 밟아놓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의아하여 물었다.

《그건 뭘 하려고 밟니?》

《사람들에게 팔려고요.》

《뭘 사람들에게 팔아?》

그 사람은 크게 웃었다.

정말 철이 없구나. 누가 그걸 사겠니?》

어린애는 그를 이상스레 쳐다보았다.

(왜 안사요?)

(나부터 사지 않겠는걸.)

(그럼 못가겠지요 뭐. 이렇게 좋은걸 !)

아이에게는 처음으로 만져보는 눈이 신기한 보물처럼 여겨졌던것이다.

돌격대원들에게는 질척거리는 감탕이 보물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다.

혹시는 옛이야기에서 나오는 보물연적처럼 무엇이든 다 얻어낼수 있는 보물로 보이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실이다. 나무재기만이 돌아나고 갈게들이 주인으로 쓰다니던 땅, 땅도 바다도 아닌 수천년 버림받아오던 검은 감탕판, 하나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속에서 보물로 변하고있다. 돌격대원들이 솟아나오던 어린애처럼 뛰여보고 만져보며 웃고있는 흙. 여기에 높이 솟아오를 1,500만톤 황금로적거리의 한부분이 있다. 이 검은 흙속에 그들의 래일의 꿈이 있다!... 나는 말하고싶다. 만일 독자들중에 누구이든 황량해보이는 간석지를 지나는 행복한 기회를 갖게 된다면 검은 감탕을 쥐고 웃는 돌격대원들을 보아도 부디 어린애를 철없다고 하던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붉은 잔디와 푸른 잔디

잔디라면 사람들은 푸른 잔디를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간석지에는 붉은 잔디가 있다. 오직 붉은 잔디만이 있다. 그것은 간석지의 색조이기도 하다. 제방에서 바라보면 붉은 잔디밭이 검은 등판과 함께 눈모자라게 펼쳐진다. 허나 그것은 꽃이 아니라 나무재기라고 부르는 해홍나물의 대군락이다.

선명하지 못한 붉은 빛, 마치 소금물에 씻기우며 녹슨듯이 보이는 붉은 빛, 푸른 빛은 한조각도 찾아볼수 없다. 가을이면 의례 찾아오기 마련인 황금빛을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

허나 오늘은 간석지에 푸른 잔디가 심어지고있다. 녹슨듯한 대지에 돌격대원들이 자애로운 어머니대지의 붉은 표정을 삼고있다.

돌격대 1중대장 김성만은 제방에 줄간지듯이 심어나가는 잔디를 눈을 찌긔하고 내다보며 손세를 써가면서 지휘한다.

《올라가야겠소 ! 계단이 좁아졌소 ! 평행돼야지.》

마치 철길부설을 지휘하는것 같다. 그는 철도부출신이다. 평행선과는 깊은 인연을 가졌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다.

2소대 1분대장 림재식은 잔디의 줄을 바로잡느라고 철새없이 잔소리를 하고있다.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있으나 일터에는 반드시 잔소리꾼이 있어야 한다. 잔소리란 장석 쌓는데 반드시 필요한 켜기장돌과도 같은것이다.

《아- 저기가 또... 동무네말이야. 잔디라는

건...》 측량기를 당장 불러올듯하다. 잔디의 줄이 곧은가 곧지 못한가에 제방의 만년대계가 달려있기라도 한듯하다. 사실이다. 이 잔디는 앞으로 개간된 간석지에서 흐느적이게 된 푸른 초목의 첫 선구자가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이 잔디는 땅과 간석지의 푸른 경계선으로 될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뒤는 더는 간석지가 아니다 !》 하고 선언하는 누구의 얼굴이나 흥겨운 빛이다. 살아있는 빛이란 붉은색밖에 모르던 간석지에 싹트는 푸른빛, 무르익는 록음, 결실의 황금빛을 심고있는것이다.

허나 한사람, 돌격대원 박철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시인이다. 현지에서 돌격대원으로 일하며 글을 쓰는 시인이다.

《안된단말이야! 여기에 척 오니까 생각나는것이 <넓어지고 넓어지자 나의 조국이며> 하는 구절이었는데...》

같이 삽질을 하던 리철국이 말했다.

《거 좋은데 왜 그래요? 넓어지고 또 넓어지자!... 좋아요. 그렇게 쓰라요!》

젊은 성격대로 제가 먼저 흥분하여 떠들었다.

시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평남관개시초> 라는 시가 있는데 기막힌 시지. 그 시의 처음이 <변하고 또 변하자 아름다운 강산이며> 이렇게 시작했거든.》

《그것도 좋은데. <넓어지고 또 넓어지자 나의 조국이며!> 이것도 좋아요!》

시인은 또 머리를 흔들었다.

《류사성이란 문학에선 죽음이야.》

리철국은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에 눈이
때곤해졌다I가 썩곳 웃었다.

《그게 뭐 같아요? 말부터 다른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것 같아요. 넓어진다. 얼마나 좋아
요!》 시인은 또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가 줄곧 가
로 텅기에만 준비되어있는듯했다.

《그렇질 않아. 여기에는 더 좋은 시가 있어야 해.
또 있는거구. 그걸 찾아내야지.》

《그런데 참. 소대장동지가 시를 썼는데 야- 기
가 막히게 썼두만요!》

《그래?》 리철국은 《줄줄이 흘러내리는 검스
레한 흙이》 하는 시를 넘두에 둔것이다. 그때 《시
인》 최기훈은 허리를 펴고 제방을 바라보고있었다.
멀리로 뻗어나간 제방. 그의 입에서는 휘파람소리
가 흘러나왔다. 간석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간석지의 밤》 이였다.

백리제방 바라보니

구슬땀 흘린

하더니 더는 참을수 없는듯 입밖에 내어 부른다.

청춘의 보람

가슴에 안겨오네

그는 확실히 시인이다. 둥글둥글한 생김새와는
달리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있다. 복받치

는 벽찬 충동을 참을수 없는 모양이다.

치너들의 쟁쟁한 목소리가 받아부른다.

불타라 심장아

청춘의 심장아...

그들도 역시 시인이다. 간석지건설자들 모두가
시인이다. 그럴수밖에 없다. 녹슨듯한 등판에 네제
절을 안아오는 그들의 일부러가 하나의 시인것이다.
시란 창조라고 한다. 그들의 일이 곧 조국의 대지
를 넓혀가는 창조가 아닌가 !

그러나 시인 박철은 계속 사색으로 그늘진 얼굴
이다. 가슴속에서 용솟음치고 주위에서 소용돌이치
는 인상들을 이렇게 시로 쓸것인가. 한편의 시를 써
도 후세에 전해질 명작을!

그는 사색하며 고민하며 모태기고있다.

푸른 잔디를 밟고서서 붉은 잔디를 바라보며

리철국은 그를 불끄러미 보며 동정하듯 머리를
흔든다.

《쉽질 않구만 시를 쓴다는게.》

허나 독자들이여, 시인을 동정하지 말라. 도리어
부러워하라 !

그는 벌써 후세에 영원히 전해질 가장 아름다운
시, 훌륭한 시를 창조하고있다.

30만정보의 간석지야말로 먼 후세에까지 영원히
전하여질 창조물인것이다 !

가장 즐거운 이야기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바다바람, 간석지바람
이다. 거칠곳없는 간석지에서 바람은 제멋대로 날
친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람에 기와장이 날
려간다고 한다. 허나 나는 이곳에서 기와장 없는 집
을 본적이 없다. 이곳 사람들이 파장을 좋아한다거
나 기와장이 날아나지 않게 대책을 취했다고 생각
하는것이 옳을것이다.

제방 경사면의 흙이 바람에 휘뿌려 얼굴을 아프
게 때린다. 눈을 뜨기 어렵다. 흙의 소나기라고 할
가. 자동차와 트럭포크가 달려 지나갈 때면 온 제방
이 먼지안개속에 휩싸인다. 이것이 간석지다.

《자주호》 대형자동차가 땅크처럼 와르릉거리며
달려왔다. 흙을 산더미처럼 부려놓고 도로 달려간
다. 이제 불도젤로 그 흙을 밀어 제방경사면을 돋구
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불도젤은 어지간히 떨어진
곳에서 우물거리고있다. 삽날을 쳐들고 달려오지만
불도젤은 자동차가 아니다.

《좀 빨리 올게지, 여기까지 오려면 원.》

《최고속도야 저게.》

《명짚은놈은 죽고말겠다. 젠장!》

하고 투덜대는데 소대장 최기훈이 말했다.

《와 달라붙어 제끼고말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삽날들이 흙무지에 폭폭
박혔다. 힘이 부쩍부쩍 솟는 청년들이다.

리철국, 한정학, 현권진, 최명식, 양춘광 등 사로
청원들이 달려들었다.

자리가 폭폭 났다. 평생 이런 일만 해온 사람들
같고 이 이상 마음에 드는 일은 없어하는것 같다.

눈여겨볼 사이없이 삽날이 오간다. 폭포처럼 경
사면으로 쏟아지는 흙, 억센 숨소리, 번질거리는데.

일은 삽시에 끝났다. 산더미처럼 쌓였던 흙이 어
느사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그제야 불도젤이 왔다. 운전공은 불도젤을 멈추
고 머리를 내밀었다.

《이자 〈자주호〉가 흙을 부리지 않았나요?》

《부렸소.》 《어데가요?》 리철국이 말했다.

《어데긴 어데야? 여기지 !》 《여기?》

운전공은 그들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삽자리가 남아있을뿐이다. 세찬 바람이 바닥에
남은 흙을 날려가고있다.

누군가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바람에 다 날려간게 아닐가?》

소대장 최기훈은 능청스레 말했다.

《여기 바람은 이렇게 세다는게야.》
와- 하는 웃음에 불도젤운전공도 웃었다.
여기 바람은 기와장도 날린다고 말한것이 운전공
이었던것이다.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그런데 땀으로 먹감
은듯이 된 리철국은 삽날을 땅에 푹 박으며 울적하
게 중얼거렸다.

《이런 일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는단말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거야 뻔하지 않아요? 간식지를 개간하러 왔는
데 이렇게 제방에 분칠이나 하고있으니.

내가 있던 직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
는줄 알거예요. 이거야 어데 일인가요? 적어도 바
다물과 싸우고 밀물을 가슴으로 막고...》

그는 등판너머를 가리켰다.

《저기에 나가야지요. 저기에 !》

등판너머에는 파도가 쉽없이 철썩거리는 바다가
있다.

등판을 짜거운 물로 잠그려고 만조시간을 기다리
며 사뭇치는 바다가 있다.

그 소란스러움과 사나움이 돌격대원들을 기다리
고있다.

《우리가 어게 갈곳은 저기지요. 저기 !》

하고 말하는 돌격대원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번쩍
거렸다. 그 불꽃이 번쩍이는 눈과 흥분에 찬 미소!

나는 저도 모르게 아침에 보았던 처녀작업반장의
눈동자를 상기했다.

《여기예요 ! 다 왔어요 !》

훌륭한 생활, 즐거운 생활은 여기에 있다고, 오늘
에 있다고 말하는듯하던 그 눈길, 《왜 어제의 이야
기만 자주 들으려고 하나요? 더 좋은 오늘의 이야
기를 두고 !》 하는듯하던 얼굴.

돌격대원들의 눈길은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진짜 이야기는 래일에 있습니다. 저-기에 !》

저기- 그것은 래일이다. 30만정보의 간식지가
황금벌로 펼쳐여지는 래일이다. 가장 훌륭한 이야
기, 가장 즐거운 이야기는 바로 저기, 래일에 있다.
30만정보의 새땅을 어머니조국의 대지에 선물로
드리게 될 이야기가!

쉽없이 철썩거리는 바다의 벽찬 숨소리로 돌격대
원들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에로 부르고있는 래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2,000여개에 달하는 서해안의

섬들을 1980년대에 어떻게 그리도 많이 지도우에
서 지워버리게 되였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할것이
다.

그때면 얼마나 많은 섬들을 우리는 잃게 될것인
가? 허나 그것은 즐거운 사실이다!

나는 지도공부를 하는 어린 동생에게서 이런 질
문을 받은적이 있다.

《서해안은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그 물음에 대답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였던
가! 어린애에게 침식해안이며 통지해안이며를 리
해시킨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어린 딸애가 지도를 펴놓고

《아버지, 서해안은 왜 자막대기를 대고 그린것
처럼 되여있나요? 여기도 여기도, 또 여기도...》

하고 물을 때면 쉽게 대답할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것은 너의 아버지
들이 당에서 가리키는대로 오늘에로 곧추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 그였기때문이다.》

허나 이것은 벌써 래일의 이야기이다. 가장 즐거
운 이야기는 래일의 이야기인것이다 ! ...

독자들은 이 글을 읽고나서 말할수도 있다.

《왜 여기에는 아무 위훈의 이야기도 없는가?》

그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것이 위훈이다 !》 라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건 설사 제방에 심은 잔디의
줄을 한두치 바로잡아놓는 일을 한다고 해도, 지어
휴식시간의 간식보장을 위한 굴잡이 조개잡이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성스러운 일의 한부분이다.

위훈은 평범하고 범상한 일의 루적이기도 한것이
다. 그 일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
면 !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 나라 대자연개조사업의
초창기에 한 시인이 그리도 격조높이 읊었던 시구
절로 끝내려고 한다.

변하고 또 변하자

아름다운 강산이여...

그러고 보면 이 시도 역시 가장 즐거운 이야기가
태어나는 래일에 바쳐진 시이다.

래일, 래일로 가자!

30만정보의 대지가 어머니조국땅에 안기여질 래
일로 더 빨리 가자!